

THE THEOLOGICAL REVIEW

Published Bimonthly by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

Editor-in-chief.

REV. H. NAMKUNG Th. M.

Associates

Rev. W. C. ERDMAN D. D.

Rev. W. D. REYNOLDS D. D., L. L. D.

Volume X

SEPTEMBER 1928

Number V

CONTENTS

Lord Teach Us to Work.	Rev. S. L. Roberts.
Criticism of Kant's View of Religion	Rev. P. C. Chai
The Date of Crucifixion of Jesus	Rev. H. W. Lampe.
The Work of God in the Beautiful and Sublime	Mr. H. N. Park.
The Spirit of God in New Testament	Rev. G. Engel.
The Superiority of Christ in the Epistle to the Colossians	Mr. C. M. Chung
Sunday School Lessons	Rev. W. C. Erdman.
Christian Endeavor Society	Rev. C. A. Clark.
Children's Sermon	Rev. H. Namkung.
Exposition of Zecharia	Rev. W. C. Erdman.
Exposition of Hebrews	Rev. S. W. Lee
Exposition of James	Rev. S. L. Roberts.
Exposition of Romans	Rev. H. Namkung

Communications for the Editors should be addressed to
Rev. H. Namkung Theological Seminary Pyengyang Korea. Subscriptions and all
Business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to

STACY L. ROBERTS PYENG YANG KOREA.

Annual Subscription : ¥ 1.20,

Single Copy, 25 Sen

To Foreign Countries \$ 1.00 Payable in advance.

Advertising rates on the next page.

ADVERTISING RATES

ONE PAGE IN ONE ISSUE ¥10, THREE ISSUES ¥25,
ONE YEAR ¥40. HALF PAGE IN ONE ISSUE ¥6,
THREE ISSUES ¥15, ONE YEAR ¥25.

SEND TO BUSINESS MANAGER, S. L. ROBERTS.
PYENGYANG KOREA.

本報代金表 (先金으로)

一冊 (郵稅並)	二十五錢
半年分 三冊	六十五錢
壹年分 六冊	壹圓二十錢
歐米各國 一冊付 (郵稅並)	四十錢
壹年分	二圓

廣告料金 (要先金)

壹個年分	半	年	分	二	個	月	分
一頁	四十圓	二十五圓	拾	圓			
半頁	二十五圓	拾五圓	六	圓			

○社 告

本雜誌發行日割

第一號	一月一日	第四號	七月一日
第二號	三月一日	第五號	九月一日
第三號	五月一日	第六號	十一月一日

昭和三年八月二十四日 印刷
昭和三年八月二十七日 發行
(年六次 行)

平壤景昌里八二

編輯兼 米國人 羅 富 悅
發行人

京城府堅志洞三二

印刷人 金 在 涉

京城府堅志洞三二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平壤府景昌里八三

發行所 神學指南社

振替口座京城七八五二番

DOLLAR STEAMSHIP CO.

REGULAR SAILING TO AMERICA VIA
KOBÉ - YOKOHAMA - HONOLULU
TO
SAN FRANCISCO

W. W. TAYLOR & CO. - SEOUL AGENTS
AGENCY FOR TRANS - PACIFIC ROUTE

米國、하와이、馬尼喇、上海、香港等
地에 往來하시는 여러 분의셔는
米國에 最大인 솔나汽船會社에
船舶을 搭乘하시면 第一安全且
便利합니다 船賃其他를 알고자
하시면 本商會에 問議하시옵

솔나汽船會社朝鮮總代理店

京城府太平通二丁目四〇

W. W. 테일러 商會

BURPEE'S SEEDS GROW

BURPEE'S Seeds have a world-wide reputation as The Best Seeds That Grow. Gardeners everywhere realize the importance of using seeds of known quality.

Burpee's Annual is The Leading American Seed Catalog. It describes the Burpee Quality Seeds. Burpee's Annual is a handsome book of 188 pages with more than 200 color pictures of the best vegetables and flowers. A million gardeners read Burpee's Annual every year. It is the most popular seed catalog in the world.

If you are interested in gardening, Burpee's Annual will be mailed to you free. Write for your copy today.

W. ATLEE BURPEE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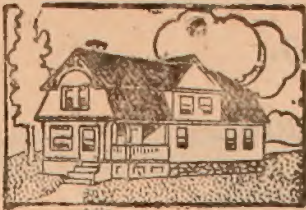
SEED GROWERS PHILADELPHIA, PA., U. S. A.

農 產 物 種 子 廣 告

此는特別히美國農產物種子이을세다。諸位兄弟여시或宣教師의게請求하시나、時期가相違되여如意치못한事이만흔줄알내다。只今好期會가잇습을仰告하오니、美國버비스會社는世界種子商業界中에有名한會社이을세다。무삼種子던지엇기를願하시면注文하야郵便小包로내여을수잇사오니、去來期間이三朔間이은즉陽歷一月에即時注文하셔야될내다。各其所親대로宣教師형님의게代金을주시고付托하시면될수잇사오며、朝鮮셔도左記商會에서求할수잇습내다。

左 記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四五番地 怡泰棧
他種子別大麥、小麥、綿花、南苾、菁根等其他



The Beauty of A Colored Roof.

FOR PRESERVATION DECORATION
AND RENOVATION

Special
Wilkinson Heywood & Clark's

PAINTS, VARNISHES, ENAMELS & DISTEMPERS

THE STANDARD OF EXCELLENCE

THROUGHOUT THE ORIENT

F. C. Banham Far East Man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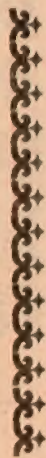
W. W. TAYLOR

SOLE DISTRIBUTORS

FOR CHOSEN



五拾圓以上一射注文에對하여特히壹割減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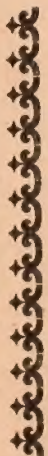


家屋과什物을綴裝하고改新하고保護
하러면必히윌킨손헤이웃클락-會社
製의大型油漆마-너쉬-에나멜等을
用하시오曾往에試用하신평諸位는右油
漆이東洋에著名을法定品인줄認准하
시나이다地面의容量과其久遠함과華
麗함을計하면右油漆이比할處가無히
價歇하의다

京城府太平通二丁目四番地

朝鮮販賣總代理店

W.W. 泰日羅商會



Taion & Co.

GENERAL STORE KEEPERS

PYENGYANG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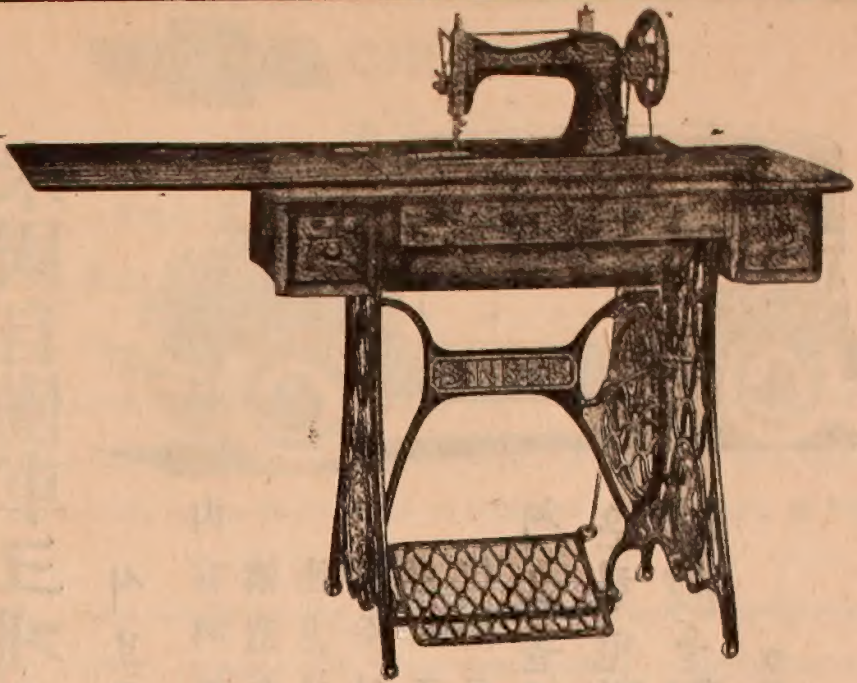
舶來品廣告

諸位의 特別히 食料品을 買得코져 하시면 此
會社를 紹介합니다 此會社에서는 特別히 西
洋食料品이나 牛乳나 西洋物品을 多數히 放賣
하오며 聖餐에 所用될 만호 葡萄汁도 販賣하
오니 有意諸氏는 所用處를 詳히 注文하시기
를 바라나이다

平壤府南門通

歐米 雜貨 商 泰安洋行

神學指南事務局長 白



SINGER SEWING MACHINES
SEE TRIAL OFFER

You may have a machine delivered in your home for 7 days trial without any expense whatever. Ask our local agent for particulars of this. You will find Singer Shops and Agents in every town who can supply you with genuine Singer Parts, Needles & Oil. Look out for the Red "S" trade mark and 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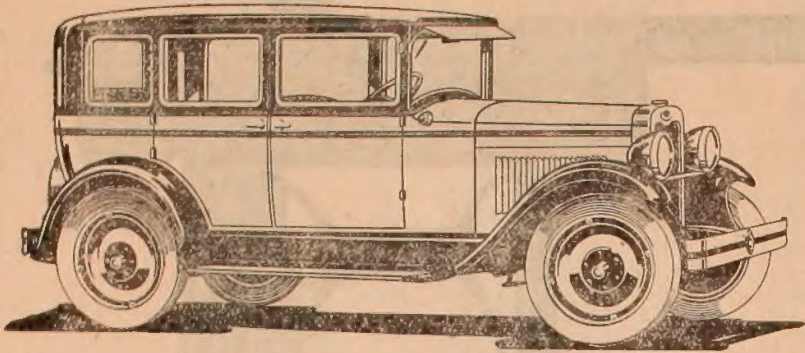
싱거재봉침

무료시험기회

이재봉침을사기전에돈내지안코
七일동안당신의집에두고연습할
수가잇스니이것대하여자세히알
고저하시면본디방에잇난우회사



대표자의계문의하시오 우리회
사가각처에잇스니이후에아모써
에나재봉침이병나면즉시곤철수
가잇스며바늘과기름과그라용품
을줄수가잇습니다다재봉침을사실
째는이아래잇난것과갓흔話은본
상표를주의하시옵



米國自働車크게改良된별것

시브롤네號自働車

內容과外觀이모다絶冠

構造는堅牢하야耐久力이富

速力이强大하고모든境遇에信賴

할수잇슴

타기조코便利하며優秀한材料와

技術로製造

시브롤네號를使用한經驗이업는분

은한번弊店으로來臨하샤그優越한

特徵을觀覽하옵소서

京城府太平通二丁目四十番地

W.W. 레일러 | 商會

THE CHEVROLET Again -the Greatest Sensation of America's Greatest Industry

Built on a wheelbase of 107 inches-four inches longer than before, and incorporating scores of vital contributions to performance, beauty and safety - the Bigger and Better Chevrolet marks a significant epoch in the development of luxurious transportation at low cost!

Prominent among the new engineering advancements it incorporates are constant clearance alloy "invar strut" pistonshydro-laminated camshaft gearsmushroom type valve tappets a complete new steel motor enclosure a new worm and gear ball bearing steering mechanism fourwheel brakes and new semi-elliptic shock absorber springs set parallel to the frame!

But sensational as these engineering achievements are, they are matched in impressiveness by the marvelous new Fisher bodies-longer, lower and roomier.....more beautiful than evermore superbly styledand more attractively finished and appointed!

Go to the display room of your Chevrolet dealer to-day-and see the world's most luxurious low-priced automobile!

W. W. TAYLOR & CO.

Authorized Dealers to Chevrolet & Oakland

CHEVROLET IS A PRODUCT OF GENERAL MOTORS

Missionaries -- Save Money on Christmas Gifts

Missionaries: Now is the time to select your Christmas gifts from our catalogue at money saving prices for shipment abroad. Safe delivery to any part of the world.

Churches: We will forward orders for Christmas donations and supplies to foreign missions, and save you money and worry.

Foreign Field Secretaries: Anticipate the Holiday needs of your Missionary Associates. Communicate now with our wholesale Department.

Special discounts on purchases for your stations.

A FREE copy of the famous Montgomery Ward catalogue upon request.

MONTGOMERY WARD & CO.

Missionary Bureau

Chicago, U. S. A.

만드거머리왜룻상회

이會社는每年數百萬圓의 物件
 을放賣하며 世界各國에 보내는
 其品目은數千種이로되 大部分은
 로말하면 食料品과 男女의 衣服과
 自轉車와 各種樂器와 書籍과 연장
 과 家具와 農事하는 機械와 其他各
 種이有호오니 其要覽冊을보실意
 向이계시면 本雜誌事務長의 게서
 엇어볼수잇스오니 請求하시고 若
 物件을 注文코저하시면 親近호宣
 敎師의 게 委托하시면 될줄노生覺
 합니다

하였습니(렐七. 32, 十九, 1-13). 이 곳
 에는 에루살렘의 모든塵埃와廢物이며
 또한 여러罪人의屍體를消滅키爲하야 四時
 에休火되지 아니하는 곳이다. 이러한形便으
 로부터始作하야 이한노메를작이라謂는將
 次不獲한人生이 永罰을받음場所의表號의
 印象을받게되었습니(마十八, 8-9, 막
 九, 43). 以上語外에도 타라로스(Tata-
 『8』(후二, 4) 단語도亦是「地獄」으로譯한
 者이니 로마인이나 헬나인이나를勿論하고
 다 타로스는 헤이드의下層에있고 헤이드
 는 天堂下面에있는중노생라하였습니(다.
 三)「樂園」이란語는 英譯의(Paradise)라
 하였스니 이것은根本波斯語根으로부터된
 말인라 「園圃」의 뜻이되다. 그리하야 에덴
 東山도樂園이라하였습니(다. 惡人의死後
 居住하는處所로思한바 後代유대人들은天
 堂을二分하야 上部는天堂 下部는陰府의
 一部即義人의靈魂이居하는 場所로생각하
 였스니 假令구十六, 23의 「아브라함의몸
 안」이라한것이 이것이오 구二十三, 43의
 「樂園」이 이곳이되다. 그렇지以上을總括
 的으로보면 「樂園」이라한말은 陰府의一

部分을意味한말이오 이「陰府」란것도人生
 이死後로부터復活時까지의臨時住處요「地
 獄」이란것은 그復活後惡人의受刑處인듯합
 니다. 그런대 三傳319에 主의서만일地
 獄에가사다하면 이것은예수의서世上을셔
 나신後居住하신곳이아니요 特別한使命을
 가지시고 그獄에가치罪因들의게 福音을
 宣布하시러가신것을 傳졌이되다. 何如問
 이問題에對하여서는 聖經에도明白한解釋
 이업스즉 譯어대라고判定키는어려우나樂
 園이陰府의一部分이든지 地獄이라모든
 지가지對하야우리信者는 조음도念慮할
 바없는것은 우리信者가있는곳은어대이든
 지主의서함되었는연고이되다. (南宮)
 三問 第四章에예수께서四十日을 試驗받
 으셨단말이있고 또聖經가운데에는「四
 十」이란數字가만흔나 이「四十」이란數字
 에무는別意味가있습니가? (一讀者)
 答 果然인「四十」이란數는 聖經에나라만
 못이만습니(다. 그러나 그出處는未詳함니
 다. 或유대風俗에 四十歲를一期로잡는例
 가있는故로 이意味에因하야 이스라엘民
 族이曠野에서四十年이업스것과 모세의年期
 를三分하야 四十式한것과(行, 28, 申三

十四, 7). 엘리(삼上四, 18), 사울(行十
 三, 21), 다윗(王上二, 11), 솔로몬(王上
 十一, 41), 에호아하스(王下十二, 1)의年
 代를다 四十이라한것과 유대인이불레셋
 人의게壓制를받은年代數와(사十三, 1, 四
 니맛이 이스라엘陣을對하야 挑戰한日數
 와(王上十七, 16) 모세의禁食日數와(出三
 十四, 28), 엘리야가 호렘山에잇는日數와
 (王上十九, 8), 예수의禁食日數와(마
 四, 2), 니브의城滅亡을豫告한日數, 行七
 3) 가다慣用上數字로쓰는것생이요 여러別
 뜻이잇다고생각할수는업습니(다. 었지하
 야何必의「四十」이란數를 썼느냐함에對하
 여는 希臘人, 유대人, 아라비아人間에이
 「四十」이란數字를 人生의一期로생각한말
 이잇섯스니 以上에말한과와갓치 이스타
 엘인이 四十年間曠野에서放浪한것은 그
 사의에舊以色列人은死滅하고 新以色列人
 이出生한即人生의一世를意味한것이오 그
 뿐아니라유대先輩들은 四十을人生의成熟
 期로認定하였고(晏子의「四十不動心」이란
 語도 亦是이意味인것것을 또한同々敎人
 의고린經에도 四十을人生의完成期로잡었
 습니(다. 그리하야이와갓치「四十」이란數
 를大略의完成數로慣用됨을사라 始作이된
 것갓습니(다. (南宮) (또잇소)

質疑欄

聖經離旬政治教理等에 對하여 敎役하시는데 中에 疑問點이 있거든 未記錄하며 보배시면 할수 있는 대로 解答하여 드리겠습니다

一問 卷四1에 「맛참내맛나논者마다 나를

죽이리다」하였스니 當時아담의 家族外에 死다른 人類가 있었습니가? (一讀者)

答 解釋은 들어 있습니다

(一) 「맛나논者마다」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 합니다。即 恐怖에 처한 사람이 능생이라도 自己를 害할을 노임고 한말이라 하나 구해라 그러케 解釋할 必要가 없고 (二) 사담은 모본은 것이 가능한데 아사람들은 아담 家族以外에 別族屬이 아니고 아담이 子孫中에 出생한 者이든지 或은 將次생길 後孫中에서 自己를 害할者가 있을수 있고 한말이라 합니다。이 세키 아담의 孫子나 曾孫은 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本章十七節과 五章四節에 보면 勿論아담子孫의 數及가 繁殖한 것을 볼 수가 있스니 恐怖中에 처한 者인으로서 이러한 者中에서 自己를 害할者가 必有할 것을 豫測하고

말한 것입니다 (南宮)

二問 卷三19에 主의서 地獄에 가신 것도

事實이고 卷二十三43의 主의서 樂園에 가신 것도 事實이니 예수는 樂園을 다녀서 地獄으로 가신 것입니까? (一讀者)

答 이 問題는 簡單히 對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먼저 地獄과 樂園에 關한 語源을

알겠습니다。卷三19의 「獄」은 希臘語로 譯하였습니다。此語를 靈을 가도 牢獄으로 쓴 것은 新約의는 卷三19, 卷二10, 二17에 있고 그外에는 陰府, 地獄, 地獄火로 譯하였습니다。陰府又是 地獄으로 論하던 것이니 제헌나 등 二原語가 있는 바 이것을 英語로는 둘다 (Hell)라 譯하였스나 語意는 多少不同한 듯합니다。헤이드 (Hade)라 譯는 舊約의 세울과 同一語인 데 大體는 死後靈의 住處로 쓴 말이고 (詩十

六, 10, 行二, 27) 墳墓의 意로 用한 것도 있고 (창 三十七, 35) 그 位置도 말하면 地下에 있는 줄 알았스니 (民 十六, 30, 33, 詩 三十一, 17, 卮九, 2) 猶大人의 생각에 이 陰府는 門을 通하여 들어가는 줄 알았고 (사 三十八, 10)甚히 暗黑하여 그 속이 居하는 靈은 感覺力은 잃스되 活力이 적은 줄 알았습니다。(상 下二十二, 6, 詩 六, 5, 卷九, 10) 이 陰府에는 善人惡人을 勿論하고 死後에는 반드시 이 곳으로 들어가서 罰도 받고 賞도 받고 또는 거기서 世上에 다시 나올수 있는 줄 알지 안 것 같습니다。(상 上二十八, 8-19, 히 十一, 19)。

제헌나 (Gehenna) (마 五, 22, 29, 30, 十, 28, 十八, 9, 二十三, 15, 33, 卷九, 47, 卷十一, 5, 卷十三, 9)은 제헌나 (Gehinom) 즉 헨노에 딸락 (The valley of Hinnon) 이 原語로부터 希臘化한 말이니 옛날에 猶大人들이 에루살렘 城外西南便에서 異邦神을 죽 (Molock)의 제 子女로 火祭를 드리는 곳이니 (사 十五, 8, 王 下二十三, 10)에 의미의 時에 가서 殺戮의 場락 (The valley of slaughter)이라 하는 말이

遺傳性으로腐敗하지아니한것을證明한다。 그것보다
도이解釋은 바울의根本敎理와違反된다。 모든사람
이遺傳된腐敗性을因하여 死亡에이른다할것갓흐면
이는그리스도의義도定義되는敎理 와合할수도업다
定義되는것도亦是 個人의遺傳性인義로말미암어되
어야만이解釋과對가될것이다。 15 | 19를보면 이解
釋이正當치아니한것을알겠다。

三、近代神秘主義神學家들은 모든사람이아담의
게서事實上犯罪하였다함을確言한다。 아담의犯罪行
動은모든사람의代表的이아니요 事實上으로모든사
람이아담의게서犯罪한바되었다한다。 아담은모든人
類의始祖인즉 始祖의犯罪行動은 即人類의犯罪行
動과同一한것이라한다。 그러나이解釋도너머지나치
는말이다。 모든사람이엇더케事實上으로 아담의게
서犯罪한바되었스라 아담의行한것은아담個人의行
한것이요 모든사람이實際적으로 行한것이라하기
어렵다。 만일우리人生이事實상으로 아담의게서犯
罪한바되어 아담의行한것이 究우리의行한것이될
것갓흐면 또한우리가그리스도안에서 順從함으로
그리스도의義와 그리스도의死亡이 우리의行한것

이된다하면 이것도聖經대로된 解釋이라고모기어
렵다。

四、正當한解釋은이러한것갓다。 아담은오직人生
의祖上이요 代表로그의犯罪한行動이責任上으로모
든人生의게밋친다。 即人生代表의犯罪行動이 法律
上으로모든人生의게波及된다。 換言하면 모든人生
이事實上犯罪한일이업술지라도 그代表의犯罪行動
으로因하여罪人과갓치 待遇를받는다는말이다。 이
리케解釋하여야 그리스도의義로 人生의定義함을
맞는것도그리스도의義가 事實上信者의義가되어完
전한義인이된다^{는말이아니고} 오직人生이그리스도
의代表的義를因하여義人의待遇를받는다는말과 合
하는말이된다。



있다 한 말이다. 그리고 原文의 가이후토스 (Kaiutos) 를 結果의 意로 解釋하여서 「그리하여」로 譯하는 것이 可하다.

「모든 사람이 罪를 犯하였습니라」本句에 難解處는 末語「하였습니라」에 있다. 本文에 엡호(四二)直譯하면 「彼內에서」(in whom) 율겟譯과 갈린派는 아메니아派에서도 이 뜻으로 解釋하는 者가 만다. 이리케하면 아담을 가라친 것이 된다. 卽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犯罪하였다. 그러나 이는 文法上으로 不合하다. 聖經 다른 句節에 本語를 理由(Because)로 쓴 데가 만다. (고후五 4, 빌二 12, 빌四 16, 막二 4 行 七 33). 本句에 이보다 더 緊重한 뜻이 잇스니 이는 모든 사람이 罪를 犯하였다는 말이다. 잇더케한 사람이 事實上 다른 사람 안에서 犯罪할 수가 잇는 가하는 問題이다. 여긔껏가져 重要한 解釋을 紹介한다.

一、個人의 犯罪說 — 벨나기오以後 여러 註釋家들은 아담一人의 犯罪가 모든 人生의 계밧것이어 아니라 모든 사람의 各其 犯한 罪의 結果로 死亡이 모든 사람의 계밧것이다. 그러나 이 解釋은 尙當치 못함 理由가 몇이 잇스니 (一) 여긔 犯罪한다 한 動詞가 現在도 아

니오 慣用性을 表示한 것도 아니오 一時的 過去의 行動을 表示한 歷史的 時制이 니 모든 사람이 一次 아담 안에서 犯罪한 것으로 볼 수 밧게 업고. (二) 本節의 原意가 死亡의 根源이 우리 個人의 계밧것지 안코. 아담의 罪에 잇습을 解明코저한 것이오. (三) 13, 14은 12에 가라친 말을 證명한 말이니 이것을 우리 個人의 犯罪한 것이라 볼 수 업고. 四이 解釋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比較를 否定하는 것이 되고 만다. 모든 사람이 各其自己의 罪를 因하여 죽을 것이면 또한 모든 사람이 各其自己의 內在한 義를 因하여 살 것으로 볼 수 밧게 업스니 이는 本節의 大意에 違反되는 것 썩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敎理에 矛盾이 되는 말이다.

二、人類的 腐敗性說 — 아담이 犯罪한 結果로 性惡하여져서 그 惡性이 後孫의 계先天的으로 遺傳된 고로 모든 人生은 이를 因하여 死亡에 이른다 이 것은 己論한 바와 같치 갈린의 見解이다. 이 解釋대로 보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계서 밧은 腐敗한 遺傳性을 因하여 死亡에 이르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이 解釋은 正當한 解釋으로 보기는 어렵다. 임의 말한 바와 같치 13 14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犯罪한 것을 證明하고

보인다。그러가變化하지 아니하였겠다는말은업다。바울은또信者를對하야 「우리는죽을것이아니요將次다變化할것이라」 우리가다잘것이아니요...變化하리니」(전고十五)하였다。그린즉이런말을다보면 여기「死亡」이라한말은 刑罰노맛는모든苦難과靈肉의死亡을意味한것이요 肉體의死亡만말한것이아니다。聖經어러곳에가라친死亡이 거의다犯罪의結果로맛는刑罰을가라친것이니 自古로모든聖經著者들이다。이뜻으로使用하였다 창二七에 「네가먹는날에는 반다시죽으리라」 겔十八에 「오직犯罪한靈魂은반다시죽으리라」 롬六三에罪의감손死亡이라 八三 「에너희가肉身을뜻차살면 반다시죽을것이요」 이와갓흔句節은넘어만하 다引用할수도업다 그뿐아니라 聖經에가라친바生命과死亡을보아도알지니 生命은義人의賞으로 死亡은惡人의罰노첫다 창二七에도 아담과이와의게 順從하면永生을許諾하고 不順從하면死亡으로威脅하였다。申三十一에 「내가네압헤生命과死亡을두었노니」 령二十一 八 及十 一 詩三十六 九 及二十五 四 及三十五 後고二 及六 及其他를 보와도그리하다。生命은그리스도로말미암어오고死

亡은 아담으로말미암어왔다하는對로쓰말을보와도分明하고 16, 17, 21에보인 「罪가死亡하게다사림과갓치 恩惠로또한 義를因하야 永生에이르게하야 다사리는바되었나니라」 한말을보와도 여기말한「死亡」이란것은 肉體의死亡을가라치는同時에犯罪의結果로맛을罰 卽靈과肉의死亡을갓치말한것이分明하다。

「그리하야死亡이모든사람의게밋침은」死亡은罪의必然的結果인즉 모든사람이犯罪한고로 死亡이모든사람의게밋친것이다。모든사람이罪를犯한고로모든사람이死亡하게되었다。아담이모든사람의게罪를밋치게한고로 또한모든사람의게死亡을밋치게하였다。鮮譯에는 「이와갓치 死亡이모든사람의게이르릿습은」하였스나 이와「갓치」하면 이는罪와死亡을聯想케한것이니 바울은罪와死亡을聯想케한것이아니요 아담과그리스도를聯想케한것이다。卽아담이犯罪한고로 죽은것과갓치 모든사람이犯罪한고로 죽었다한말이아니오 오직아담의罪와 모든사람의死亡의聯絡을가라친것뿐이니 卽한사람으로말미암어 모든사람이罪人이 되어 그結果로모든사람이죽

하였다는 말이다。여기「罪」라 함은 무엇을意味한 것인가 (一)實罪即個人的不順從한行動 或은하나님의法律을뚫차行하지아니한行動 (二)犯罪性即人生的內在의心性(롬七8、9、17、23)。(三)以上兩意의合한 것「死亡의쓰는것은罪라」罪의子孫이라」는句節이即一例요。(四)犯罪「더희가그의罪를擔當하겠다」「아달이아비의죄를擔當치아니하겠다」그리스도께서말삼하신것과갓치 「우리罪를擔當하신다」「自己를贖罪罪物노상어 罪를엄시한다」이러한말을보면 本節에가라친「罪」는 다만罪의自體를가라치는것뿐이아니오 犯罪行動의始作을意味한것이니 그뜻가온대에는 墮落性、腐敗性이 人間社會에侵入하였다는意味인것갓다 이러케解釋하는註釋家가古수를勿論하고만라。갈린도그리케解釋하고 을샤우센、덜록씨원할것업시다 이와갓치解釋한다。그린즉 「罪가世上에들어왔다하는말은 七章八節에 보인것과갓치 物欲의侵入을因하여 人生的犯罪性이發作 巴울의本書一、二章에말한바人生的犯罪情形 또한己論한바犯罪構成以上三者의어느一個에限하지아니하고 이세가지意味가 다包含된것으로보는것이可하

니即罪가世上에들어왔다」함은 人生이罪인이되었다합니다 그뜻가온대에는 犯罪墮落 犯罪實行의세가지가다包含된것이다。아당의첫재犯罪即人生으로하여곰 犯罪케된情形과 人生的根本義가업는것과人性的惡한것과 또한일노뚫차發生하는 모든實際의犯罪가 다包含된것이다。

「死亡」은罪로말미암아왔나니「死亡이世上에들어오매 人生이죽게되었다。罪는死亡의根源이다。偶然的根源만도아니오 原質上根源만도아니오 即死亡의刑罰을받게되는原因이다。그린고로本節에가라친「死亡」이라한것은 犯罪의結果로받는刑罰이오 人生의體質上構造의結果가아니다。전고十五40—50에 바울이 이와反對되는敎理를가라친것갓치보이는것도있다。아당의몸은흙으로되었스니흙이다。그린고로씩을것이다。血肉은能히 하나님의나라를 遺業으로받을수업다。그린고로우리몸은반다시變化하여야할지니 이씩을몸이씩지아니할몸이된以後에야비로소永遠히사는몸이될것이라하였다。이말은不合한말은아니다。창二17、三19에보면 아당이犯罪하지아니하였으면 도모지죽지아니하였을것갓흔意味가

또한現在에 누릴 만흔喜樂도意味한것이다(11)。

12 | 21은 本章의重要部分이니 여기以信得義論을說明하였다。12, 19, 17에大意가나타난다。13 | 17

는 12을研釋한것이오 20, 21은 다만附論에不過한것이다。12에아담과그리스도의比較의一面만略論하고 18, 19에와서 此를完結하였다。

(十二節)「이런고로 罪는한사람으로말미암어世上에드리오고 死亡은罪로말미암어왔나니」이런고로「는」以上에己論한것을總括하여말한것이다。原文대로보면 「이런고로 罪는한사람으로말미암어 들어온것갓치」의「갓치」란말이있다。이「갓치」란말이 잇는것을본즉 이는分明히 두事件을比較하는말이다。即아담과그리스도를 比較하는말노볼수갓치업다。「한사람으로말미암어 罪가世上에들어왔다」하는말에對하여 解釋이區々하다。或者는 아담은前世上에 犯罪한靈魂들의首領으로 定罪함을받아人間에誕生되였다。그런고로아담은 開闢以前世界에犯罪者の首領인고로 이世上에誕生한以上 人間犯罪의根源이된다하며 又一說에는 아담은다름인人生의犯罪의偶然的原因이되어 第一次罪人이된것이오

他人은다그를본받아犯罪한것뿐이라하니 이는벨나

기오의學說이오 또이學說에依하여 아담은하나님의人生으로하여곰犯罪케하기爲하여 내신고로犯罪한

것이라하여 아담의罪와그後孫의罪사이에는 何等先天的或은法理上關係가업고 하나님외의첫재사람이

犯罪하였슨즉 그다음사람들은다犯罪하게作定하신것뿐이라하는者도잇스며 又一說에는 아담은그後

孫의犯罪性을遺傳시켜주었다하니 以上諸說은其中重要한것만擇한것뿐이오 또한그見解의可否를論할

必要가업스나 오직그要點은共通된다。即아담이모든사람의 犯罪의原因이되는것이다 偶然히되었든

지原質上으로되었든지 或은法理上으로되었다함에對하여는 오직聖經의前後聯絡에빛침여作定할것이

다 그러나한가지分明한事實은 아담이罪의原因이된것을가지고 그리스도가義의原因이된것을 討論한것에있다。「罪는世上에드리오고」여기「世上」이

本文라고譯한 「코스모스」(Kosmos)는 宇宙를가라

친것은아니다。아담이犯罪하기前에도 罪는임의成

立되어잇었다。그런즉이「코스모스」란字는 반드시一般人間社會를意味한것이니 即罪惡이人間에侵入

로마人書要節講解

南宮 焮

第五章十二節講解

解 譯

이름으로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드
러오고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왔나니 이와 같
치 사망이 모든 사람의 게이르렸습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이라

自 譯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드
러온 것과 같이 또한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왔나
니 그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의 게이르렸습은 모든 사
람이 죄를 범하였습이라

(롬五十二)

五十一까지지는 己論한以信得義의 恩惠로운敎
理로부터發生하는 若干慰安의 말을하고 12 | 21 까
지는 그主張하는바 定義의原理 卽아담一人으로
말미암아 萬民이다犯罪한事實노 그리스도에수一
人의義로 萬人이定義함을받는다는것을說明하였다
그리하여 以信得義의結果를말할새 一하나님으로
더부러 和平함을잇음(1) 二우리가現在에 하나
님의恩惠를받을뿐만 아니라 將來에받을榮光도確實
하다(2) 三우리의받는바苦難은 하나님의恩惠와
矛盾되는것(3) 도로척이것으로써우리의所望을
堅固케함이되며 聖神이우리가하나님의사랑하는者
가되는事實을證據한다(3 | 5) 四하나님이罪人을
向하사 그저감업시恩惠를베프신 것과 하나님의아
달을恩惠로주신 그큰사랑을가지고 모든信者의最
終救援의確實無疑함을말하였다(6 | 10) 救援은勿
論 將來에關한일이지만은 實狀은將來뿐만아니오

로마人書要節講解

야의 果實을 收하 나니라.

야고보의 글을 받은 여러 敎會들은 自稱 先生 耶 耶 들의 智識을 자랑하는 사람 또는 激烈히 辯論하는 사람과 眞理를 爲함보다도 私敵을 破하라고 熱中하는 사람들의 鬪爭하는 가온대 苦痛을 當한 敎會이 었다.

야고보는 舌을 不善하게 使用함을 責亡한 後에 不潔한 것은 惡한 망을 因한 것이오 耶 들의 자랑하는 智慧는 그 表現되는 것을 보아서 虛僞이며 眞正치 못한 것이라 말하였다. 야고보가 此點에 關하여 말한 그 사람들은 다만 先生들이나 第一世紀에 살든 모든 사람들의 界限해야 말한 것이 아니오 어느새 어느 사람이든지 다 배울만한 말씀이다.

(1) 智慧 있는 사람의 證據 三〇十五

야고보가 「너희 중에 누가 智慧聰明이 있는 자요」 한 말씀은 참그리한 사람이 업다 할 것이 아니오 智慧를 極度로 자랑하는 사람들 노하여금 智慧의 溫柔함으로 善行을 보이기 爲하여 말한 것이다. 밋음은 行爲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智慧는 行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合當한 일이다. 우리는 智

慧 있는 자와 갖치 言論만 하지 말고 오직 品行으로 우리 事業을 證明할 것이다.

오래 동안 敬虔한 生活과 奉仕의 生活을 繼續함은 傳道人的가 장큰 資本이다. 智慧 있는 사람은 말만 할 것이 아니오 行爲가 있어서야 할 것이며 그 智慧는 반드시 溫柔한 智慧라야 할 것이다. 溫柔는 弱한 것이 아니니 謙遜함과 靜隱한 精神을 말한 것이다. (詩二十六〇九) 에 수셔서도 溫柔하고 謙遜하셨고 (마태二十一) 溫柔한 자의 빛을 福도 말씀하셨다. (마태五) (〇五)

(2) 智慧의 辯駁 三〇十四

아모리 아는 것이 이만히 있고 오래 동안 先生으로 있는 사람이라도 本節에 말씀과 갖치 猜忌와 爭鬪함이 잇스면 그는 참 智慧가 업는 사람이니 이러한 사람이 참 智慧를 말한다면 이는 眞理를 對敵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잇는 것이다. (續)

하기 쉽고 信賴할 수 업는 것) 이오 殺하는 毒이 充滿한 것이다.

(7) 甘水와 醜水 三〇九—十一

이 句節은 舌의 하는 일의 不致되는 것을 말하여 준다. 야고보 一〇八節에 두가지 말을 품은 사람을 보았거니와 여기는 갓흔 舌로써 하나님을 讚頌하기 도하며 하나님을 自己形象대로 지으신 사람을 咀呪하는 두 舌를 가진 사람도 있다.

팔네스틴에 가면 甘泉도 볼 수 잇스며 醜泉도 볼 수 잇스나 한샘에서 두가지 물이 나오는 것은 볼 수 업다 맛치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것과 갓치 하나님의 恩惠로 말미암아 우리의 舌도 오죽 善한 말만 내게 할 수 잇는 것이다.

(8) 葡萄樹와 無花果樹 三〇十二

야고보는 三〇一節에 한 입으로 두가지 말을 하는 것이 올치 못한 것을 말하고 一步를 進하야 心理를 論하였다. 葡萄와 無花果는 팔네스틴에 흔한 實果이다. 누구 六〇四十三節에 보면 예수 말씀하시기를 惡果를 結

하는 善樹가 업고 善果를 結하는 惡樹가 업다. 하섯스니 우리의 입으로 브러 腐敗하고 不善한 말이 나오는 것은 곧 그 말이 나오는 그 맘이 腐敗하고 不善한 것을 表示하는 것이다.

엇던 사람은 이 句節을 보고 야고보가 舌의 罪惡에 對하야 針小棒大로 너 무誇張하야 말하였다 하나 生命을 참生命으로 아는 우리로서는 야고보의 말에 贊同아니 할 수 업다. 惡한 舌를 가진 사람은 세 사람을 惡害하는 것이니 첫째로 惡한 舌를 가진 自己身이오 둘째로 誹謗함을 받는 사람이오 셋째로는 誹謗함을 듣는 사람이오.

(9) 참으로 智慧잇는 사람 三〇十三—

十八

爾等中에 誰가 智慧와 聰明이 有한者도 其行하는 事가 善行으로 由하야 出한가 智慧의 溫柔함으로 示하라 爾等心中에 毒한 猜忌와 爭함이 有하면 誇치말고 또한 眞理를 敵하야 謊言하지 말나 如此한 智慧는 上으로 보러 出한 것이 아니오 오즉 世上의 情慾과 冤鬼의 害屬한 것이니 大槪猜忌와 爭함이 有한處에 擾亂함과 諸惡事가 有하나라 오직 上으로 보러 出한 智慧는 先潔하고 後에 和平하며 溫柔하며 良順하고 矜恤함과 善果가 滿하고 偏僻함과 詐僞가 無하나니 此和平하게 하는 者는 和平함을 種하

맛치 배가繫留場에서 물너 바다로얼어나간것갓
다」하였다.

(5) 火와薪 三〇五一六

舌의普通으로밋치는勢力은 馬勒과馬 또는蛇와船
의比喻로말하였스나 舌의 惡을行하는勢力은火의
比喻로말하였다. 큰森林도적은불노能히 다태울수
잇는것이다. 北米合衆國에서만 每年山火로因하여
損害보는것이數千萬圓인대 大概그불의原因으로말
하면疾走하는汽車의煙筒에서나오는煤煙이나 餘爐
이잇는성량간흔불노始作되는것이다. 六節에보면舌
은火라하였고 箴言十六〇二十七節에도「입술에猛
烈한불과간흔것이잇다」하였다. 또 舌은我等肢體中
에서 世界갓치惡한것이라하였다(三〇六) 誹謗하
며凌辱하는것과不敬하고僞證하며 毀謗하며過失을
길음으로생기는罪惡은 다헤아릴수없지만호니 이
는다舌로因하여나는것이다.
舌은疑心을나게하면 怨讎를맺게하고 爭鬪와 戰
爭의原因이되는것이다. 마태十五〇十二節에 예수
께서 말씀하신것과갓치 舌은온몸을 더럽히는것

이다. 그와갓치 마귀는舌을 불갓치라게한다. 舌
의祭壇에서熱한炭火를대임으로 모든허물을除하고
淨潔하여진말씀도記憶할이可하다. (이사야六
〇五一一七)

(6) 사나운증생을馴育하고制禦함 三

〇七一八

야고보의말한바 우리의舌은能히制禦할수업다한것
은 하나님神의神을 依支하지아니하고自己의 힘으로
는自己의舌을制禦할수업다한것이다.

그러나 하나님神의能力으로는우리의舌을能히制
禦할수잇는것이다. 우리의舌을主管하기爲하여는우
리의생각을主管하여야하고 우리의생각을 主管하
라면 우리의맘브리 다스리기始作할것이다. 大概
맘에서 여러가지惡한생각이나오는새닭이다. (마태
九) 聖神은 能히거죽과 不親切하고不潔한말을
하는사람의口를淨하게할수잇는것이다. 聖經에 우
리는맛당히우리의口를 主管할것이라하였다. (詩三
〇十三, 열사오四
〇二十九, 五〇西)

야고보가八節에말한것과갓치 聖神의支配아래 잇
지안은맘과생각을가진사람의口는 쉬지안는惡(變

야 곱보 人書講解 (五)

(2) 完全함에 對한 試鍊 三〇二

야 곱보가 본節에 우리들이 다 허물이 만라한 가운데 自己도 一人임을 말하였다. 特別히 先生들이 말에 허물이 있기 쉬운 것이나 우리들도 다 말로 犯過한 사람들이다. 書記官과 바리새敎人들도 예수씨서 하신 말씀을 責잡으라고 한 것이다. (누가十一〇五 十三一五十四) 여겨에 完全함이라는 말의 뜻은 性格과 理解의 成熟함을 잊어서 完全히 長成한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골로새一〇二 八、四十二、^보三〇五) 누구던지 舌을 能히 主管하고 制御하는 사람은 그리스도人의 人格과 正當한 行動에 成熟하여 完全히 長成한 사람이다. (히브리五〇十四) 그림으로 舌을 制御하는 것은 成熟함을 잊은 證據이다.

(3) 馬勒과 馬 三〇三

詩篇三十九〇一節에 보면 다윗이 「我が言하대 我的 行實을 慎하여 舌로 犯罪함을 免하고 惡人이 我前

라 부 열

에 在할 時에 我口에 錨을 먹이겠노라」하였다. 누구든지 自己의 舌을 適當하게 主管하고 制御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馬勒(굴네)을 잡고 말을 이리저리가게 하는 것같이 全身을 다 主管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으로 하여금 舌을 主管하도록 引導하여 주시는 智慧와 恩惠는 또한 그의 모든 行動을 主管하여 주실 것이다. 마치 사오나 온 말은 그 말한 사람을 그 대로 태우고 다라나거나 너머 트러서 傷하게 하는 것같이 舌을 制御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舌로 困하여 만 혼함을 받는 것이다.

(4) 舵와 船 三〇二

야 곱보는 蛇(키)의 比喻로 舌이 身體他部分에 對하여 얼마나 勢力이 있는 것을 말하였다.

이것도 馬勒과 馬의 比喻와 같치 직은 것이나 이것을 主管으로 能히 身體全部를 主管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歷史家를 누락은 「節制하지 못하고 하는 말은

보는해는 天體中에적은恒星中一이오 우리가居生하는地球는 行星中에큰것이아니다。天文學者의말을드르면 우리地球와가장갓가이 이웃한火星에도空氣와草木이잇다하니 우리와갓흔人生도能히 살수잇스며 또恒星中에우리太陽과갓흔것이 百萬個나된다하며 그恒星들에도 우리太陽係처럼 여러行星世界가 屬한줄노안다。主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아부지의집에 居할곳이만라」하섯스나 우리와갓흔物質體의 居生할만한世界도 無限하고우리靈魂이居住할만한 神靈한世界도 無窮할것이니 主의能力은 限量이업는것이다。엇지人生으로난 先知者들과比하겠는가。

(三)예수는榮光의光彩시오榮光の主시다。太陽이우리의居住하는 地球보다一百三十三萬倍나 되는큰天體를占領하였스나 其體에서發하는光彩가업스면엇지이世界를밝게하며 熱氣를보내여萬物을 蘇生케하리오 萬一光이업슬것이면 太陽의存在도이世上에서 發現되지못할것이다。이와갓치하나님의光彩는 예수시니萬一예수가업스시면 하나님은榮光과 至尊莫大하심과 그의存在까지人生에게 알재

할수업서슬것이다。金指環에박은金剛石은 金指環과그指環인사람까지 光彩를내여서榮光이되는것처럼 예수는하나님과 人生과天地의榮光의光彩시다 先知者가엇지 이리할것인가。

(四)예수는本體의形像이오有形의神이시다。사람이太陽을볼때 그빛볼수잇스나 그本體를볼수업는것처럼 모세는하나님을볼때 그榮光만보왔다。그런故로요한一〇八一에 요한이말하기를「本來하나님을본사람이업스나 예수는하나님꼴안에잇는 獨生子가낳하났다」하섯스며 빌립이예수씨뭇기를하

나님을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足하겠나이다」할때 예수께서 責答하여말상하시기를「나를본사람은아바지를보왔다」하섯고 바울이말하기를「더는곳볼수가업는하나님의形像이라」(골一〇十五―빌二〇五―) 사람이하나님을볼수업스나 예수는곳無形無像하신 하나님은우리의形體대로 有形有像하게 볼수있게나타나신하나님이시다。하나님이 사람을지을때「우리形像대로짓자」(창一〇二十六―)하심은 靈體와神聖만아니라 將次입으실예수의肉體의形像을가라침이다。(계속)

當時 유대에잇는 信者들이 예수를한聖人으로만알고 하나님의아달이시오 舊約聖經에모든先知者를이 預言한바오실참메시아로알지아니하였다。그러고 徒들의生覺에는 예수가先知者와갓흐며 天使와갓흐며 모세와갓흐며 祭司長과갓흔 한偉人이라는 觀念이잇슴으로 이글을써서 예수씨서는하나님의아달이오 萬物을創造하시고 天使보다높호시고 自己를犧牲하사 世上人을救贖하신이가되심으로 유대敎主들보다 높호심을辯證하고 뒤로即 유대敎보다 나은則다시유대敎로 돌너지말고完全한대나아가자 하고勸勉함이다。

一、先知者보다나음 一〇一—三一

넋성의 여러先知者들을 通하여 말삼하신 하나님씨서 乃終에그아달노 우리씨보내시와 말삼하시게하섯스니 比喻컨대 一國의皇太子되는이가그國內에巡行하러고 몬져傳令官을보내여 各地方人民에게 皇太子親히御巡하심을 傳達한後에 皇太子親히御臨하셔서 人民에게말삼하심과갓다。그렇다하면 누가높을것인가? 皇太子일가? 傳令官

히브리講解

일가? 예수는곳神의獨生聖子이시오 先知는곳그의부리는종들뿐이다。二一과三一에 예수가先知者보다 높흔것七條를記錄하였스니 유대人은先知者들을 잘아는故로 本書記者가 先知者들과 예수의品格을仔細이 比較하야유대人으로 예수가높흔것을알게한것이다。

一) 예수는萬有의後嗣요獨生聖子이다。一國의王히를繼承하는者는 國의王子이오 有功한臣下가아니며 一大家에遺産을相續하고 後嗣를잇는이는그 집에아달이오 忠僕이아닐것이다。天地萬物을만하主官하는하는 先知者들이아니오 곳하나님의獨生聖子예수이시다。

二) 예수는모든世上創造者이시며 造物主이시다。父親의遺業을 아모功効업시 그저맛는것보다。그 집에長子되는이가 그父親과갓치 그집과家屋을建設한이던 더욱이榮貴한것이되갓다。요한一〇一—三一에「太初에말삼이 하나님과갓치게시고 말삼으로萬物을지으섯다」하였고 創世記一〇二—에「하나님이가라사대」한것은 곳예수로萬物을 創造하섯다는뜻이며「모든世界를 지으섯다」함은 우리의

辯證論이다。그런故로 本書에 열쇠(鍵)되는文字는 「났다」하는 것이니 十二次記載되었다。

二患難中에 있는 信者를慰勞하기爲하여 서서스나 本書를記錄할 때는 예루살렘이滅亡할때가 갓가온時 期라 그런故로 유대信者들에게 非常한逼迫과苦難이 잇서스니 그들을慰勞하기爲하여 本書를著作하였다

七、內容分別

甲、上篇 道論 (예수敎가 유대敎보다 나은) 一〇一—一〇卅九

1、比較

(1) 예수가先知보다 나은(默示에對하여) 一〇一—一〇三

(2) 예수가天使보다 나은(地位에對하여) 一〇四—一〇六

二〇末

(一) 하나님아달便으로 나은 一〇四—一〇六

(二) 사람아달便으로 나은 二〇

(3) 예수가 모세보다 나은(忠義의對하여) 三〇

(4) 예수가 여호수와 보다 나은(安息에對하여) 四〇

一一—十三

2、勸諭

(5) 예수가 아론보다 나은(贖罪에對하여) 四〇—四一—四二

一〇—一〇末

(1) 큰救援을輕히 여기지 말나 二〇—二一—四一(天使와比較中)

使와比較中)

(2)頑悖하지 말나 三〇—三七—三九(모세와比較中)

(3)安息의 못드리갈가 四〇—一—十三(여호와와比較中)

(4) 처음을 써나 完全한대나 아가자 五〇—五十一—五十二(아론과比較中)

(5) 여러勸諭 十〇—十九—三十九(勸諭의結果)

乙、下篇 德論 (敎會의 三大要素)

1、信 十一〇 믿음의勝利

2、望 十二〇 所望의勸勉

3、受 十三〇 사랑의義務

甲、道論 예수敎가 유대敎보다 낫다。 一〇—一〇末

十〇

四、正經論

(一) 否認함

- 1、主后二世紀에 羅馬敎皇 파이어쓰(Pius I)一世가 本書를 正經外에 두었다。
- 2、主后三百八十二年에 예롬(Jerome)敎父가 또한 本書를 바울書信外에 두었다。

(二) 認定함

- 1、主后一百五十年頃에 아퀼산더클네멘트가 本書를 바울書信이라 하였다。
- 2、主后四百三十頃에 어그스틴(Augustine)敎父가 本書를 바울書信中에 두었다。
- 3、主后三百九十七年에 카리지(Carilage)總會에서 正經으로 認定하였다。

五、著作時

엇던 때에 著作하였다고 斷言키 難하나 本書內容을 보니 聖幕에서 奉祀하는 일을 主要이 記錄한 것을 보면 에루살렘亡하기 前 쓴 듯하다。그리하면 主后七十年前 인 듯하며 卅十三〇二三一에 되모디獄에서 노힐 때 라 하였스니 그가 出獄할 때는 六十七年冬이나 六十八年 春인 듯하다。그러면 本書는 六十二年으로 六十八年 間에 著作한 것으로 生覺한다。

六、쓴 目的

(一) 猶大敎로도 도라가는 者들을 爲하여 쓰스니 當時에 耶루살렘에 잇는 猶大人數萬名이 基督敎信者라 稱하나 모세의 律法을 重히 녀기며 예수를 하나님의 아달노 알지 안코 도로혀 舊約에 偉人들과 天使만 못하게 너기는 故로 이 글을 써는대 主要한 뜻은 예수는 하나님 의 아달이오 예수敎는 猶大敎보다 낫다는 一大

살냄이하나님의 소유됨을가라침이다。

三절「나와말하는던사」一〇九—十四에잇남
던사와메이던사가 누구인지미상하나현「다른던
사」사는하나님으 로컨세잇제말하신고로(二五)이후
여호와외런사인듯하다。

四절「소년」혹이말하기를 一절에잇남사람을가
라쳤다하나 성경중에던사난 년령이분간이업스니
소년이란말은 선지세기리아를가라침이다。「성곽이
업는촌」예루살넴이최후에 본귀디에서발전할지타
도 다시더큰성곽을싸치 못할뜻이다(정卅八, 11사四
十九, 19, 20)

五절「내가……불성곽」이는여호와써서 자귀
백성을친이 애고(愛顧)할거슬 가라침이다(六, 1)
「그가온대영광이되리라」영광의뜻은 이스
라엘사람을인도하는 불기동으로가라치며 하나님
이자기백성중에 계심을표시하는영광구름을가라침
이고 또 하나님을표시하는 그리스도를가라침이
라(사六十, 9, 四, 5, 卅一, 23)

六절노九절, 바벨논에남아있고 예루살넴에도라

가져아니하는 유대인을권편하는말이다。(사四十二
11, 五, 十, 6, 卅, 45)

七절「오호라」회브리말노오호라하니 사람을

부를써 쓰는말이다 「북방에서도망」바벨논은 예
루살넴동방에잇스나 바벨논에서오는 큰길은북편
에서 유대의드러오는고로 이리케말한것이다(14, 卅一
22, 卅二)「헛치기를……하였다」이스라엘백성이만

국에흐러져잇스나 바벨논에서 특별이나오라함은
바벨논은예루살넴을대일피를게하는연고다。(정卅三, 卅
七, 卅八, 卅九)

七절「바벨논녀자」시법(詩法)으로 성음을녀
자라고부르니 바벨논에서사는사람을 말함이다(十절
비교)바벨논에서 요란한일이잇기전에 나오라는것
이완전하다하는뜻시七절과九절에나라나있다。다리
오왕데오년에 삭인새이쓰른이라는유명한명문(銘
文)(은석비에)을본즉바벨논사람이 두번다리오왕을반
역함으로싸흥하는중에 만은사람이죽었다하였다。
그비문은세가리아가이것을말한지三년후에삭인것이
다。

十八절—二十절「사각과네직공」(四角과四職工) 훗허진이스라엠백성을위로하는 환상이다

十八절「네쌀」은권위가있고 교만함을표시하는것이나(단六, 13 시七十 五45 九十二, 10) 혹은세상을주관하는 권위있는

국가나 국왕을지시함이다。(단八, 3, 5, 8 九, 17, 3, 12) 본문에

네쌀을 해석하는여러방면이잇스니 (一)네쌀은이스라엘나라를표시하는나라들을 가라치는

것이니곳애굽, 아술, 바벨논, 메대, 파시라하며(二)혹은다니엘七〇에잇는 네증생의표시하는나라를가라친다고하니 곳바벨논 메대 파사 혈

나 로마라하며 (三)엇던나라를 가라치지안코 보통으로四방에잇는 원수의나라를가라친인듯한 것이다。

十九절「여호와」여호와와는 모든환상을주장하사 보이시는자시다。

二十절「공장네」工匠(四) (본문에는四직공)이네직공은 이우에네쌀을 해석하는자가 이스라엘

백성을호러지제하는 나라를의인왕들노 설명하며혹은네직공(四職工)은 하나님외네가지 형벌을가

라친다하니(四二一) 네직공은과연 하나님의병괴된초

자연한 능력을가라침인듯함이다。二十一절「렬국」(列國)모든이방을가라침이다。

네쌀과네직공을 엇더한뜻으로해석하던지본환상 전체는하나님을 대표하는자들이 이스라엘백성을해롭게하는나라를 망하게하기전에는 완성했다고말하지못할것이다。(하二)

二〇—一十三절「측량줄의환상」이는一〇—六절에포함된「예루살넬우에먹줄을치리라」하신

말삼을자세이가라치는말이니 예루살넬이왕성하며 장래에형용을말함이다 이환상도세가리야와와상관된다하나 주의재림후에야 완성될이다。

一절「한사람」환상중에나타나는이는 인형으로라나는런사니 곳여호와외의런사된 성자(聖子)다。

「측량줄」성전의측량하는뜻은 건축물을곳치지을경성을가라침이며(겔四十一 34) 또소유권과보호하는것을가라침이다。

二절「광...: : : 장이얼마나되는것」성읍이하

나님의정성대로변창하는가알아보기도하고 또예루

새는 김고푸르며 향취가 나고 뜻은 흰빛이며 열매는 김복은대 먹기도 한다 「사이에선자」 이는 말한 자들에게 도자 여호와와 군대 장관이 아닌가(144) 다섯 말한 자들이 보고하는 뜻으로 자기의 살핀 것을 말함이다(11) 「이씨에」 이 자는 새 버릴 것이다. 본문에는 없는 것이다.

十一절 「화석류……선여호와 의사자」 나무 사이에 섰다 함을 보니 八절에 잇는 사람을 가라침이다. 이는 구약에 여러 번 낫 하나는 여호와 의 현사나 여러 신화자의 해석을 의하면 한 생전에 계시든 그리스도라 한다. (창十八〇1, 2, 13, 17, 22, 11, 사사六, 11, 21, 45, 18, 六2) 「평안하

고 아모일도업나이다」 평안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고 생각지 않는 뜻이며 (사百三十三4, 레四十二11) 이씨 두달 전 학개가 여호와 씨서 그 나락을 건설하시려고 만국을 진동케 하시겠다고 예언하였으나 본환상에 낫하난 말한 자들이 진동하는 일이 아즉 업고 만국이 자괴일만 도라본다 함으로 여호와 의 현사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위하야 하나 님 압헤 기도함이다.

十二절 「일마동안공홀을베플지아니하시

러나아가」 예언한지七十년이다 지나갔스나 하나 님 씨서 잇지하야 이스라엘 백성의 만족한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는 가함이다. 국가적 포로(國家的捕擄)는 느브갓네살이 비로소 예루살렘에 간 때(六〇六년) 브르 고레쓰원년까지(五二六년)七十년이며 종교포로(宗教上捕擄)는 성전 불태움으로 브르(五八六년) 세성전 필역 때(五一六년)까지七十년이니 현사가 어느 귀한을 말하는지 알수 업스나 귀도의 뜻은 같흔 것이다.

十五절 「더희가……더함이라」 이방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극도로 학대하며 너무 해되게 한 것이 다 두구절에 세가지 분명한 예언이 포함되었스나 (一)나의 성전을 그가 온대 세우며 (二)예루살렘성 위에 먹줄침(이는 다시 건축키 위하야 측량하는 뜻) (三)성읍들은 다시 헹흥할 것 첫째 예언은 四년내로 응한 것이며 둘째 예언은 느헤미야시대에 응한 것이며 셋째 예언은 마가비오시대에 응한 것이다. 그 밖게 예언은 여호와 씨서 예루살렘성을 택하라 하였스나 아즉 완전이 응하지 못하였고 주재림할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사二, 1, 5 比較)

八、환상(幻像)이잇슴 一 7、六 15

(一) 홍마(紅馬)의 환상 一、7、17

본환상의 뜻은 하나 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것을 표시함이오 성년을 다 시완전이전축할것을 예언함이다。

七절에「스밧」 유대사람들이 생족속중에서 쓰는달일홍(月名)갓치써스니 「스밧」은양력二월경이며 「十二월二十四日」은 성년을 다 시전축하기를 시작한지 다섯달후이며 ^(학二〇) 학개 ^(十五) 학개가 마지막 예언함으로브러 두달후이다。 ^(학개二) ^(〇十一)

「여호와와 의 말삼」 환상이라도 여호와와 의 말삼이라 함은 환상으로인하여 여호와 의 뜻을 맛하낸언고이며 또 환상가온대라도 텨사들이 하나 님의 말삼을 전하는일이잇는고로 모든환상은 하나 님의

따부류, 씨, 어드만

말삼이라고 할만한것이다。

八절「사람이」이 사람은十절에 낫한사람과갓흔사람이며 十一절에낫한 여호와와사자와갓흔자이다。「홍마」채색말이 각々무슨뜻인지 해석할필요가업고 또각색을씩 묵시六〇四에잇는 각색말과갓다고 할필요도업다고생각한다。 모든란자들은 하나 님을대표하여 만국의형편을 살필사자들니 흑단니엘에잇는것과 갓치각국을대표하는 텨사가되며 홍마란자는 그들의대장이된것과갓다。

九절「나와말하는텨사」이것은 十一절에낫한 여호와와 사자가아니라 환상을해석한텨사니 다른환상에 자조낫한자이다。 ^(一、五、十、二、三、四) ^(一、五、十、二、三、四)

十절「화석류나무」(花石榴木)이것은 유대국에 보통흔나무니(二八、一五)야산과들에서는 장성치 못하나 긴혼산곡에서는 장성하고무성한나무니입

다 그러하나 너희를 조종하는 無數한 성은의
조용이 있다. 이것들은 적은 사기며 조용하고
모든을 다리의 것은 구의 조용함을 도킨고 또한 참
히지도 아니하되 그 조용케 하는 일은 저지 아니
하다.

(1) 「다크마리의 사기며 조용이 있다.

또 다른 性質이 주어 주는 것은 적지 아니하다

(2) 「不足한 行實——아 해를 은은히」 나쁜 하
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을 만히 한다. 하지 아
니 하겠다」 는 말은 은은히는 저를 果實의 만
치 아니한다. 果然 葡萄는 이 때 호로 말의 양의
相稱하는 것이 만다. (3) 「忍耐性의 법은 것

—위되는 性質과 무엇을 버려 버리는 性質
과 일정한 忍耐하는 것들은 이 忍耐性의 법은
대호가 하는 것이다. (4) 「느린 性質——이

亦是 무서운 대호이다. 이 대호는 아 해들의 時
間을 빼앗고 아 해를 노하며 몸도 成績을 얻
지 못하게 하며 모든 자리를 잃어버리게 한다.

(5) 「不精潔한 性質을 달았지 아니하고 齒牙
를 잘라 지 아니하는 아 해들은 그 마음도 깨끗지
아니 하는 것이다. (6) 「懶怠한 性質——이 때

는 호 아 참의는 말하기를 時間이 넉넉하다」 하
고 지덕의는 말하기를 「이제는 할 일이 없다」 하
고 말하며 이르러는 우리의 失敗한 것을 對하여

嘲笑한다. (7) 「不注意하는 性質——이 때 호
는 은은히」 일이다. 「關係 없다」 하는 말을 만히 한
다. 아 말을 하는 아 해들은 失敗하는 일이 만히

(8) 「離間시키는 性質——이 때 호는 은은히 親舊
를 잃어버리게 하며 아 해의 誑命을 犯하게 한다

것것호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은 비록 우리 소견에 어리석어 보

이는 못할 때라도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여 한다. (요 25)

(三) 복치고 나 말하여 쓰드는 소래가 여러고성을 할락시킨 것이 안이

다. 그일은 다 못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의 표적 뿐이다.

대히들이 색 밋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성을 할락 식히셨

다. (히 11-30)

(四) 라 합은 비록 죄가 잇스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능히

시행하실 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히 11-31)

우리의 믿음은 우리들의 원수 마귀를 패하게도 하며 우리를 죽음에

서 능히 구하기도 한다. (요일 5:41, 28-29)

믿음은 방책뿐이요 일우으게 하시어는 하나님이다.

(9) 「無禮한 行動——이 때 호는 만호 葡萄를 傷하는 것이다.

(10) 「이 때 호 사기들을 뜻차별 方針——(1) 마음올라 리를 단속 하야라 사람의 마음은 하나 님

의 법이 나 이 마음의 破傷되지 아니하면 적은 대 호 사기들이 能히 들어 오지 못한다. (2) 葡萄園主

人이 恒常하게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葡萄園主人이시니 만일이 主人이 葡萄園인 내 죄가

삼가 온대 계실 것호면 너희를 害하게 할 것은 무엇이든지 侵犯하지 못할 것이다

을내며 버린다. 우리가 만일 飮食과 糶料를 供給하며 주지만 하면 그 집에서는 材用되는 일을 다한다. 假令 너희는 傷타는 傷타는 손들을 끼치고 세 손들이 나오지 아니하는나 그 뿐이 아니라 이 집은 이상한 손(手)이 있어서 만드질도 하고 맛칠질도 하고 알을 삼수가 락 糶料하며 가지들 가지고 異常한 일을 하게 한다. 이 집은 이와 같이 異常하게도 設備가 되어 있다. 이것은 마치 이리케 되어 있는가 별 수 없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만리케 만드신 것이다. 너희가 무슨 巧怪하게 만드물 物件을 보고 그 만은 사람의 才操를 稱讚하지 아니하는나 그보다도 너희가 사는 이 異常한 音聲 研究하며 봄으로 이 장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智慧와 能力과 그 사랑하심이 엿더 한 것을 배울 수 있지 아니하는나 神聖에서 찾이 이리케 말하였다. 「내가 주의 謝禮함은 나를 초하고 異常하게 지으심이니 주의 서지으신 것이 異常한 것 용나의 마음이 眞實인 것은 바이로 소이다」(詩一三九14)。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적은 여호들

本文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를 잡을 지니 못 葡萄園을 지는 적은 여호라. 우리의 葡萄園이 必치 피로도다」(아가 216)

너희의 葡萄園은 이 葡萄와 같다. 그리하여도 온갖 必심이 저서 잡았구고 培養하여 자라게 될

데 四十四 공과 (十月二十八日)

문대 여리고의 함락

본문 여호수와 六〇二十一-二十二

(一) 五장十三절 노 六장五절 까지 읽어 보면 여리고를 함락시킨 계획은 여호와 의 현사가 여호수아의 계 가라치준 허락 이다. 여호와 수는 다 못되고 순종하였을 뿐이다. 이 계획은 어리석어 보이고 무용한 일 같치 보이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으로 맛츄내 성공하게 되었다.

우리들이 모든 죄악과 싸워 대적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器具)와 방법은 어리석어 보이고 쓸대없는 일 같치 보이거나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효력이 잇는 것이다. (고전 1-201) 교회가 새대로 실패하는 원인중의 하나는 다름이안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님의 순복음(純福音) 대신에 사회학이나 사회봉사(社會奉事)나 심리학이나 쓰는 모든 고등교육우해 교회의 기초를 두는 일이 잇는 까닭이다.

(二) 이 스타엘 백성은 옛새 동안은 하로에 한 번씩 조용히 여리고성의 주위를 돌어야 하며 데칠 일에는 일곱 번을 도라야 할 것이다. 일은 데히들의 믿음을 크게 시험할 이 된다. 우리들도 참으로 구주님을 믿을

의 생명이나 사망이나 모다 주님의 유장하는 안에 잇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만흔 위로를 받게 된다.

데四十三공과 (十月廿一日)

문대 이스라엘의 새인도자 여호수아

본문 여一장一—九민 二十七〇十八—二十

이공과에서 특별히 주의하여 공부할 것은

(一) 모서는 죽었스나 하나님께서는 살어게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업을 계속하심에 전파장흔 계획목적과 권능이 계시다。

(二) 모서가 죽었스니……그림으로 이르나「이와갓치 기록되었다。 크재실 망당할 때는 더욱 힘있게 주의일을 계속하여야 한다。(王上十九, 4, 15, 16)

(三) 하나님께서 여호수와와갓치 계시기를 허락하셨다 (5) 이 언약을 귀초로 하여 하나님께서「강하고 담대하라」고 세번이나 격려하셨다

(6, 7) 9) 우리들의 재도 이와갓흔 허락이 잇스니 우리는 그와갓흔 용기를 내지 못할가 (마二十八, 20, 롬八, 31, 고) (왕十六, 13, 열六, 10, 12)

(四) 여호수와가 성공한 비결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일이다。 (사八, 20, 명후三, 14, 17, 행二, 10, 15) (十一, 3, 百十九, 19) 이 일은 금일에 도역시 그리하다。(十五, 10)

몸을 먹었치고는 나오지 아니한다 우리가 그 몸을 먹어 먹는 그 몸은 참으로 특별한 음식이다. 제 짐을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고나한다. 지복과 자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삼도씩 그와갓 혼것을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집은 뼈와 근육과神經과皮膚로 되었다. 이 뼈들은 이 집의 마루 창에도 되고 혹은 들보도 되고 혹은 도리틀방도 된다. 근육은 큰 통바와 같이 되고 四方을 둘러싸고 우리가 다니는 뼈의 우리 뼈의 들어 잇는 짐을 옮겨 가지고 다니게도 하며 또한 일도 하고遊戲도 하게 한다. 근육은 各其電線으로써 通信을 받게 하나 하면 안 끼우면 일을 할 수가 되지 못한다. 이電線이란 것은 神經을 가라치겠 것이다. 이神經은 果然電氣와갓치 實히 通信을 한다. 너희가 만일 무슨 쓰거나 물건을 만질 것 같으면 너희 손가락에 잇는 神經들은 中央通信部即 腦에 電報를 보낸다. 그러하면 腦는 即時 너희 팔에 잇는 筋肉의 命을 살려 내 너희 손가락을 그 쓰거나 物件에서 옮겨 가게 한다. 진실로 이 집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異常하게 지어 주신 집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로하여 몸과 지고 다니게도 하고 밟도 하게 하신다. 너희 몸이 너희 살에 잇는 집인 것을 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 집에對하여는 이 약이 할 것이 아니라. 이 집에는 물을 빼는 화덕도 있고 飲食을 運搬하는 여러 運河도 있다. 이 집은 運河들은 적은 赤色布袋에 飲食을 싣고서는 各處에 散在한 主된 筋肉들의 命을 供給한다. 이 집에는 製糖工場도 있다. 그리하여 澱粉으로 砂糖을 製造한다. 이 집에는 또한 下水道도 잇서 모든 不潔한 物質

三、勉勵會에 價値

勉勵會는 少年이나 青年을 노 宗教上 完全한 修養을 주어서 그들 노 信仰上에 健全한 宗教人을 만들게 하는 것이니 實로 教會에 莫大한 機關으로 思한다 萬一 徒들 노 教會에 出席하야 默然 中에 禮拜만 하는 것 외에 그들에게 아도遜味를 주는 것이 없섯으면 活動時代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기 어려울 것이오 多數의 青年少年들소 맘을 부치지 못하야 노 좌보내게 될 것이 다 幸히 勉勵會가 있어서 青年時代에 그들의 맘을 붙잡게 되 것은 참으로 神妙하여 勉勵會를 許諾하며 주신 줄 안다 指導하는 任에 있는 이들은 아도遜을 그들을 잘 引導하야 勉勵會主 務를 脫離되지 안도록 심히 注意하여 더욱이 研究하여 더욱 奮發되게 하라 아도遜 完全한 信者가 되도록 힘쓰기를 바란다.

兒童說教

東 樵

너희사는 집이라

너희는 지복이나 혹은 그 四寸인 자를 들은 일이 있느냐 그들은 지복을 지복이라 하고 나다가 사함의 만일 인드려면 그 지복은 아도遜이라

지안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五) 그 때는 가나안에 거하는 족속을 두려워 하였스니 지금 우리의게 그것혼 무서운 원수가 잇는가 (롬 8:31)

데 四十二 公과 (十月十四日)

문데 모세가 별세할 때에 존귀함을 받음

본문 신 三十二 15-52, 三十四 5-8

(一) 모세의 유언을 기억하고 첫째는

「하나님의 돌방을 순종하는 것은 생명의 비결이 된다」 (三十二 26-46, 三十一 26-46, 三十二 28-47)

(二) 돌방은 「너희들은 너희 자손들의게 하나님의 돌방을 순종하는 것을 가라치라고 말하였다」 (三十二 46) 이 일을 계을니 할은 현대 모든 교회 가 약하여 지고 진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三) 모서는 자기 가 순종치 안은 까닭으로 그 때에 허락한 씨에 드리 갈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민 28:10, 12) 그러나 그 후에는 그곳에 드리자 (마 7:5) 우리들도 비록 최후에는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 하여도 우

리의 순종치 안은 죄로 인하여 세상의 복락을 일취비림하는 일이 업술가

(四) 「모세가 여호와와 말함대로 족으니」 이 말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的到達하는 것이며 引導者는 아모소로 各會員으로發言한期會를 주도록 努力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때 會員이多數가 될 때는 時間關係로 都底이 할수 없을 것이다. 故로 米國에서는 勉勵會一會에 會員五十人이 지나지 않도록 組織하는 것이다. 故로 米國으로 온 教會에서는 勉勵會가 二十個式되는 것이다.

五. 本會에는 少年會員을 工親臨을 圖하기爲 하여 社交的機關을 設치야 하나니 此는 一週日間에 커느 날이던지 모리며 할수 잇는데 그들의 趣味를 주기爲 하여 各種娛樂器具를 備置하여 그들노 하여금 外道로 나가 지안도록 할 것이며 할수 잇스면 幻燈이나 活動寫眞같은 것도 擇하여 時時로 參觀하도록 하여 各種運動器具를 設備하여 他方面에 나가 지안코 卽 教會內에서 各도 注意하여야 하며 圖書같은 것도 相當이 備置하여 그들노 讀書熱을 이르게 하도록 할 것이다. 歐米에서 少年이나 青年들노 하여금 自己家庭에서 자기고 時間外에는 學校에서 生活하고 그날은 時間이다 教會에서 運動하고 讀書하여 그들노 하여금 外來에 接觸할 時間이 別로 設치 된다 한다.

四十一講과 (十月七日)

문대 정담군의 보고

본문 민十三〇二十三—三十三 (十四장까지 읽으시오)

(一) 정담군을 보내는 계획은 근본 하나님께서 식히신 일은 안이나 (22)신(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밋지안코 하는 일의 결과가 엇더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여 두셨다. 撇남선지이게도 그와갓치 한일도 잇섯

다 (민二十)

(二) 하나님께서는 이원수를 능히 의일것을 허락하였스나 (24)신(三) (三)나

정담군중에 열명은 이 허락을 이저 버렸다.

우리는 과연 생활상 모든 탄판만 보고 잇는가

하나님의 허락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는가

(三) 갈넵과 여호수아는 역시 갓흔 탄판을 보았스되 多희들의 눈은

주님만 보고 잇섯다. (41)신(九)

(四) 밋음이 업는 사람은 항상 多희들압해 남하는 어려운 일을 부루

어(誇張)서 말하며 집을 내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된다.

(142)신(三) 실상 저희들은 임이 허락한쌍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과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심을 내어 버리고 마는 사람이 되었었다. 과연 밋

저마다二週日에一次式은 祈禱會를보와야 한다.

三、本會의目的을達키爲하야 約條書를製作 하엿스나 이것은가장重要한것이다 會員 이靈的生活을監督하지안오하는것보다 又 卽히作定하고行하면 더욱有益이多할것이다 故로一般會員은約條書를 謹히生覽하고作定할것이다.

四、祈禱會는本會의重要한儀式이니 引導者는慎重이할必要가잇다. 性質은 教會에서 行하는三日祈禱會와다르며 引導者는할수 잇는대로 五分以上의時間을虛費하지말고 各會員으로均一하게말할期會를주어서 每會에一語라도하도록하며 祈禱나聖經朗讀으로代하기도하고 또特別한讚頌으로代하여 順序를아름답게합이조흐며 每月初次主日祈禱會는獻心禮拜日로定하고 此日에는 查記가 各會員을呼名할때에會員은出席한 表을聖經要節朗讀으로하고 出席치못하는 會員은書面으로 查記에게보내던지 또는 代人으로던지 自己의要節을받다시會中에 朗讀케할것이며會員은반다시 每會集時마다發言朗讀會를잇도록하는것이 本會의本

六) 모서는 朝夕(朝夕)으로 기도하였다. (35-36) 사막과 갓혼 이 세상
을 려행하는 우리는 이와 갓혼을 판을 가져 보려 안하는가?

데 四十공과 (九月三十日)

문대 부습 (이스라엘의 인도자)

본문 시 七 七 11-20

아래 기록하는 각 데목은 지나간 각 공과의 중요점이 될 줄 안다

- (一) 모서가 출생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
- (二) 모서의 유년시기와 그의 교훈
- (三) 모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 (四) 하나님께서 모서를 통하여 명령하신 기록한 절기
- (五) 속량하여 내실 줄 알고 하나님을 믿음
- (六) 하늘에서 석을 내려 주시겠다고 허락하시고 그 허락대로 주심
- (七) 모서는 일을 남우만 하려고 함
- (八) 하나님의 대한 사람의 의무
- (九) 사람이 사람의 계 대한 의무
- (十) 모서의 기도한 처소
- (十一) 백성이 모서의 계 가져온 연보의 종류
- (十二) 필지 불변한 단니 열을 모범할 것

年會를組織하고 浸禮會青年聯合會를組織하였고 우리教會에서도 青年들이 우리教會青年會를 따로分立하여서로 組織하였스며 其他小數教派에서도 各自分立하였스나 長老敎에서는 그대로 勉勵會를維持하며 進行 중인데 잇던長老派牧師中에서도 脫退하여 웨스트민트長老會勉勵青年會를 組織하기를 主唱하는 자가 잇스나 從是採用치 아니하였다 美國은各教派에屬한青年은 다 勉勵會會員이며 監理敎에서도 勉勵會가 合同하였다

二、勉勵會一般原理

一、잇던敎派에 勉勵會던지 다 그敎派治理會 아래 잇스며 長老會勉勵會는 堂會와 老會 아래 잇스며 全國의 으로는 總會에 管理와 支配를 맡은 것이다.

二、元目的은 靈的이나 祈禱會가 그 生活中心이다 이會에 社交도 한目的이나 祈禱會가 第一重要한目的이며 萬一勉勵會로 祈禱會를 無圖한다면 此會의名稱을 冠함은 無理한 것이나 現下朝鮮에서 本勉勵會의名稱을 誤用하는 例가 잇스나 社交的이나 其他를 目的하고 靈的을 無視하는 會가 만은 그 것이 勉勵會라 하는 것은 不可한 일이다 故로

일을 보여 주시는 동시에 그 때에 구름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 주님을 좇아야 우리를 잇더케 인도하시는 것을 표상으로 보여 줍니다.

(一) 구름기둥의 운동은 곳 하나님의 의지를 지지함이요 또 모셔는 하나님의 의지를 더욱 자세히 모든 백성들 앞에 통변하였다. (11-13) 주님께서는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들의 인도자시며 또 성신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하여야 통역하여 주신다. (사 49:1-5, 행 16:6-7)

(二) 우리는 세상에 잇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자로서 모셔가 호박을 데리고 가고저 할 것치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맛당한 책임일 것이다. (29-32, 요 1:17)

(三) 모셔가 하나님의 허락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허락을 씌워 받고 다른 사람들의게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히 13:14)

(四) 호박이가 하나님의 허락을 믿고 모셔를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의 고함과 자기의 족속을 더 사랑할 것치 금일에도 이런 일노 구원함을 거절 하는 자가 만히 있다. (요 5:40, 마 23:37, 뎡후 4:10)

(五) 인약과 구름기둥은 항상 동행하였다. (33-34) 이 두가지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재신 것파 인도하시는 것을 표시 할 이 된다. 그와 같치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치 우리가 온대 계시기도 하시며 (마 11:2) 우리의 잇슬 곳을 예비하시려 몬져 가서 인도 하시기도 하신다. (요 14:2, 히 6:20)

신다. (요 14:2, 히 6:20)

음락博士는 이會를創設함세로부터 會長
 으로잇섯으며 現在는八十餘에老人으로 元
 老會長이되엇섯다 米國프스돈市에두엇는대
 世界大會本部는 書籍雜誌를發行하며 經費
 그會의維持費는 書籍雜誌를發行하며 經費
 를支當하였으며 現在에「勉勵世界」를發行하
 는대 特別의利益이多하다 近年에各教派에
 서 勉勵會를爲한 書籍을만이發行함으로 中
 央事務所에적지안은 打擊을受으로 經費의困
 難이잇서 不得已個人의寄附과一年一次式各
 勉勵會에서 自由으로드리는獻金으로維持하
 여나가며 任員은理事一百人이잇서 會務를
 處理하는中이다. 옛前에 프스돈市에宏壯
 한事務所를짓고 有給總務十餘人잇서 視務
 中이며 全米國을通하야 有給總務가五十餘
 人이나된다 또印度 中國其他各國에總務를
 派遣하였다 朝鮮은安大善氏가 總務로派遣
 을받았으며 年年이千餘圓의補助를받는다.
 朝鮮勉勵會에서는「眞生」이라雜誌를發行하
 는대朝鮮도勉勵會事業이 擴張하려면 各會
 員은義務를지고 「眞生」이라는 雜誌를사보
 와야하리라.

一八九二年監理會에서 이영青年會를設立
 한後로는 浸禮會에서도分立하야 浸禮會青

구원하실려입니다。」

(三) 시험 「네가만일 왕의주는 음식을거절하면 왕의 은총을 넘
 지못하게되리라」 단니열의대답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것이 사람의
 사랑을받는것보다 낫습니다。」

(四) 시험 「너는 하나님을 섬기든 곳에서떨니쳐나 잇스나 네가여
 기서 아모일을하던지 관계치안라」 단니열의대답 「하나님은무소부재
 하시다。」

(五) 시험 「엇지하여다른 사람들이 하는대로 하지안느냐 너는의심
 을 밋지말아 너희들이너를비평 한다。」 단니열의대답 「하나님께서
 나로서 진리를 증거하는자로 요구하시면 백성들이 엇더케 생각
 하든지 관계치안라。」

단니열은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그의요구한것보다 더엇게되엇다
 그는다못 육해상건강선안이라 만흔지력(知力)까지엇엇다. (三〇)
 적은일에충성한자는 큰일에도충성함이잇나니라. (三六)

데二十九공과 (九月二十三日)

문예 이스라엘백성이 가나안을향하여전진함

본문 민十〇十一-十三, 廿九-三十六.

이공과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백성을 광야에서엇더케 인도하시는

에서 분립하야 따로 이에 勸會를 設立하였는
故로 二萬一千八十會가 殘存하야 會員一百
三十七萬名이 되었고 現在全世界에 五百萬會
員이 各國에 散在하엿다 東洋은 日本이 百五十
會 中國이 一千二百五十餘會와 朝鮮이 三百
餘會가 有하다.

勸會는 各種이 有한데 西洋에는 監獄內과
軍艦內에 도 幼年과 青年과 中年들을 爲하야 勉
勵會를 設立하엿다 一九二二年에 世界大會
가 米國 뉴욕에 開會되었는데 總會員이 五萬名
以上이 各國으로 보러와서 悉席하야 前古에
보지 못한 大盛況을 이루었는데 各新聞紙는 世
界中에 第一 큰 會라고 評한 일도 잇다

十二歲以下 少年을 爲한會는 一八八三年
에 始作하엿고 十二歲로 十七歲까지를 爲한會
는 一八九一年에 始作하엿는데 現今 歐米各
國에서는 各長老會中에서 小中大의 三勉勵
會가 잇서서 教會마다 少年과 青年들을 指導하
여 敎養하는 바이다 勉勵會는 多數한 會員이 잇
서 큰 會가 되는 境隅에는 여러 會로 分離식하
나니 그것은 會員으로 均一한 修養받기에 困難
한 바이다 故로 米國 잇던 教會에서는 二十
個의 勉勵會를 가진 者도 잇스니 各會마다 五十
人에 超過하지 않게 하난 것이 다.

교회에게 가라침바와갓치 이렇케하는 것이 유님씨 데콜드리는 원리
원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드리는물전에 대소(大小)를 보시는 것이 안이요 그
드리는자의 진실한마음을 보신다 (고후8:12) (고후11:44)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사
람을 사랑하신다. (고후9:7) 연보는 유님씨 드리는 것이요 (二二二四:二
九) 사랑의제 드리는 것이 안이다. (고후11:12) (마6:2) 그런중연보하는대가
장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드리는 것이다.

데二十八공과 (九月十六日)

문대 단니열이 의를행함

본문 단一〇一一二十.

이공과중에 중요한것은 누구든지 일생동안에 하나님을 순종하
려는 목적을가지고 잇는사람은 모든 시험을 의일수 잇는 것이다
단니열이 었더케 시험을의이엇는지보려한다.

一, 시험 「식욕(食慾)은 몸을기르는 자연력작용 이되는것인대엇
지하야 이드리는 조흔음식을 먹지안는가」 단니열의대답 「위생법으
로말하여도 절제생활이 방종(放縱)생활보다 더낫습니다」

(二) 시험 「왕의음식을 거절하면 사형을받으리라」 단니열의대답 「생
사간(生死間)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組織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願하시나 事業行하
기를 힘써 작定케한 것이 이 勉勵會의 紀元이
다 이 勉勵會의 重要한 目的은 靈的으로 會員
自己個人의 對한 祈禱와 聖經을 研究하야 精
神을 修養하야 長誠祈禱와 十一條드리는 것과
會員間에 親睦을 圖하는 것이다 그 故로 勉
勵會는 다른 것보다도 靈的方面의 만한 힘을
쓰는 것은 그 本根精神을 立안한 것이 다

클락博士가 會를 創立한 때 全國의 同一한 目
的을 가진 小規模의 會가 多하였으나 그 中에
아클락博士의 創設한 會가 目的이 가장 善하
고 또 成績이 極히 良好함으로 그 聲名이 遠이
傳播되어 各處에 教會가 다 이와 같은 會를 設立
하게 되었으나 一年後에 二十數會가 設立하
였고 그 다음 해에는 五十六處로 增加하였고
一八八四年第三回大會時에 一五六會가 가 되
었고 會員數는 八九〇五人이 되었었다 이때
에 中國과 印度와 하와이에도 이 會를 設立하니
九個月後에 二五六會가 增加하야 會員一五〇
〇〇名을 가 지게 되었다 그 後一八八六年에
는 八五〇會에 會員三萬名이 八數派에 散在하
였으며 그 次年에는 四千會에 會員二十萬名
이 되었고 (一八九〇年)에는 會員六十六萬名이
加入되었으며 一八九二年에는 一般監理敎派

자기의 백성 곧 우리 신자와 갓치 계신 그 사실임이다。(뒤도 二4 卷 六 17 18)
四) 만일 그가 우리와 갓치 계시지 아니하시면 가 모리 전진하여 보아도
소용이 업을 것이다。(15, 요 15⁵)

데二十七공과 (九月九日)

문대 회막을 위하야 연보함

본문 출 三十五〇二十一—二十九、

반에서 교수하시기 전에 문져 출 三十五—三十六〇 7 절까지 읽으시오
五절 노九절 안에는 회막을 짓기 위하야는 엿더한 물품이 수용(需用)
되는 것을 모셔가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공과에는 백성들이 드리는
물품을 엿더한 모양으로 가져올 것을 말하였다. 너희들은 모다 자원하
는 마음으로 하였스니 이것이 곧 오늘날과를 통하여 힘있게 주당
(主張)하는 진리이다.

그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하고 용서하신 주님께 즐거움 마음으
로 너희의 태물을 드리었다. 하나님의 성언을 지을 때에 모든 신자는
각자 자기 목을 갖혀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엿더하는
태물을 드렸고 엿더하는 죄력을 드렸습니다。(25) 그중에 엿든 부자는
매우 귀한 물품을 드리었다。(27) 그러나 이 일은 모다 강제로 식힌 것이
안이요 너희들의 처지대로 자원하여 드린 것이다. 바울 선생이 고린도

基督靑勉年勵會

과 안 련

世界宗教教育中에 主日學校가 必要한 것은 前의 論述한 바에나 特別히 靑年男女로 信仰心을 鼓吹히려서 彼를 宗教心을 維持하게 하난 것은 別로 그를 노會集하게 하야 서로 意思를 疎通하고 彼此에 信未하난 宗教를 研究하야 不素에 疑惑한 바를 除去 眞理를 捕捉케 함이 必要하다고 思한다。 이 때 우리 教會內에서 靑年에게 宗教教育을 辦한 機關은 勉勵靑年會를 利用함이 가장 必要하게 思한다。 그러함으로 우리 朝鮮長老教總會에서 이 勉勵會를 承認하고 宗教教育部를 設置하야 靑年과 少年의 教養을 掌理하게 한 것이다。

一、勉勵靑年會의 歷史

基督靑年勉勵會는 一千八百八十一年에 美國東方에 인드르웨스트市에서 組合教會牧師 로 잇은 프린시프, 클락 博士가 自己教會에서 禮拜時에 靑年과 靑年들에게 趣味를 주기爲하야 創設한 것이다。 博士는 自己教會內에 靑年과 少年들이 教會에 出席은 하나 每會에 活氣가 없시다 못習價에 지나지 못하난 態度를 觀察한 博士는 靑年들을 自己家로 會集하게 한 후에 會를

萬國主日工課略解

이 도 만

제三十六공과 (九月二日)

문대 회막

본문 출삼十三〇七—十六、

이 공과에 말한 이 회막은 모세가 서레산에서 밧아 그 구조를 써라 지은 성막을 말함이 안이요 모세가 기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만든 장막 곳 회막이다。

우리들이 특별히 이 공과에서 배울 것은

一) 모세가 하나님과 서로 면대하여 맞나는 처소가 있셨다。 그와 갓치 우리 신자들도 그 갓흔 특권을 가지고 있다。(마 6)

二) 하나님께서는 모서의게 두가지 허락을 하셨스니 「내가 친히 너와 갓치 갈려이요」 14 「네게 면히 성을 주리라」 14 이것이 다。 주님께서도 자기의 종된 우리들의게 그와 갓흔 두 허락을 주셨다。(마 11-28 二十八 20)

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것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증거가 된다고 모서는 하였다。 19 금일에도 우리의 특고인이 세상은 사람들과 서로 분간이 되는 것은 유예수 그리스도께서

가 購買豫約을 公布한 그 當日도 全部 팔너 完
다 事實이다.
이와 같이 엇더한 事實을 勿論하고 모든 預
言이 應하는 것을 詳보하여 猶太民族의 將來
事가 明瞭히 神聖한 聖經中에 豫言이 되어 잇스
니 現今 우리들이 聖經은 查되고 確實한 事實
을 證據하는 데에 勿 必要한 것이 된다(笑)

그리스도의 再臨

金 聖 培

風波 斗 困難이 現代와 맞치만은 世代는 업섯
다. 不幸의 災亂의 消息도 各處로 傳히 踏至하
고 窮困의 狀態는 어디서든 可見수가 있다. 萬
般 混亂은 經世家의 腦膜을 煩悶케 하고 各樣의
不安定은 그들 前程을 가리운다. 不景氣에
包圍된 富豪의 心情과 激怒로 부닥기며 時달나
는 貧民의 情況! 그들의 慾求는 날도 遷延하며
질색이다. 各地의 饑饉은 非常한 困境을 演出
하고 不時의 瘟疫等도 毛病麻는 全世界 嚴擊하
며 洶湧한 海濤는 大陸을 威脅하야 莫大한 荒廢
를 이룬다.

이러한 不詳스러운 現代의 災亂과 事變을
예 示키나 落膽치안으리 가 勿論이다. 만은
吾人은 於此中에서 勿 無上한 希望의 曙光을
發見할 수가 있다. 罪惡의 阻礙이 苦痛하는 이
世上을 救治할 唯一의 方法은 그리스도의 再
臨! 그리스도의 再臨! 그것이 잇을 時이다.
이 七바울先生의 말은 바「바라는 福」의 二(13)

六 號 欄

이 니 勿 그것의 險暗한 世界의 前途를 光明케 할
것이다. 各時代 各基督敎人의 希望과 慰安의
中心은 勿 그리스도의 再臨이다. 이것이 基督
敎人의 信仰의 土臺가 되야 古今의 聖徒가 모다
이 中에서 聖潔한 生涯를 지어 온 것이다. 이것
은 敎理가 아니다. 人祖의 始祖 아담의 七世
孫 에녹은 그리스도의 再臨에 對하야 이 杖치 預
言하였다. 「용지이다 主의 聖人 여러 萬
名과 함께 臨하야 勿 사담을 審判하야 그 敎度
만은 바울로 行한 모든 敎度치안은 勿 勿 勿 勿
치안은 罪人의 強復한 말도 主를 誹謗할 勿 勿
야 모든 敎度치안은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에 對하야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가 삼아 계시니 後日에 서우에서 시리다」(창
十九 25-27) 하였고 先知者 이사야는 默示中
에 그 再臨의 光景을 보고 이 杖치 記述하였다.

「용지이다 主와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權能으로 다 사리시니 그 賞給이 합하시니 모다 그
報應이 그 賞給이 나니라」(사 四十 10) 하였스
며 青年先知 다니엘은 말하기를 「그 때에 勿 勿
姓이 반다 시 敎授을 잊으리니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들이 라사 에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或은 永生을 잊고 或은 羞耻와 永遠한 辱을 잊을
것이라」(단 十二 2) 하였다.

이것은 모다 舊約時代의 聖徒 聖徒들의 預言
이다. 新約中에도 그 再臨에 對한 預言의 數가
三百이 나 記事가 되었다. 그 中에도 그리스도
께서 昇天하시기 前에 그의 弟子들의게 將次 再

臨하야 그들과 함께 하날에 오를 許諾케 勿 勿
되「너희는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너도나를 잊으라 배아라 지성에 잊을 勿 勿 勿 勿
너그리치만 으면 너희에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너희를 勿 勿 하야 잊을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잇을 勿 勿 勿 勿 하야 배가 다 시와서 너희를 배
로 迎接하야 나잇는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요 十四 1-3) 하였다. 바울先生도 再臨에
對하야 預言하기를 「主의 將次 號令과 天使
長의 소대와 하 나님의 喇叭로 親히 하날로 勿 勿
降臨하시리니.....」(삼 권 四 16) 이 際後로
는 나를 勿 勿 하야 義의 冕冠을 預備하야 두섯스
니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게 주시고 배게 만 주 성신이나라 主의 나라 나심
을 思慕하는 모든 者의 게 도 주시리라」(딤후
四 8)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橄欖山에서 昇天하시며 勿 勿
子 및 사담은 가의 絶望中에 드리다 하날 警衛
隊中 두사 함은 뒤 에 처져 잇서 壽命의 勿 勿 勿 勿
니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勿
하시는 敎主를 바라보는 弟子들을 이 杖치 慰勞
하였다. 「갈릴니사 사람들아 잊지 마시라 하
날을 쳐다 보나나냐? 아 예 수를 너희가 온대서 하
날도 올너라 신을 온대 오시리라」(행 1-7) 主
를 잊고 바라보는 者는 永遠한 福樂을 누릴 勿 勿
그 때에 는 모든 不義, 惡毒, 罪惡, 死亡, 그
모든 원수가 어대 잊겠는가! 모든 信實한 者를
은 各邦國과 族屬에서 나그 榮光스런 나라
無量한 福樂을 누릴 聖民이 되리다」(갈 1-3) 할 勿 勿
야 할 勿 勿 하야 아멘에 수 그리스도 시며 오시옵소
서. (笑)



讀者여러분을 위하여 이欄을開放합니다. 그러나 經驗談 感想談詩歌等은 必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猶太民族史上의

一重要記錄

김 전

世界各國에散在한 시온會에關한 오은猶太人들은自己民族史上에 한新紀元을짓는듯이生覺하는이事件에對하여 만은興味와喜悅를갖고있다. 또主後一千八百년에 팔레스틴境內에서 通用하기爲하여 希伯來文字를記入한貨幣를 처음으로發行하게된일이다. 이新貨幣는 팔레스틴과 루벤스또단을관할하는英國政府에 所屬한 팔레스틴 造幣局에서發行한것인데 紙貨와 金貨兩種이있으며 그우에는希伯來文字만 써워있을뿐만아니라. 現今팔레스틴에서使用하는 다른方言則이랍語와 英語까지記入되어있다. 이貨幣의價値로말하면 日貨凡圓七十六錢에相當하는英國「파운드」를標準한것인데 이「파운드」는「一千」이된다고한다. 그럼으로써「一」은「千」日貨一錢에相當한價値가있을것이다. 그중의種類는「一百」짜리 「五十」짜리의

銀貨와 中央에 구멍이 달린 二十圓짜리 十圓짜리, 五圓짜리의 白銀貨가 있고, 二圓짜리 一圓짜리 青銅貨들이 있다. 紙貨로 말하면 日貨로써 五圓에相當하는 五百圓짜리와 其外一圓은드, 五圓은드, 十圓은드, 五十圓은드짜리를發行하였다.

그런데 팔레스틴에서 第一 마즈다르 使用한 希伯來文字를記入한貨幣로 말하면 羅馬帝國을叛逆하고獨立을樹立코자하는 拔, 國가가 主後一三二二年과 一三三年에發行한貨幣이다. 그는「한벌이 將次야름의게서남아며」(民二十四〇十七)한 拔남의 豫言을맞추워自己가메시아됨을主張하여 星의子라는意味로自己일흔을 拔, 國합이라고 自稱하였다. 이事件은 에루살림이 羅馬大將의도에게 滅亡한지 五十年後의일이었으나猶太人들은 오히려多數한우리가 拔, 國합과 團合하여가지고 獨立을希望하고있었다. 그들은一三二二년에 羅馬와戰爭하여 一時勝利를得하였으나 最後에는 유리아스, 세벨라스의 敗亡하였으며 그從徒들도 모다殺戮을 당하고말았다. 그들의 聖基이든 베델城內에서 十萬의猶太人이 모다慘殺을當하였다는것이 遺傳한다. 그가죽은後에 에루살림은 滅亡한고 말았으며 그聖殿基地는 先知者미가(三〇十二)의 預言과같이 耕作地가되고말았었다 그러나其後 하드리안王時에 에루살림을再

建하였으나 빌야, 카비를너라라고改名을 하였고 그時로브러 二百年間은嚴禁하여猶太人은도모지 에루살림城에드러갈을許諾치 않게되었다. 그런데그 拔, 國합時의 金貨는 一面에聖殿美門의模型이있고 또 시온이라 는文字를써스나 시온은 拔, 國합의本名이라고한다. 그리고其美門우에는 拔한게를생어었스나 이는自己가메시아라고主唱하는것을 表明하기爲한것이라한다. 그리고 또「시온의自由」혹은「이스라엘의自由」라는 文句도 그우에써여있었다고한다. 그러나 그의 反亂의 鎮壓後로브러 팔레스틴境內의서는 金貨를鑄造한일이다시업었다. 모함메드敎徒가浸入하여六百八十年에 에루살림을 占領한때까지 羅馬의貨幣가通用되어있고 其後브러는 여러가지外國貨幣가通用되어왔스나 最近에는埃及貨幣가 가장만히쓰이고있다. 通貨는 商業에生命이되고 血液이된다는 말과같이貨幣(一八〇〇년에發行)로因하여 팔레스틴을再建함은 長足の進歩가되게 하였으며 商業上經濟活動에도鞏固한基礎가 되었다. 그런데現在에發行하는貨幣는모다英國政府에基本金을積立시키고 그保險下에서發行한다고한다. 卽將來에 팔레스틴나라이 隆盛하겠다고 一般에信望하고있는 徵候는이러한일도도며 尙히몇몇수가있다. 卽팔레스틴政府의費用을爲하여負擔시킨 英國政府에서發行한公債

은熱烈한信仰으로 五旬節의一點의火燄이 原野를燒하는觀으로 各國方言을말하여 各邦으로브러온人士의게 傳道하였으니 참으로聖靈의充滿함을因하여墮落되었던 메드로간혼이도新感力の衝動을받아 當日에信者三千人이 잇게되었으니 이런現像은未來教會의 大發展될것을 表象함이며 將來의天國을 具體化할左證이됨이라 잇대브러新生命力을 얻은教會는基督을首로하고 信徒들은肢體가됨으로 相連相續되고 同體的活動을開始함으로 教會는漸次로新氣運을가져 長養케되니 基督을首로比喻함은 勿論教會全體를支配하는全權을가졌다함이라 그는人類의先驅로서 死亡을制勝하고 復活의初熟한果實이되며 昇天의門을初開하였나니 萬物의造物主로서 信徒의贖罪主가 되시며 救主이시며 先驅者이시며 引導者이신 基督은참으로超越하심이極하도록다。

總言하면基督의超越함에對하여는 本書뿐아니라他篇에도詳論함이多々하거니와 그가萬物의創造者이며 萬有의保存者이며 教會의首로서 救贖主이시며 萬物을뜻드신者이며 萬象이其内に共立하는者

이며 物質界을超越하여 靈界까지攝理하는 全能者임으로 吾人の有限한理性으로는 그의長濶高深함을可히測量할수없도다 基督의超越이여時間과空間으로 다그려하도다。(뜻)

神愛의容積

廣 (누구던지다) 요한三〇十六

長 (뜻이없다) 예레미三十一〇三一

深 (나존내게도) 갈나디아二〇二十一

高 (하날까지) 예베소二〇六一

畫하시고 神人兩方の情形을 熟達함으로 神의 經營하신事業을 遺憾없이 成功함이니 神의 聖德이 基督內에서 만 流露暢達됨이라 「神을 본 사람이 업스되 오직 神의 품에 잇는 獨生子가 나라 나셨다」 하였으니 참으로 神性의 聖德은 基督內에 잇서 活泉처럼 湧々하야 四海萬邦과 萬代各族의 共 永遠한 生命의 나라로 流入하나니 참으로 吾人 思想에 超越함을 深感케 됨이라 그러나 吾人의 肉眼에 映하는 現實世界 以外에 다시 信仰으로 因하야 멀리 眺望하는 靈世界까지 그의 聖德이 充溢되나니 實로 基督內에 深藏한 奧妙는 참靈感되여야 可히 了解할 것이라 함으로 吾人이 이러한 奧妙를 深知한 後에야 비로소 永生、永福、恩寵、眞理을 말 할 것이며 딸아서 似是而非한 理學에 拘束되거나 또한 거짓謙遜으로 天使를 崇拜하는 등 그 不徹底한 思想을 破除하고 더욱 靈感으로 由하야 信仰하는 基督은 三位一體나 聖子의 심을 알아 天國將來는 바로 因하야 嗣續되고 天使는 그의 命令만是從케 되며 우리 人生의 有益만爲하야 도와주는 者됨에 不過함을 深覺할지니라 이로 보와 基督은 奧妙함

이 無窮하야 恩惠와 眞理가 充滿하였으니 實로 吾人 想像上에 더할 수 업는 超越임을 確知할 이 로다.

四、基督은 教會의 首로 보와 超越함

우리 主님이 卽세 마네에서 祈禱하신 後에 유대의 國粹黨이라 稱하는 파리새人、長老、書記官들의 개가 존 困辱을 當하시다가 또한 빌나도압해서도 審問을 當하고 十字架上에서 磔刑을 當하시니 그 때에 弟子는 四散되고 天地는 暗黒하도다 그 殖民地에서 所用하는 刑具인 十字架는 참으로 極惡窮兇한 表像이었나니 말만 들어도 毛骨이 竦然하도다 그러나 神은 이런 凶惡이 莫測한 十字架를 利用하야 神人間에 相通하는 天梯를 作하며 더욱 人々間에 相合할 線路를 作하야 世界四方이 歸一케 하는 平和의 表像을 現出케 하니 그것은 참으로 義와 愛를 兼行한 神의 活動이며 神人相和함에 完全한 犧牲이 됨이라 이 十字架上에 流하신 寶血은 仇敵을 制勝하고 神人이 復和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로 브러 新生命이 始作되었으니 天下萬邦에 가서 洗禮를 주워 弟子를 多得하라는 付托을 받은 門徒들

하며 善한事를行할때 도와주나니 참으로靈體
 天使를藉用하여 神의預旨를成就케하는 基督
 이시라 언지그뿐이리오 惡靈界까지攝理하나니
 聖經에現한바 惡靈王사단은 黑暗世界の君이라
 또한萬能이잇서 神의일을抗拒하는者라하나 亦
 是神의創造와宰治에屬하였으니 基督이사단을命
 하여 病든女人에게서나가라하니 나아가고 도
 야지때의게 드러가라하면드러갔으니 曠野에서
 試驗하던 魔鬼는그만次々로 基督의命에順應되
 여 乃終에는基督의審判을맞고 永罰까지服從하
 이필이라 이로보면 참으로至惡한사한이라도結
 局如此하게 服從함을보면 그는善靈世界만아니
 라 惡靈世界도主宰하고 더욱人間世界까지勿
 論主宰하시나니 이兩界를通하여管理하시는 創
 造主의신基督을생각할때 언지超越性을更感치안
 으리오 그럼으로在天在地인萬像이 其內에儼
 然히 存在하사 三位一體가 相親相交하시면서
 온갖것을包括하고 生々한萬理를支配하는바니야
 一基督의超越이여。

골로새書에現한基督에超越觀

三、神의 온갖聖德이 我안에充滿함으로超越함

吾人是神을볼수업나니 우리의肉眼은 物質로되
 었음이오 神은靈인것이니 靈과物質은一이되지
 못함으로 可見할수업도다 物質은物質을볼수잇
 으나 靈을볼수업나니 故로靈을볼方法은아마心
 眼으로可能할지라 그러나볼수업는神의말삼이人
 身을成하야 降世하셨으니 그는即物質眼을具한
 人이 그를能히보왔으며 그가救贖事業을完成하
 러고 갈보리山上에서와 橄欖山上에서와 至今
 天上에서 死亡復活、昇天의階段을지나서 神右
 에서우리를爲하야 代祈하시며 聖靈을遣하야그
 의하시든일을繼續으로 活動하시도다 우리가如
 此한基督을생각할때 勿論三位一體神의聖德은基
 督身上에充滿하야 다시人間萬代에 滾々不盡하
 게 流下함이라 우리가알거니와 聖父의하실일
 을하시러고 基督이世에誕降하셨고 基督이升天
 하신後에 그의하든事業을 完成하실여고 聖神
 을보내셨으니 우리人間을向하여서는 基督의誕
 降으로써 救贖事業을成就할수잇도다 그는神人
 二性을가지시고 神의慈愛와함께人의苦痛을 嘗

대로 하옵소서」 한 말을發하셨고 十字架上에서 못
 박아 죽이 자고 아우성치는惡輩를向하여도 「더들
 은더의 일을아지 못하오니 이죄를더의게 돌니지 마
 음소서」 하였도다 그뿐 아니라基督의復讐도 보던
 지 昇天함으로 보면 참으로 우리思想에超越한 것
 이며 달아서宇宙의 定例에超越함을不感키不能
 할이라 이것이참으로神이 卽이宇宙間에서 先
 定하신바 萬有定例에拘束되지안음을 알수잇는
 것이니 우리는이에對하여 基督의先在하심을보와
 그가宇宙萬物의主宰이며 保全함으로 三位의
 同一한活動임을알게되도다 吾人이적은管見으로
 이런至大한道理를 論할대 엇지基督의超越感에
 서喫驚치안으리오 참으로그러한聖子가 罪人の
 中間에降下하여 人間을救濟할 必要한生門을洞
 開하시고 人世에서 그말할수업는苦痛을盡嘗하
 야至於人間의死亡에對한其苦味를 모다除去하시
 고 그恐懼不堪하던 歷代的威權으로餘地업시蹂
 躪無比하던 死亡의權을制勝하셨으니 그얼마나
 한超越이리오。

吾人이聖書を詳考할때마다 人間世界以外에도
 한別다른 靈世界가잇음을 聯想하나니 卽本書
 에現한바 하늘에잇는것이냐 따에잇는것이 모
 다主를由하여 創造되였다함이야 우리가이思想
 을보와도 基督의超越함을 切感치안을수업나니
 그는卽人間世界를創造함과 합디靈世界까지創造
 하시고靈界萬有까지宰治하며 攝理한다함이라天
 空의星雲을보와도 地上의萬物을보와도 未嘗不
 一定한統治者의 理想內에共立되어서 互相間에
 不悖되고덕을잘配合되며 잘佈置되어잇나니 그
 얼마나周到한妙案을作成하여가지고 計劃을成案
 하였음이라 그뿐 아니라 靈界萬象으로 말하면
 우리의想像이맞지못함으로 因하여推論할餘地도
 업도다 그러나그大要는 可히想像할수잇나니靈
 界에도善한靈界와惡한靈界가잇서서 善靈界에는
 天使와天軍이잇서 어대까지善한活動으로 神의
 命한바에서만 奉行하나니 卽神의創造한바로서
 神의計劃이צל成就될을깃비하며 恒常榮光과尊貴
 로 造物主卽三位一體神을 讚頌하는同時에 特
 히基督의使命을 잘奉行하여信者의動靜을 干涉

二、萬物이彼內에서共立함을보와超越함

에對하여 天來의 靈感으로 化身된바를 先生은 一賦에
 異端을 박차 벌이고 同時에 基督의 超越觀을 가져
 卷로 世敎會의 覺醒을 催促하였으니 참으로 萬世의 師
 表的으로 基督의 超越하심을 詳論하였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히브리書에 顯한 超越觀도 그 反覆丁寧한
 論調가 完備하다 하려니와 其보다도 三位一體의 活動
 으로 보와 本書가 열마절 더 高尚하게 詳明히 說破하
 였나니 이제 本書를 根據하여서 基督의 超越하심性
 格을 略擧하여 보려 하노라

一、基督은 萬物보다 先在함으로 超越함 吾人이 基督
 에 關한 數多한 解說을 詳察하여 보면 참으로 그의 先
 在함을 因하여 우리 思想에 甚大한 超越感이 起함
 을 發見할지니 그것은 卽基督의 誕降에 關한 道理
 가 너무나 神秘하고 奧妙하여 참으로 無始함이 되
 고 떨어져 無終하게 될 것이니 卽人生々活의 生理
 的 定例를 超越한 所以라 그럼으로 그의 誕降함을 基
 督의 始라고 말할 수 없나니 오한 福音第一節에 「太
 初에 眞상이 잇섯는데 그 眞상이 肉身이 되어 우리間
 에 可居하니 卽 빛치며 愛이며 生命인 예수 基督이
 시라」 이것이 本書에 顯한 것뿐 아니라 他書에도 詳

卷로 世書에 現한 基督에 超越觀

言함이 多々함을 보면 너무나 吾人 理想에 超越됨을
 可히 窺知할지라 基督은 三位一體間 一位이시며 別
 아서 獨生 聖子라고 記하였으니 神子라 함은 卽 聖父
 로부터 生한 바 聖子라 함은 아닌 것이니 吾人의 理性
 으로 可히 理解할 人間의 生理上 또 倫理上 父子와는
 判異함이라 基督은 當初부터 三位가 共在하셨나니
 卽 無始이며 無終이시고 太初에 잇서 三位가 高等한
 交際와 協力으로써 이 宇宙의 萬有를 創造하실 때에
 一心一意로 進行하셨으며 現수이나 未來도 그러하
 도다 「聖父」라 「聖子」라 함과 예수께서 神을 向하
 야 「父」라는 稱號를 用함은 참으로 基督이 人世에 降
 한 根本的 約束이어서 이에 對하여 다 시 무슨 名稱을
 가저 使用할 수 없습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基督
 은 元來로 被造된 者가 아니라 참으로 創造者間 一位
 로서 萬物이 由하여 創造되었고 天使는 由
 來로 하여 被造되었음이라 우리가 聖書를 讀할 때
 基督이 이런 神格과 人格이 具하였음으로 그가 公
 生活에 現한 바 事實을 보면 그의 一動一靜이 모다
 神을 父로 하여 萬事에 切々 順服하였나니 至於 人
 情으로 不堪할 困難과 死에 當하기까지 「父의 뜻

골로새書에現한基督의超越觀

鄭 在 冕

吾人は 흔히 天地間大事를 말하면 무엇이든 切要한 二種의 問題가 있으니 一은 神子基督이 었더케 降世하여 救贖主됨이요 一은 내 자신이 었더케基督을 믿음으로 救援에 참여케 됨이라 이 兩大問題는 참으로 天地間大事인 동시에 또한 深奧한 關係가 潛在이 되었음으로 筆舌으로써 表示키 難하다 그리나 이를 가라치 神의 預定的 創造活動으로서 다시 宰治하며 保存하고 保養하는 活動까지 沉默中에 進行됨이라 그런데 世人의 理知的 眼光으로써 神의 活動即 創造及 宰治의 活動을 생각하여 보면 참으로 神妙莫測함과 秩序가 整然함이 일하나 周到되며 더욱 全人類에 對하여 救贖의 活動으로 보와도 總히 有限한 人生의 思想上에는 超越性을 不感키 不能함이라

그런데 神의 原有하신 設計으로써 人類의 對해야 할 妙妙하여 吾人 理想에 不及하는바 神子基督의 降世하심에 對하여는 世人의 普通常情으로나 信者의

切實한 經驗으로 보와 참 超越性을 가짐으로써 吾人は 超越視아니 할 수 없다 우리가 알거니와 基督을 向하여 超越로 認하게 되는 動機는 二方面이 있으니 一은 神性으로 論及하여가지고 詳考하면 그가 貧寒한 家庭에서 工人生活을 繼續하다가 當突하게 士子와 學者의 反抗을 일으키며 떨어져서 其 複雜한 思潮를 折衝하면서 勇氣가 充溢하게 天國의 活動을 開始함이라 그것이 이참으로 일하나한 超越性의 發作인 가 하도다 吾人은 低級의 眼光으로써 神의 神聖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基督의 超越性을 不認하게 되고 또한 罪海에 火潛됨으로 良情이 麻痺케 됨을 因하여 基督의 超越性을 不覺하게 됨이 種々 있는 常事임으로 結局 無神運動이 起하며 또한 此에 加擔케 될 도잇도다 그림으로 우리가 골로새書를 讀하다가 그곳 教會가 若干한 理學을 말하며 그것지 안은 異端者의 蒙學같은 말에 耳를 傾함으로 甚至於 天使를 崇拜하려는 僞善의 謙遜한 무리가 잇게 되니

論理的으로 그리스도의人格性에對한敎理에달녓나
 나에수씨서弟子들의게 다른保惠師聖神에對하야말
 삼하시기前에 自己를하나님의子로밧으라고가라치
 섰스며 敎會가처음브리 예수와聖神을旨目的으로
 밧엇스나 만흔討論을지나 敎會의信仰이 그리스
 도를聖하신者로確實히了解한後에 聖神에對하야도
 分明한地境에至한거시다。그런즉聖神의敎理에對
 하야討論하게될새 몬저그리스도眞神에對한敎理가
 엇더한가 무리보아야할거시다。

萬一에수씨서人만되신줄信할수잇스면 불나돈學
 者와알턱산드리아유대人들이認定할갓치 그屬性이
 나權能外에神으로區分할엇던先行的理由가업슬지며
 聖神에對하야말한바는 神의感化를比喻의이나過度
 히表示한것에지나지못할거시다。그러나예수를참하
 나님으로認定치안코는 그의性質과要求며弟子들이
 그의禮拜드림을우리가公平히判斷할수업는대 聖
 神에對하야人格的으로말한바를 父와예수의關係를
 보아 우리가字義대로解釋할수잇고 同時에이갓차
 치심은 하나님씨로보낸사람만되신者의갓차침이아
 나오 다만하나님이되신者의갓차침이니 上記한그

新約上으로본하나님의神

다른理論갓치自由로取扱할수업슬거시다。

우리는이問題에對하야 新約敎理에對한우리의見
 解를 特히聖神을對하야말한句節에制限할갓츠면
 여긔서人格의存在를明白히表示한거시적고 도리혀
 非人格의能力을指摘한거스로그와거의갓다고思키易
 할거시며 所解釋上疑訝가有한處에서 卓越하게奧
 妙한道理가아나라는意見을擇하야 다만엇던有力한
 人格化라解釋하야야될줄知키易할거시다。그러나우
 리가新約에聖神에對한理解가「하나님이누구시뇨」하
 는問題의解答에달닌거슬 思하면그本意가달나나라
 날거시며 또거기에하나님은絶對單一한位가아니오
 그中에聖父와聖子が分辨됨을包含하였스며 또그리
 스도敎人이聖父와聖子和聖神의名으로洗禮를受하며
 (마二十八〇十九)敎會에서神靈한恩惠를受할직에 한神
 에 한神과한主와한하나님과 衆人의父들은認하며
 (고전十二〇四一六、엡四〇四一六) 主예수그리스도와聖神
 고하나님씨福을懇求하면(고후十三〇十四) 新約이聖神
 을말함과同一한意味에서一個位로發表함에明確한證
 據될거시다。

하나 바울의 가라치라는要旨는하나님께서出하는權能이各信者內에서일하는것뿐아니라 하나님自身이 더희안에서일하신다는거시다。 그의意見에하나님의神은果然獨立的人格이아니오 그는神의人格에對한敎理에包含되지안코 다만人의心이人과關係됨것치 바울의말대로하나님의神이하나님과關係되시니 一方은同一하나 他方은相異하다。 그리스도敎生活의原理는 非人格의權能만아니오 하나님自身이奧妙한方法으로靈魂에居處하시고事役하심이니 事役하시는者는곳하나님이시오 또사람우에게서서사람을하나님께서引導하시는者시다 此에서人內에事役하시는하나님의神은 하나님과分擘되나 全然相異한存在가아니오 다만人의靈이나心이人과分擘되여人의諸般事를知한다할수잇습과 曷갓흔거시다(고전二〇十一十六)

바울의聖神에對한敎義와 오한의「말삼」(道)에對한敎義가(요一〇一十八)서로비슷하여 共히人의性質과하나님의性質間에 類同한點을指하였나니 人에對하여우리가반다시 知力、感情、意志等作用에서靈魂을區分하여야하나 다—合하여—이되며 이와

갓치하나님에對하여 啓示에聖父、聖子或은「말삼」聖神으로分位하나 一하나님이심을우리의게가라치거시다。 하나님의神에對한敎理의基礎는 예수그리스도로化身하신하나님의子或은「말삼」에對한매우分明히啓示한敎理에잇나니 萬一우리가「말삼」이곳하나님의子이시오 그리스도에수써서人生을感動시키고흔든하시는神靈한能力만되는거시아니며 또한創造함을맞으섯거나 有限한存在가아니시오 다만그의게하나님의性品이잇고 하나님께서는合當한禮拜를맞으시는者이심을承認하면 우리는반드시 總點에對하여하나님이絶對로單純하신者아니오 生存하기되시고 一便으로子도되사 萬有의根源이신父되시는하나님과 自己를知하시고 自身을나락내신子或은「말삼」되시는하나님이심을覺悟하여야할거시다 수에하나님께서對하여 그런區別을是認한다고하면어는예수와그의使徒들이聖神에對하여說明한方法이우리로하여곰 그를性質上으로 「말삼」과비슷한者라 思케하며 또한하나님은二位만아니오 三位이심을是認케한거지갓다 聖神에對한敎理는 歷史的又是

님의 모든百姓의게 異常한恩賜를 주신 바로 나타나 내인
거시다。

그러나新約中聖神에對한가장完全한敎示는 바울
의書信에서볼수잇스니 이는그리스도敎의性質特히
그內部的又是實驗的狀況을가장顯著히表示함이다。
여러書信中롬八〇廿七에그의心과 고전二〇十一에
諸般事를知하심과 고전十二〇十一에그意대로各人
의계分給하심과 엡四〇三十에근심하심과갓흔다
만人格의存在에屬할여러가지가聖神의계잇는거시다
바울은聖神을 그리스도의神(롬八〇九)갓하나님의
子의神(갈四〇四)이라稱하며 그리스도가우리안에계
시고 또갓갓치그리스도의神이우리안에계시다(롬八
〇九)하야 하나님과그리스도와聖神이同一한事
業을하신다고 區別엄시말하엿다。

바울은聖神을 道德上과宗敎上生活의原理로 그
리스도敎人의心中에居處하신다고 여러書信에表明
하엿고 (假令삼전一〇六、四〇八、삼후二〇十三、롬八〇二一十
七、갈五〇十三、고전二〇二一、十六、엡三〇六、
七、十四)또한聖神을 豫言과方言과異蹟같은 超自然
恩帥의根源으로도認定하엿다。그러나이에對하야或
者의말과갓치 前者는바울의獨特한表示라하고 其

他新約著者들은 聖神을異常한恩帥의根源으로만말
한다고 이러케區別함은不可한거시다。舊約에도豫

言이나異常한恩帥만아니오 거룩함을주시는하나님
의神에 神에對한觀念이잇고(創三十六〇廿七、사百四三〇
十)洗禮요한의말가온대도包含되엿스니 메시아는聖
神으로洗禮를 메프시시리라함이다。거룩함을주신
다는觀念은聖神이란일홈중에包含되엿스니 敬虔한
이스라엘人의心中에업술수업는것이다。벧전一〇二
一四〇十四、유다十九一廿、요일三二〇十一、四〇十六
과야곱四〇五과또예수니고데모로더브러談話하신
中에서(요三〇三一八)하나님의神의特別한職務를볼수
잇스니 이거시勿論疑心엄시眞實하나 以上모든句
節이分明히表示하엿고 또바울이다른新約著者들보
다더욱完全히이를表顯하엿다。그러나히브리人書에
는그리스도敎人生活의眞相이記載되엿스니 聖神의
職務에對한긴흔思考를要치안는거시다。
或이云하대聖神에對한바울의觀念은 그리스도敎
生活의原理로서 하나님으로써出하는權能外에야모것
이던지求치아니하며 또더가知識이나目的이나意志
를聖神씨들나는句節들은 그를人格化하는것뿐이라

任과 그 능력 잇는 도음이 업서 질뵈어나라 또 한親切히 사랑하시는 情誼가 끈히 질겨 술생각할새에 單純히知慈와勇猛을 주는 非人格의 神靈한 權能의 許諾만으로 는 더희心裏에 充滿한이 感情을 當할수업섯다。 이런 때에 하나니 때로오는 純然한 能力이나 感化에 對하여 性質上一位를 暗示하는 比喻的言辭로 말삼하심은 더희悲哀에 對하여 한 怪惡한 嘲弄이 되겠는 故로 그는 自己처럼 眞箇位로 계신 神靈한 代理者를 보내 마하신 말삼을 그 字義대로 하신 뜻하다。

예수씨서 聖神으로 말매야 더희와同居하시는 일 에 對하여 聖神의 臨하심과 自己의 臨하심을 갓흔거 스투로 말삼하섯다 (요 14:16, 18, 16:13, 16) 이 씨서 지肉身으로 더희와同居하섯스매 맞치사 人們들이 自己親舊를 아는 것갓치 더희가 그를 알 잇고 또 肉體的 感覺으로 그 形狀을 보고 그 音聲을 드렸스나 只수 은 別서 예수씨서 聖神으로 말매야 前보다 더 高尚하고 善良한 方法으로 自己를 더희의게 나라내게 되 었나니 聖神은 예수의 心を 더희의게 나라내사 그 心과 사 人們의 心이 親密히 交際하는 中에서 참으로 다 시 더희와同居하게 하신 것이 다。 然故로 그가 오심은 곳아바

지가 오심이니 (요 14:23-24) 더희가 참으로 그 를 알 잇스면 또 한아바지를 알 잇술거시다。

여기 한가지 異常한 거슨 예수말삼을 記錄한이 福音 著者가 그의 書信에 聖神에 對하여 이름 붙는 模樣과 (엡 3:17, 17) 하나니 씨서 주시는 바로 (엡 4:13) 記錄 하엿고 確實히 性格이 包含된 거스르 記錄치 아니 하엿스니 이는 能力과 感化에 지나지 아니 한 뜻하다。 이로 보면 요한이 그 書信에는 예수씨 빛은 啓示를 그리케 完全히 드리내지 아니 하엿스나 福音에는 예수의 모 든 말삼에 對한 記錄이 매우 眞實하고 믿을만 한 것임을 우리의게 傳한 거시다。 야고보나 베드로나 유다 書에 各 聖神에 對하여 가라침이 요한의 書信과 갓치 未分明 함은 그 書信의 簡約함과 實用性을 因하여 적 재함이 오 또 그의 性格을 確實히 包含한 거시 업는 同時에 조곰도 이와 符合치 안은 것 도 업스며 使徒行傳과 默示錄에 聖神으로 더부러 談話한 것과 그에 對하여 人稱代名詞를 使用함으로 記錄하엿다 (엡 8:24, 10:19, 11:2, 11:4, 13:17) 히브리人 書의 大意는 敎와 그리스도 敎의 制度를 對照함에 잇는대 前者에는 聖神을 先知者들 과 其他 感化를 受한 者들의 賜하셔시고 後者에는 하나

하신거시다 또 예수의 재臨하신聖神께서 弟子안에
 서도말삼하겠다하심은 共觀福音에 여러번記錄한바
 니 매례는十二弟子를傳道하러派送하시는일에關하
 야이거슬記錄하였고(十〇卅)누가는聖神을誣謗치말나
 勸勉하실때에 이리케하신말삼을記錄하였고(十二〇
 十二)마가는우리主님이橄欖山에서 弟子의 재將來일
 을말삼하시는중에(十三〇十一)이리케하신말삼을記錄
 하였으며 또누가는간혹事實에對하야 「내가너희의
 胃口才와知慧를주리라」(二十一〇十五)말삼하셨다고記
 錄하였다。 예수께서聖神을주시거나 洗禮요한의말
 파가지 聖神으로洗禮를베푸시는거시 以上福音의
 모든表示中에하나이니 말삼하시기를 父께서求하는
 者의재聖神을주시겠다(十一〇十三)하시고 누가가
 또한예수復活하신後에하신말삼을記錄하였스니 거
 기는父의許若대로 自己로말매암아 弟子들의재주
 실 聖神의恩惠를(卅四〇四十九九一〇八) 밝히가라치
 셧다。

요한이記錄한대로(十四〇一十六〇) 예수一晚餐을畢
 하신後에自己가求하심으로 父께서自己代身弟子들
 의재聖神보내거슬 懇篤한餞別辭로明確히陳述하셨

新約上으로보하나님의神

나니 거기서 그가神(特泰十四〇廿六一十五〇廿六)에對
 하야 人稱代名詞를使用하실뿐아니라 自己가弟子
 와함께계실때에 너희의재하시던事業을 聖神께서
 하시겠다하는意味로 다른保惠師를보내겠다하신거
 시다그말은原語로「바라클레노」(것흐로부른者)라하
 는대 요일二〇一에그리스도에對하야 代言者라翻
 譯한거시니 敎訓과獎勵와幫助를주시거나 나라나
 사審判者압해서우리를爲하야辯護하시는者이다。 이
 모든거슨예수一世上에서事業하시는 동안에 弟子들
 을爲하야行하셨나니 하나님나라의秘密을 너희의재
 가라치지며 갈닐니海에風浪이닐때와가지 危險한
 處에恒常갓가히계시거나 너희의解決할수업는難關
 을解決하여주시며 또 너희가安息日을犯하고 古來
 遺傳을等閒히되인다하야 바리새人이責責을때에그
 答辯할거슬말삼하시며 너희가世上과魔鬼의試驗을
 當할때에 爲하야하나님께祈禱하셨다 그러나只今
 肉身으로얼마더 너희와 同居하지못하게되었슴으로
 自己가世上에서至今까지 너희를爲하야하던事業을
 繼續할다른保惠師를보내마約條하시니 너희가예수
 께서始作하신事業을堪當하여야할 焦眉의急迫한責

新約上으로 본 하나님의神

간틀 니 스 敎 授 著

王 吉 志 譯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라치신 것이
舊約에 모든 許諾과 先驅者 洗禮 요한의 廣布 하는 소래
로 더 브러 잘 和合하니 비로소 넷적 브러 잇던 啓示에
세로 온 曙光이 빛최인 거시다。 그 敎訓의 大部分은 갈릴
니에서하신 거스로서 共觀 福音에 다 發表되엿다나 사렛
會堂에서 사六十一〇에 여호와와 종에 對한 말삼을自
己의 應用하섯스니 「主의 聖神이 我의 來臨하사 貧한
者의 來福音을 傳하게하시라 고 我의 來膏을 注하섯다」
(路四〇十八-廿) 하엿고 또 그 主張하신 眞理는 그 仁慈
하심과 뜻는 者를 늘내게하신 權能(마十三〇五十四 막六〇
二)으로 말매암아 나란 거시다 더仔細히 말하면
수에서하나님의神을 힘입어 邪鬼를 쫓아내거식거슨하
나님나라이데회의來臨한證據(마十二〇廿八)가 되는거
시다。

누가의記事中十一〇廿「하나님의手를 힘입어」하신

말삼 은 神靈한 能力만 表示함이나 예수께서自己能
力의 性質이 거룩함을 表示하러한 거슨 邪鬼를 쫓아내거
술바알세 볼의 來臨인者로 더 브러 爭論하신 顯然한 要
點에 빛치워 明白히 알수 잇는 거시다。 全舊約에 發表된
대로 하나님이나 라는 거룩한 王國이니 이를 建設하
신神도만 다시 거룩하실러이며 모든더러운神을 反對
하신者도하나님의神이실러이다。 聖神을 拒逆하던지
或 誹謗하는罪는 人子를 拒逆할보다 더욱크니 매시
야물人性을 넘으신 聖子로 아지 못하야 不識間에 誹謗
하는者는 悔改하면하나님의恩惠로 赦함을 받으나 萬
一누가하나님의自體를 나란내시는 聖神을 誹謗하며 親
히 보기도하고 알기도하는 聖神을 拒逆하면 엇지이런
사람이罪에서 救援하야 赦함을 받으리오。 故로 예수씨
서 人格에 對하야 拒逆할수 잇스나 權能에 對하야 할수
업는 거슬 말삼하사 하나님을 人子인自體와 分擘

것마다 들리는것마다에 無限하고 말할수업는 友情이 나를對하야 人間隣友의便益을 無視하게한지
 라 그째브러 此를 再思치안앗노라。靑松에細針마다 내압해서 同情으로 伸縮하며 友誼를보이더라
 사람이 흔히 凶惡、悽慘하다는 景色에도나는나와同性인무엇이 잇슬을 김허긋기고……到處에 生面
 의感이업섯노라」。제대는 記錄하였스대 「플씩이에 안개가가득하고 나의樹林陰鬱한우에 더운해가며
 풀너스나 몇줄기光綿선이 聖慕의內部에 드리울새 흐르는시내것 靑草맞헤몸을던지고 數千의綠葉에
 精神을뒹앗길새 그靑草속 조고마한세계의 騷亂함과 蜷縮하고말수업는 작은베레들의 形體들이 이
 가상에갓가히울새에 우리들 自己의形狀으로 糊造하신 全能하신主의 現場에함씨하심과 우리를扶持
 하며 保護하시는 全愛하신主의 呼吸을긋기니 그째내눈은 흐리어지고 내周圍에 世界와長天이受
 愛者의形狀과비슷한것을 내靈魂에印刻하도다……」

自然에美와 崇嚴의神功을 發見함은 哲人教師의特權이될것아니라 科學者와凡人도 自然을全體로大
 觀하면 容易히發見할지니 엇던有名한 進化論家가 進化論의著書末에 自嘆하대宇宙萬物의 進化過程
 을說明함은 無難하나 自己의 愛妻와愛女가 그리케絶美함은 何故인지 解釋하지못하겠노라 하엿다
 하며 엇던博物學者는 野에가서博物標本을 採取하다가 自然美와崇嚴을 景慕하며 咏嘆함에 心醉하
 야 日色이垂暮함을 不知하엿다한다。自然의美와崇嚴! 此를 無意味히看過치말고 神功을信仰하라。
 既信者는信仰을堅固히하라。 — 꽃 —



的論과 同一한權威를 가진辯證이다。페일니의 有名한比喩에 沙漠에서 發見된時計의 奇妙한組織의 時計工의存在를 證據한다할진대 路傍에서拾得한 一幅美術畫는 美術師의存在를 同一한雄辯으로證據할지니 同樣으로 自然의意匠이 造物主를指示한다하면 自然의美도 造物主를指示할것아닌가 形容과色彩의美가濃厚하면 崇嚴化하나니 疊疊한山峯 猛烈한霹靂 汹涌한海波 高遠한蒼空과같은 物質의大體積이나 勢力의大發動이觀光者의 心中을敬畏의念으로써 威脅함이 其例라 그런대 物質의 大體積이나 勢力의 大發動이 彼等單獨으로는 人心에 敬畏의念을 喚起치못할지니 必然코 人心과此等光景間에어던預設의 聯絡이잇을것이다。此等各殊한兩經驗을 聯絡하는 或者는「無限」이라는 語句로 表示할수잇스니 이는칸트가 蒼空의高遠廣漠함과 心底의道德的法則(其義務의廣袤도亦無限한者)이 自己의게 與한印象에對하여使用한語句이다。그런대 自然의崇嚴感을通하여 人을威脅하는 此「無限」은 宗教의用語로 「神」이라한다 그리고 崇嚴感은動物이自然의 威力下에戰慄함과갓지안코 敬畏 謙卑의感想과共히禮拜와讚頌의熱情感謝와安慰의信念을 激發하나니 此는 受動者의게 純感覺世界를超越하는 人格의力이 잇을뿐아니라 崇嚴의背景에 一「無限」한人格이 活動하는所以라하겠다。

美와崇嚴! 泰山이巍巍하여 威嚴으로沈默하며 大洋이蕩蕩하여 勇氣있게活動하여! 夕陽西天에黃金과紅菴薇의彩霞는 彼岸世界の平和를 映寫하는듯하며 蒼空에燦爛한日星은 萬古風霜에 傷치도안코塵世의涙涕에젖지도아니함이 「영원히계신이」를 默示하는듯하여! 此美와이崇嚴의背景에 仁愛하신天父가 계실듯하지안오뇨? 예수의聖訓에 「들이百合花를보라」하시니 이는 百合花를 꿈계갓구신그神功에注意를 促하심이있다。엇지「들이百合花」뿐이랴 千紫萬紅이다。神功의美麗한表出이다。彼等은大慈悲를說教하는者들이며 大智慧의教師들이다。

吾人은 도로(Thoreau)와함께 寂寞에서調和의美를찾고 其美에神功을엿보자! 「가는비가 잠잠히나리는대나는갓작히달고도 仁慈한 社會가 自然에잇음을늦기니 찌러지는비방을마다 내집周圍에보이는

徒는天이開함을보고 罪人은 良心에 奇異한騷亂을 寤진다。泣하던者 受慰하고 疲困한者 安息하며
 藝術家는 興起되고 愛人들은 親合하여 世上萬事가 純潔하고和順하여진다。短促한半時間에 모든것
 이 窸나 機械的序列은 終末되고 黃金光線이 溶解하여灰色되나 無數한心靈이 鎮靜、慰撫、興起되
 었으며 今日의人生進程이 昨日의沒落으로 由하여 修正된다。同樣으로 一片의樂曲 一소나다或交響
 樂은起源인 音響學的法則이나 樂器보다 臨衆의게 더眞되든것이다。他語로하면 科學世界가感情世界
 보다 더 眞되지못함은 兩者가다만 人生을包含한 一連續體의 相異한兩方面일뿐인 緣故다。그런즉
 吾人은 外部自然的 宗教的感化를 其機械的原因보다 眞眞된다고 割引할 何等理由가업는것이다 兩
 者가 吾人의各殊한器官들을 印象하나同一한 權威로써한다。」
 美가 物質과運動이나 原子及其性質만치 眞眞을아는 吾人은 其存在의 原因과目的을 如何히說明
 할가 進化論은 功利的假說노 此를說明하대 美는 動物의生存에 便利를중으로 存在하며 發達하는
 것이다하나니 다윈의 自然選擇說이 其例라。그러나 알가일公은 蜂鳥의燦爛한色彩를 描寫하고 宜
 言하대 로파스(一種의蜂鳥)의冠毛가 새과일(一種의蜂雀)의冠毛보다 生存戰에優勝할것이업고 尾의邊
 이나 中部가白色으로粧飾한것이 飛行의目的에 何等特殊한效果를주지못하니 此等變態를 엿던物理的
 法則으로 說明하기不能하고 畢竟 宇宙의大目的에 關係를有한것이라하였다。스미드는 此問題에靈的
 說明을부치잖아대 「自然美의 圓滿하고充分한 解釋이何호? 自然進化가 何를意味하는가? 此는理智
 로보더理智에 온것이며 啓示된것이다。即 此를思考하며寵愛하는 大理智가 此를知覺하며 嗜好할수
 있는人心에게 啓示한것이다。美의 使命과意味가 此外에更無하니 우리의科學은 이것의展開되는法則
 을溯求할것이며 우리의生物學은 或程度까지 이것의 發達하는方式을 研究할것이나 이것이 理智(神
 의)로보더 理智(人의)에永久한啓示임을늦지말것이다」 美感은 人心에 愉快를興起하여 神奇한平和를
 持來함으로 神의存在와仁愛를 直接證據한다는말이니 이는 自然에意匠을보아 造物主를推想하는 目

面에 止할선으로 藝術의世界안을 즐거워한 것이오 美의背景에進하야 其靈的原因을 發見치 못하였다
 그래서 彼等은 神과自然을 分別치 못하고 同一視하였스며 「創造함을受한 萬物을萬物創造하신主보다
 더 敬拜하고 奉事」 하다가 精神的方面이缺乏한 彼等의藝術은 墮落을未免하였다。西歐의中世思想은
 信仰世界와 物質世界의 分別을 甚히하는一方 神學者들은 理智에全力を傾注하야 自然의神秘的又象
 徵的方面을 嘆美할 餘地가 없섯스며 清潔敎의 美에對한不信任은 只今도或隅에殘存하야 美物은不神
 聖한 것이며 不注意者의陷窞인 것처럼 言論하기를 「눈에볼만」한 나무가 이와를試驗하지안았나냐 하
 나니 此境遇에 美와崇嚴은 敢히 「하나님의영광을드러내일」 資格이 없술 것이다。그러나 人이神의靈
 物을誤用한事實이其善한 功用을否認하지 못할 것이며 古傳道者의記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다
 그대를 당하야 아름답다」 하였슬진대(전도三〇十一) 美와信仰의間에 神設의敵愾가 없술 것이며 醜와善
 의間에天定の聯給이必有할 것도 아니다。彼 物質과運動을 唯一의實在으로아는 唯物主義科學者의純機戒의
 世界에는 美의地位가否認되는同時에 其靈의意味와如한것은云云할 問題도되지안는다。彼의世界에는하
 날의日月星辰도 心人을恍惚케 못하며 「궁창」의高遠無際함도 敬畏의念을喚起치 못한다。可惜하다 大自
 然에充滿한 造化神功을「보아도 도시아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天文鏡과顯微鏡을 暫捨하고 自然을
 全體로觀察하라 即時其榮光과威嚴에 接觸되야 宇宙는永遠한世界를 半隱半顯하는 半透明의面紗로意
 識될 것이다。일닝워트가 其著者「神의內在性에 感覺印象의靈의價値를 指摘하대」科學의啓示에依한原
 子及其性質은 彼等이 人心에喚起하는 感覺印象보다 더眞되지 못한다。아니! 此等印象은 感情과眞되
 接觸하야 無數한人의行爲를 校正하는點에서 人類의小數만이아는 彼等機械的原因보다 더 眞되다
 (唯一의明瞭한語意에서) 할 수도 있다。例를들면 西天落紅은 其根源에서 機械的인 에 더震動의連續선이
 오 其總結果는 吾人의재視覺의幻像을 喚起함에不外하지마는 觀光者의心中에는 思想과感情이 色色
 의活動을促進한다。青年은 高遠한理想으로 불붙고 老人은 平和로운希望으로 安心하며 祈禱하는聖

美와崇嚴에神功

朴亨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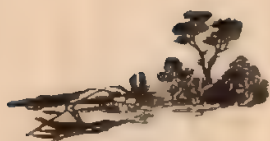
히브리詩人の 노래에 「하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은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을 나타내며 보
이도다」(시 19:1) 하니 此는 自然의美와崇嚴에 하나님의 功蹟을發見한者의 欣喜讚揚하는 一句
節이었다 果然하다。青天一張紙에 日月星辰의 燦爛한 繪畫는 美의眞美한者오 蒼空憶萬里가 高遠하
야際限이없습은 崇嚴의極崇嚴한者라 其美와其崇嚴이었던 大藝術師의 作品이아닐가보냐? 그러나自
然의美와崇嚴이 仰하야 「하날」이나 「궁창」에만 드러난것이 아니라 俯視하면 大界에 「산은 소사나고
골짜기는 나저저서 주씨서 曠하신곳에 나르고」, 「샘으로 골짜기에 소사나게하시니 산사이에 흐르난
도다」, 「공중에 새가 그 근처에 깃드리고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도다」(시 140:8-11)
天地사이에서 神功을말하는 美와崇嚴이 形形이며 色色이다。

엇지 히브리詩人뉘이라 萬有主 하나님 存在를信仰하는者는 屢屢히 美와崇嚴의 喚出한感想으
로自己의信仰을 堅固케하나니 信男信女가 庭前에一枝花를보고 神恩을聯想하는것이나 哲人教士가觸
景感懷로信仰을復興함이다 그러한것이다。그래서 캔트는 人の 美感和崇嚴感을 實理性에 聯結하고
此로써 神의存在를 辯證하였다。即 美物에對한 戀慕心과 自然의各樣調和에 反應으로나리나는 情
緒에 一種의 宗教的意識이伏在하야 道德的動作과類似한 活動으로萬有의 大原因에對한 喜悅과感謝의
熱情을 人心에鼓吹하는지라 自然의美는 「至善의形體라」고 캔트는 主張하였다。

美와崇嚴을 無意味하게 看過하는者 世에不少하나 非理와誤解의 使然함이 明瞭하다 古代의希臘
人은豐富한美感이有하야 建築、繪畫、彫刻이 古今에絶倫하였습에 不拘하고 彼等의美感은 感覺的方

未免하겠다。 유대法에 土曜日即安息日 七十里나 되
 는 여리고로 무려 예루살렘에 行路하신 예수를 決코 許諾
 할 수 없었을 것이다。 踰越節限에 올라가는 敬虔한
 유대인들이 安息日에 五里以上 行路를 不許하는 유대
 法을 어기었다는 데 對하여는 不可思議의 일이다。 예
 수께서도 이 모든 禮法을 다 직히 신 것을 우리가 다 아는
 바이다。 또 한 參拜 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온 敬虔한 유
 대인의 만흔 무리가 있섯는대 土曜日即安息日에 예수
 께서 行路 하섯다면 여긔 對하여 크게 反抗하였을 것이
 다。 이보다도 좀더 理由에 그럴 듯한 것은 假令 유대인
 들이 遠方에서 큰 踰越節을爲하여 예루살렘에 오라고
 할 것이면 그 行路는 꼭 安息日前에 잘 맞치도록 豫定할
 것이다。 心理上으로 볼지라도 現時에 더한大會나 或
 은總會에 가는者들은 主日前에 到着하여 그 主日을 직
 히도 豫定할 것이오 中道에서 머물러 主日을 經過하
 고서 月曜日아 참에 目的地에 到看할 나는者는 勿論업
 술 것이다。 그러면 이 參拜 하러 가는 유대인들이 土曜
 日에 行步하였을 것은 不可思議의 일이며 同時에 木曜
 日이나 金曜日에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安息日
 을 지나고 日曜日아 참에 예루살렘에 가도록 豫定하

였을 것도 不可思議의 일이다。 이事實대로 보면 예수
 께서 分明히 土曜日即安息日에 行路할 수 업는故로 못
 박히신 날은 木曜日이 될 수 업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
 다 오직 行路하신 日字를 諸般記事에 和合되게 하라 하면
 못 박히신 날이 水曜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聖經에 分
 明히 記錄하기를 예수께서 못 박히신 날을 安息日
 이고 고하지 아니하였는가 또는 그 記錄이 못 박히신 日
 字를 金曜日로 豫定함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以上
 두問題에 對하여 못 박히신 날을 金曜日로 誤信한 것은
 모든 事跡이(聖經中)이 두가지 지를 말한다。 우리는 유대
 인들이 三十以上의 다른 安息日이 잇는 것을 모르면서
 니 된다。(계속)



는 예수-죽은가온대서다시살나신者라』고하였다。

우리가以上에는 임의우리主에서 水曜日에 못박히

신것을 力證하라고하였다。 이것이直入일것이면

요한의말대로 踰越節은그다음木曜日이되어야하겠

다。 그런대또한요한이『踰越節은前에 예수에서

여리고로부러벳아니에오셨다』고하였다。 그러면木

曜日부러뒤로六日을計算하여보면 예수에서金曜日

날사개오의집과 여리고를떠나行路中에계신줄을알

수가있다。 그러면여기서비로소其前에우리가普通으

로認定하든여리고로부러예루살넴까지가신 그日字

의誤錯된것이暴露되었다。 그러면우리가이問題를討

論하기爲하여 假令金曜日에 못박히셨고 그다음土

曜日을踰越節이라하자 그리하고土曜日을부러뒤로

六日을計算하면 지나간日曜日에 예수에서여리고

에서벳아니로가신것을알수가있다。 그런대요한十二

〇十二節以下를보면『그이흔날節期를직히려온許多

한우리가 예수에서예루살넴으로신단말을듯고종

려나무가지른가지고 나아가서마저갈때에호산나로

다는의일홈으로오시는이는 이스라엘王이시니福이

있다하더라 예수-한어린나귀를맛나서타시니 이

는記錄한말삼과갓더라』하였다。 그런고로 만일土

曜日을踰越節노잡아 뒤로엿새를計算하여 日曜日

에여리고로부러벳아니에가셨스면 예루살넴에王으

로入城하신것은 그다음날(月曜日)이될것이다。 그

러면이事實을依支하야 우리가前부러알고生覺하든

『棕欄나무主日』은 日曜日이아니오月曜日이되고만

다。 그러면예수에서 예루살넴에入城하신日字를變

更하든지被釘日과踰越節을變更하든지 或은此二者

를다變更하든지하야 『棕欄나무主日』을日曜日노

만들수있다。 이로써우리는어대錯誤點이잇음을分明

히알수있다。 만일잘못된것이잇다고하면 못박히신

日字가誤定되었다고生覺할수업슬가?

여리고로부러예루살넴에가심 여러聖

經學者들은 이矛盾되는點에對하야 『棕欄나무主日

을日曜日노만들기爲하야 多히生覺대로못박히신날

을木曜日노못치고 卞라서踰越節은金曜日노만들었

다。 그리하야金曜日부러뒤로엿새를計算하면 예수

에서土曜日에여리고로부러예루살넴에가시고 그이

흔날入城하면 『棕欄나무主日』은 日曜日에되기

는한다。 그러나이것도조곰生覺하면 亦是誤錯됨을

리計算함으로 그前의時間은지나간날이되고만다。
그리고우리가 馬太二十八〇—二節에「막달나마리
아와다른마리아가무덤을보러갔드니」의말을全然히
생아보자 그러면安息日마지막 날해중첫날밤기를
始作할때……크게地動하며 主의天使가하날노서나
러오셔서 돌을굴니고 그우에안젓는대」로볼수가
있다。그런고로이時間이分明히 復活하신時間으로
確定된다。安息日마지막土曜日저녁六時頃이다。잇
던註釋者의말과갓치 날해중첫날이되기始作할때이
라우리가새날을十二時로定하는것갓치 그새의새날
은六時로始作하였다。그렇라고하면 馬太의「安息
日마지막날해중첫날밤기를始作할때」라고한것은分
明히土曜日저녁을가라친것이다。그러면 이時間만
씩々히알면 예수의마지막주일에된 모든未分明한
事實까지라도 다미루어차자볼수가잇스며 또한馬
太의記事를事實노아는새에는 이마지막週日同限에
된일은正確明然할것이다。

어느날에수째서被釘하셨나? 以上에말
한바이마지막主日同限에예수씨서는 어느날씩々히
被釘하셨나 만일예수씨서밤낮사흘을무덤속에계서

야하겠다고預言하셨스면 우리는예수씨서復活하신
그時間부터밤사흘과낮사흘을뒤로計算하여보면알수
있다。만일예수씨서 土曜日저녁六時頃에復活하셨
다고하면 밤낮三日을뒤로計算하여 水曜日에被釘
하셨을것과 또한그날午後六時頃에는말서무덤에계
셨을것을알수잇겠다。다시말하면 예수씨서못박히
신것과 復活하신事跡이 예수씨서完全한三日三夜
를무덤에계신것을여러가지로證明한다。

이러한問題를아지못한讀者는 勿論似而非라고할
수잇스나 此事實을證明하기에는 既解한바에만限
할것이아니고 此外에도더욱確證될만한事實노 此
를證據함이必要하다。요한十九〇—十四「씨는踰越節
中預備하는날이니 午正쯤되어 빌라도가유대人다
러닐아대너희王을보라하니」라고하였다。그런고로
모든사람은 예수씨서踰越節前日에못박히신줄노안
다。그날은 그다음踰越節을爲하여準備하는날인故
로「準備日」이라고稱한다。以上요한의記錄을引證에
分明히踰越節前日에 被釘하셨다고하나 잇든學者
들은이것을是認치아니한다。요한十二〇—「踰越節
앞새전에 예수—벧아니나사로잇는곳에이르시니이

에引用한과와갓치 『安息日마즈막날혜중첫날밤기름
 始作할때』라고하였다。그런故로 以下說明할때에는
 此本文의語句대로解釋코저한다) 막달나마리아와다
 른마리아가무덤을보라고왔드니 크게地動하며主의
 天使가하날노서나려와 들을굴니고그우에안졌는데』
 라고記錄하였다。마가, 누가, 요한의仔細한證據대
 로보면 그女人들이무덤에갈때와 天使가나려와서
 들을굴닐때가 相異한時間인것은疑心업는일이다。
 馬太福音以外三福音에는 其女人들이무덤에가서본
 즉 들은발서굴너졌고 무덤은뒹엿섯고 守直하든
 軍士는逃走하고업슴을보고 크게늘내서 「예수의屍
 體를엇더케하였나」 하고 웃기까지한事實을記錄하
 였다。그리고 「馬太福音에記錄된以上 두節은自
 然히證明이된다。此二節을外觀的으로본다면 女人
 들이무덤에간同時에 또한天使가나려와서 들을굴
 녀다고生覺할수가잇겟스나 이두가지事實은全然히
 不同한時間에서 發生된것이다。萬若그러치안라고
 할것이면 馬太福音은到底히他三福音과合致되지못
 할것이다。此四證人이自己들의記錄한福音中에서事
 實發生의時日的順序가엄지한것이 이의에도만홍오

예수께서는날못박히셨나

로特別히此에對하여說明코저아니한다。이事實은他
 三記者가記錄한것중에 마리아와그의親舊가 日曜
 日早朝에무덤에간것과 기다리든天使의닐아는말을
 들었다고하였다。그러나 오직마태一人만 그속々
 한時間을 밝혀서 『安息日마지막이라』고하였다。썬
 로드博士의註釋에 『닐혜중첫날밤기름始作할때』라
 고한것은即日暮後새날의始作으로解釋할수있다。그
 러면安息日마즈막날혜중첫날밤기름始作할때는 느
 진安息日노볼수있다。이것이自己만證明하는것이아
 니라모든事實이 此를證明한다。「유대安息日은해가
 지면마지막이라고하였스면 또한『마二十八〇二』크
 게地動하며』를 임의크게地動하였스며』로도 譯할수
 있다。그러면그女人들이가기전에 임의地動이잇섯
 고主의天使가나려와 들을굴니고그우에안졌든것으
 로알수있다。馬太의語法을承認하면 그女人들이地
 動함과天使가나려와 들을굴님을보왔다고함이 무었
 이우리의게맞지못할問題가되겟느냐』고하였다。유
 대安息日은金曜日저녁六時부터始作이다。金曜日午
 後七時를우리는金曜日밤이라고하여 우리의定日法
 을夜十二時로하나 유대人들의定日法은午後六時부

예수께서 어느 날 못 박히셨나

유진·찰스·칼나웨이·述
南 行 理 譯述

예수께서預言하시기를 「요니가 밤낮사흘을 고기배 속에잇슨것갓치 人子도 밤낮사흘을 셔속에잇서야 하겠다」는말상을基礎로하야 우리主께서完全한三夜를무덤속에계신것을 밝히고證據하랴고 이말을 쓰기始作한다 그러나 이預言이完全히일우지못하였다고하야 高等批評家들은 이것을利用하야말하기를「예수의預言한것은 聖神께서갈아치기도아니오 셔라서確實치못하고잘못된것이 此外에도만히잇다고한다。그리하야筆者는 이말을뚫고心中에크게敲吹된바잇서 四福音에記錄된예수의마지막週일에對하야 調和식히라고아래와갓치論述하노라

復活하신時間 十九世紀以後에잇서서 四福音에關係된바 이數日間に發生한事實의 日時的順序를바로차져보기는 매우어려운일이다 그러나 이事實에對하야 完全한날이나 或時間을차져내는

것은맛치얼크리진실의한뜻을차증파갓하야 이것으로漸々得들어 그다른갓까지엇을수있다。그러면 이復活의完全한時間은 맛치恒星과갓하야 이것으로써能히그일헛든方向을차증수있다。三福音에一致하게記載하기를 두마리아가그무덤에갓술씨는 日曜日야참이라고하였스며 또한此三福音記者가다한가지로일은아참에 女人들이무덤을訪問하였을때는 예수께서벌써復活하셨고 그의무덤은뵈여잇섯다고記錄하였다。그러면此事件은그女人들이그곳에가기前어느時間發生된것인것은確實하다 그런故로此에問題되는것은 어느때에復活하셨느냐는것이다。其中에馬太福音의記錄이 右三者에比하여서 不合하는點이잇서보이는듯하다。馬太二十八章에「安息日 마즈막닐헤중첫날 밝기를始作할때(鮮譯에는「安息日 잇흔날 새벽이라」고하였스나 希臘本文에依하면以上

神의 恩寵이 첫째로 必要하지 마는 人生에 對서는 悔改하며 信依하는 것이 또 첫째로 必要한 것이다。悔改와 重生은 決斷코 時間의 前後를 말할 수 업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그러면 畢竟 基督教敎理와 칸트의 見地가 彼此에 相違한 것은 어느 點에 잇는가。簡單이 말하면 칸트는 神의 恩寵은 超經驗의 이오 超感覺의 의 것으로 到底이 우리가 理論的으로 認識할 수는 업는 世界의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그 까닭에 理解의 對象이 아닌 그 무엇自體로 許容할 수는 잇스나 理論的으로 認識하거나 實踐的으로 우리 行爲의 準則을 삼아 採用할 수는 업슬 것이다。이 意味에서 칸트는 恩寵說을 否認하지는 안어스나 그것으로써 神의 本質을 表象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업섯는 것이다。基督教敎理上으로는 神이 사당하지는 獨生子 그리스도를 이 世上에 派遣하시고 그리스도는 그 命令을 服從하야 人生으로 誕生하야 十字架에 죽으심으로 모든 罪人을 代贖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神은 愛라 고 表現할 수 잇는 理由이다。그러나 칸트의 宗教觀으로서 神의 世界는 經驗을 超越하야 認識할 수 업는 것인故로 神의 일과 그 獨生子의 일은 색그리라고는 할 수 업고 오직 그런 것이 보다 고 할 수 잇다고 하였다。그러케 말한 뜻역는 또 여러 케틀너 붙었다。本來 우리 人生은 認識할 수 업는 價値일지라도 거기 對한 表象을 가지려 하면 不可不擬人的으로 또 人生流로 하게 되는 것이다。超感覺의 것이라고 理解하려 할적에는 感覺的 對象과 간치 取扱하지 안을 수 업는 것이다。이것은 人類에 對한 行爲의 類推의 圖形이라고 칸트는 보았다。그러면 칸트의 宗教觀으로 信仰이란 것은 善良한 人生이 되려고 理想의 人生을 自己意志에 受納하고 그것을 實現하려고 決心하는 狀態이다。그 決心이 究 重生이다 重生한 人生이라고도 現實世界에서는 完滿한 善의 境界에 到達할 수 업스나 無限의 奮勉勵進으로 時間以外에 全體로써 達觀하시는 神의 눈앞에서 義人이라는 稱號를 잇게 되는 것이다。現實世界에서 完成할 수 업는故로 우리 人生의 功力으로 救贖을 얻지 못한다고 超時間的으로 義人의 稱號를 잇는故로 神은 恩寵이라고 할 수 밧게 업는 것이다。그러고 보면 칸트의 信仰도 基督教의 敎理에서 그다지 멀니셔 난 것은 안이라고도 할 수 잇다。

그러면 칸트의 宗教論은 왜 그다지 曲折이 안고 迂廻가 멀어 眞實을 밧어서라도 다시 도라오는데 向하지 안치

것은 우리의 모든 理知를 超越한 것이다。웨그러나 하면 惡한 나 무에 善한 果實이 었더케 매칠 수 있을 것인가」
 칸트의 疑問은 實現적 善의 彼岸과 우리의 出發點인 罪惡의 性質하고는 無限의 距離를 가졌다는 嘆息이다。
 칸트의 見地로서는 善惡의 於間에 仲介 連絡을 할 融通性을 가진 것이 아모것도 없었다。그러하고 하면 惡人
 은 善人이 될 수 없는 것이다。『現實的 經驗대로는 人生이란 것이 極히 不完全한 것으로 自己實力을 가지고 罪惡
 을 離脫할 수 없는 것도 칸트는 알았다。그러나 罪惡이란 것이 宿命的으로 人生의 不可避할 狀態로는 信認
 하지 안었다。웨그러나 하면 칸트의 見地로서는 人生이 비록 墮落하였지만은 「善良한 사람이 될 것이다」는 道德的
 命命은 依然히 減少하지 안코 모든 人心에 普遍的으로 存在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그러나 現實的으로 救
 贖의 可能을 認識할 수 있기는 墮落의 理解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그러면서도 善은 無限히 進展해야 最高
 法則과 一致하는 境界에 到達할 수 있스리라는 것은 안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經驗的으로 와 感覺的으로 는 認
 識할 수 있스나 純粹 理知的 直觀이라는 것을 許認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은 神의 계맞게 업는 것이나 完全圓滿한 善
 의 境界에 到達한다고 判斷할 수가 있을 것이다。이러케 생각하고도 칸트는 다시 이러케 되면 人生의 存在가 破
 壞되고 말지도 모른다고 疑心하였다 左右間 칸트에 게도 至極이 難澁한 問題이 든 것은 明瞭한 일이다。
 善의 原理가 惡의 原理에 對하여 勝利를 얻으리라고 確信하는 칸트는 그 勝利의 根據를 道德義務에 두었든
 것이다 悔改로 말매 알은 重生 다시 말하면 內心의 變革은 그것이 道德的義務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基督教에서는 人生의 救贖은 神의 怜恤노만 可能하다는 것인데 칸트의 見地로서는 道德的義務에서
 善의 到達할 수 있는 것까지 말한 것이다。그러나 칸트도 基督教敎理를 자조자조 顧慮한 妙語에 이런 말을 하
 였다。『善人되려 함에는 超自然的 能力의 協助가 必要하다 』 또 그 協力は 妨害를 減少시켜 주는 消極的 助力뿐이
 던지 或은 積極的 援助이 던지 人生이 爲先스사로 그 助力을 受納하며 그 援助를 受取함에 相應한 者가 아닐 수 업
 습는 것이다」 이 말을 仔細히 吟味하여 보면 칸트는 아모리하여도 人生의 能力을 全然無視하지는 안을 것이다。그
 러나 神의 援助를 積極的으로 主張하는 基督教에서도 人生의 勞力을 必要하지 안라고 하는 것은 勿論아니다。

에서 原罪는 必然的의 것이 안이면서 도 人生의 能力으로는 撲滅하거나 退治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뜻치고 말 것 같으면 칸트의 宗教論은 그 倫理說과 큰 矛盾을 내일 것이다 實踐理性批判에는 宗教의 確信을 가지고 主張하기를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다 웨그던고하니 그것을 맛당이 하여야 하겠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제와서 原罪를 撲滅할 수 없는 限에서 最高準則의 根據가 腐敗한 대로 잇다는 것은 合致할 수가 없을 것이다。 聖經에는 「天下의 義人은 없다 한사람도 없다」고 하였는데 이 敎理와 符合하게 原罪를 主張하면 칸트의 倫理的 見地와는 矛盾이 안날 수 없는 일이었다。 칸트의 倫理的 見地로서는 罪惡을 撲滅하는 것은 人生의 義務며 罪惡을 撲滅할 것이라는 것은 道德的 法則이다。 이 見地를 維持하려고 칸트는 말하였다 「그러치만은 罪惡으로 가려는 傾向은 自由로 行爲를 하는 存在者인 人生에게서 發見되는 것이기 때문에 征服할 수가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칸트는 「宗教論」에서 人生의 罪惡을 自然的의 것이오 根本的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恒常그 말 뜻하는 「그러치마는」 「비록 그러나」 등의 反語를 使用하여 人生의 自由로 墮落되었던지 거기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든지 그 비스름한 말을 너저바리지만 코附加시켰다。 그러나 여기서 칸트의 倫理觀과 宗教觀과는 아모리하여도 完全한 合致를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四、救贖論에 對하여

基督敎에서는 人類는 原罪로 말미암아 墮落한 境涯에 있어서 自己의 知能을 가지고는 救贖을 얻을 길을 아조일 은 것이다。 오직 神의 恩寵으로 말미암아 救贖을 받을 可能이 있을 뿐이다。 이 敎理를 칸트派로 翻譯한다면 善의 原理가 惡의 原理를 壓服하여 勝利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基督敎가 傳統的으로 信仰하는 救贖의 原理가 칸트의 哲學的으로 要請한바 善의 勝利가 아조一致하지 않은 것은 알기 쉬운 일이다。 칸트自身은 善의 原理가 究境의 勝利를 占有할 것이라고 確信하여 스나 그 敎理를 理解하기에는 難點曲處가 많은 것도 모르지는 않았다。 宗教論에 이러한 疑問을 發한 것만 보아도 分明하다。 「自然대로는 惡人이었는데 엇더케 스스로 善人이 될 수 있겠는가 이

性이本來無力하다.는 것을 主唱하였는데 그중에도 루터와 칼빈兩氏는 오거스틴以來에 恩寵說을 더욱發
 展시켜서 人生이라는것은 到底이自己의知力으로 救援을 얻을수 없고 오직信仰으로말미암아 神의恩寵
 을입어야 비로소救援을 얻을수 있다고 高調하였다. 쾨르가만은影響을받은敬虔派에서도 그信奉하는狀態
 가이점에對하여서는아모差異가없었다. 「實踐理性批判」의 結論에서는「자주자주생각하고 또같이생각하
 면 생각할수록 心情의充滿하는 感歎과崇敬이 더욱더욱세롭고 더욱더욱增大되어 오는것은내우에잇
 는星辰이 輝煌한蒼天과 내속에잇는道德律이라」고 說破하든쾨르가 宗教論에이르러서는 人生의本性
 은出生하면서부터 罪惡이잇다고 觀察한것을생각하면 쾨르가基督敎의敎理에 잇더케愛着한것을알만하
 며적어도 쾨르가基督敎의敎理와 一致한見解를 保有하려고努力한것은分明한일이다.

쾨르의原罪에對한見地를 理解하려함에는먼저傾向이라는 意味를理解하지안으면 안될것이다. 傾向에
 는二種이잇스니 한가지는自然的傾向으로 生物中에드러가는人生이 依例이所有한必然的傾向으로 여
 對하여서는善惡의判斷 을내리울수가없을것이오 第二의傾向은 道德的存在者인人生이 特殊하게所有한
 自由에基因한 傾向으로 善惡의判斷을이傾向에만 내리울것이다. 다시말하면善惡의判斷을 내리울수잇
 는傾向은自 由에基因하면서도 아직實行되지아니한 行爲辨일것이다 쾨르의말을빌것이면 超感覺的行
 爲라야善惡의判斷을 내리울수가있다. 理性으로만認識할수가잇고 感覺的으로時間空間안에서는 知覺할
 바가되지못한다. 이리케先驗的起源을가진傾向은 이것을根絶할수도없을것인데 그理由는우리自身에責任
 이잇스면서도 權이와갓치善하고或은惡한것을 最高의準則으로採用하였는지 알수가없는사실이다. 쾨르
 의생각대로는 人生의道德的法則을 意識하면서도그대로行하지못하고 惡한準則을써라가게되는것은 原
 罪로因한이다. 個人의經驗的事實로 볼것이면잇더한善人일지라도 그本性이惡한대그사실으로 罪惡이라
 는것이 人類라는概念에屬한必然的性質이라는 意味가아니오 一般人類에게普遍된事實이라는 意味뿐이
 다 原罪는人生이自由로 惡의準則을採用한結果로 모든準則의最高主觀的根據를腐敗하게한것이니 이意味

켄트의宗教論을批評함

(二)

蔡 彌 近

켄트의倫理的見地는 所謂無條件命令을中心으로하여 道德의價値를 理性的意志에自律的行動에서發生하는것으로 볼것이다。人生이最上の善 完全圓滿한善에到達하려하면 自律的意志의 永續을要求할것이고 이不斷의努力에는 公平한支配者를 要求할것이라하여 켄트는實踐理性的의 三個要請을說出한것이다。三個의要請은 人生意志의自由와 靈魂의不滅과 神의存在이다 좀더詳細이말한다면 實踐理性的의無條件命令을自律的意志로 建設한後에 履行하는것은 人生意志의自由가업시 될수업는일이오또이道德的勵進務行에對하여 究極的目的인完全圓滿한善의境域에 到達하고자하지마는 現世와갓치有限하고不完全한곳에서는 實現할企望이업는故로 道德的主體가永久不滅하지안으면 안될것인故로 靈魂의不滅이要請된것이다 人生의自由로이런積極의努力을 繼續하는者가잇는同時에 또그反對로退步墮落하는者도잇는것인則公平無私하신 神이게서서判決을하여야 될것이라고要請한것이다 이제와서켄트의論證을보면實證論的論證을反駁하고자自己는슬근이 絕對界에서神을引入한것이며 宇宙論的論證과目的論的論證을 駁擊하고자自己는슬근이 宇宙의支配者로神을引入한것이다 또켄트의有神論證은要請뿐이오 證明은아닌則 켄트의神論은 決코成功한것이라고할수업슬것이다。

三、原罪論에對하여

켄트의「宗教論」은 人生의本性의對한 原罪의問題에서 出發하였다고할수있다。基督敎의原罪說은유대敎에서繼承한方面도잇겠지만은 基督敎의律人 바울 오거스틴 루터 칼빈諸氏가모도다 이에對하여는人

역시 임의世上을 떠나서고 그事業을 그弟子들에게 맡기셨스니 그 맡기신事業은 변변치 못할 것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十四〇十二에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在世時보다昇天하신後 그弟子들의行할事業이
 더 큰 것인 것을表示한다. 事實은 歷史가 證明한다. 예수께서在世三年에 五百人の未滿한弟子를 叫合하셨
 스되 메드로와 아들은 여러千名을 밋게 하였다. 卽예수前在世時하시지 못한事業을 現今寶座에서 當身의弟
 子들을 通하사 하신다. 尤大한事業을 하자면 二個所要의件이 잇다. 卽一은 주께서 聖父께서 하신 것이오(一)尤
 大한事業을 하기爲해야 그의名義로懇求하는 우리의祈禱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일홈으로 祈禱하는 밋음이
 不足한結果 우리의 할事業이 그리스도의行하신 것보다 큰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

二

우리가萬一祈禱할 것이면 반드시事役할 것이다. 祈禱하면 반드시 事役할權勢를 주시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私事의事業을爲해야 權勢인기를 바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爲해야 또는 그의聖意를成就하기爲해야
 밋는 마음으로祈禱하자 그리하면 所要되는權能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行하신事業만하기爲해야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의行하신 것보다 더 큰事業을
 하라신 것을記憶하여야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通하야 이 일을行하라고 權能을 주시기爲해야 聖父께서
 고 우리는 그의名義로 求하는 것을 주실러 인즉 우리는 이尤大한事業을 할 수 있실 것이다. (끝)

주여使役하게가라쳐주옵소서

라 부 열

예수의弟子들은 主여祈禱를가라쳐달나고 懇求하였스니 이는예수當時나 今日을勿論하고 그弟子된
 者를노서는 이보다더緊重한工課가다시업깃다。 우리가祈禱를배운後에는 반드시使役할것도 또한배와야
 하깃다 故로우리는 반드시「主여우리로 使役하게가라쳐주옵소서」할것이다。 祈禱와使役은 不可分
 의關係를가젓다。 우리가무엇을爲하야 祈禱하깃는가 祈禱함으로能力을얻어 그能力으로使役하는것이안
 업가 요한十四〇十二、三一에「내가眞實로眞實로너희다려이라노니 나를밋는사람은 나의行하는일을따
 도行할러이오 또한이보다큰것도 行하리니 이는내가아바지씨로도라감이라 너희가내일흥으로 무엇이
 던지求하면 내가行할것은 아바지씨서 아달노말매암아 榮華를얻게함이니」하섯다。 이말상은예수씨서
 己爲聖父씨로가섯고 우리가그의名義로祈禱함을因하야 그의弟子들은 예수의行하신것과갓치 큰事業을
 할뿐아니라 그보다더큰事業을할수잇는것을 가라쳐말삼이다 그런則우리가예수의行하신 事業을하라고
 할진대 반다시그의名義로 祈禱할것이오 그의名義로 祈禱할진대 반다시歲月을虛送치말고 그의事業
 에從事할것이다。

一

우리가事業하라면 반다시祈禱할것이니 祈禱함으로 事業할能力을얻을것이다。 그리스도씨서在世時에
 큰事業을하섯스나 昇天하사聖父씨로도라가신後에는 直接으로몸소役事하시지안코 自己몸된그의弟子들
 을通하사하시는것인則 그의弟子된우리들은 반다시이것을이저서는아니된다。 或우리가生覺하기를 主님

Summer Blessings

“Summer is filled with reminders of God’s goodness to us. Spurgeon, with his rare insight into spiritual truth, said a beautiful thing, quoted recently in the Keswick Calender: “As the meadow is spread with a thousand gay flowers, and we tread upon them without attempting to count them, even thus is it with our life in Christ Jesus: it is mercy, all mercy – mercy too great for reckoning. Our life is a wood, wherein are tangled thorns; but listen a moment! Is it not full of sweet songbirds, akin to those of Paradise? God is good to us at all points, and greatly good too.” This goodness of God toward us never wavers’ is never interrupted for an instant. Never is it anything less than infinite love. There are times in our life when it seems anything but summer. All that we can see or feel may be coldness, barrenness darkness; God may seem to have abandoned us in a hopeless wilderness. That is his call to trust him. When, later on in his presence, we look back with his own sight at that very time, we shall be able to see the flowers and hear the birds that were with us even then.”

夏間에 밝는 福

夏는 吾人의 게 비프시는 하나님 의 善하심을 記憶케 하

는 福이 만다。靈의 原理에 對한 稀世의 智識을 가진 스펀

氏는 「우리가 萬가지 아름다운 花卉으로 稱을 한 草場

으로 行步할 때에 眞우 그 數를 헤쳐 볼 생각도 못한다 그리

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게 비프시는 恩惠도 이렇게 豊盛

하다 모른 것이 莫非 恩惠이다。우리의 生活은 가시 眞實

한 森林이다 그러나 그러하고 不足히 생각지 마라 그

속에는 天然을 노래하는 새 예가 가득하야 맛치 樂園과 儼

佛하다。하나님은 凡事에 善을 비프시니 그 善하심은 크시

도다」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을 하나님 의 우리의 게 비프시

는 善은 可히 疑心할 바 아니며 可히 瞬間이라 들 수가

없다 그 無限한 사랑에 不足한 것이 잇을 수가 잇스랴 우

리의 生活中 잇더 한 때는 맛치 너를 맛치 恩惠를 가지게 하

는 때도 잇다。보이는 바와 感覺되는 바는 모른 것이 冷寂

하고 寂寞하며 暗黑하야 하나님 의 絶望한 曠野에 우

리를 바라신 듯 한 感이 난다 아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自己를 依賴하라고 부르는 새이다。그 後 잇던 새 그 앞

에서 그 經過한 時事를 回顧하는 때는 그 辛酸한 生涯를 보

는 그 時間에라도 四方에 花卉이 우리를 들러 잇는 것을 볼

수 잇스며 天然을 노래하는 새 새를 들 수 잇을 것이 다

WAHL PEN
EVERSHARP



월
會社의

萬年筆

米國萬年筆中에信用잇는거시여러種類이나월會社萬年筆보다優勝호것이업는나堅固호고單純호기製造호며價格이歇호야可信호만호니다이萬年筆을買用호시려면京城太平通二丁目四十番地

W·W·레이너商會로注文호시옵소서

神學指南事務所長

羅富悅
白

W. W. Taylor Co
Seoul.

主 日 學 校 三十四—四十四

萬國主日學校工課 어도만

基督青年勉勵會 郭安連

너희난사는집 (兒童說教) 東樵

聖 經 講 解 四十五—六十二

세가리아講解 魚塗萬

히브리人書講解 李聖徽

야고보人書講解 羅富悅

로마要節講解 南宮燦

質 疑 欄 六十三—六十四



神學指南第拾卷第五號目次

◆夏間에 맞난 福……(卷頭言)……………一

◆主여 使役하게 가라쳐 주옵소서……………라 부 열……二

◆論 文 及 研 究……………四—三十一

갠트의 宗敎論을 批評……………蔡 弼 近

主의 서어느 날 못박히셨나……………南 行 理

美와 崇嚴파의 神功……………朴 亨 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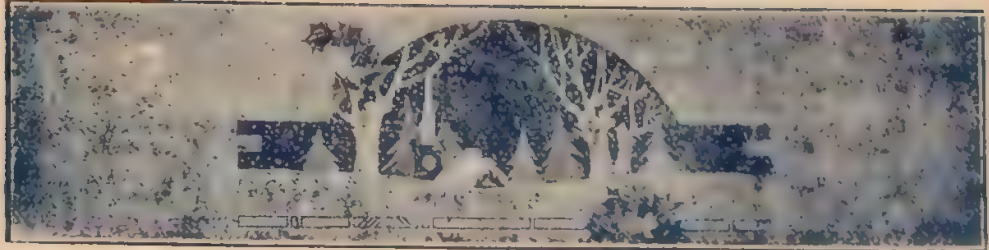
新約上으로 본 하나님 의 神……………王 吉 志

골노 새書의 낫하난 基督의 超越觀……………鄭 載 冕

◆六 號……………三十二—三十三

유대 民族史上一重要 記錄……………金 鍵

그리스도의 再臨……………金 聖 培



EVERSHARP PENCILS

WHEN you buy an Eversharp you get a pencil that is always ready to write smoothly, easily and legibly. And Eversharp gives lifelong service. For, like your watch, it is designed with jeweler precision. We have Eversharps in all styles; in silver and gold, chased and plain. We sell the genuine Eversharp. The name is on the pencil.

W.W. TAYLOR and CO.

Seoul. Korea

에버샵鉛筆이多數來着하얏소
 에버샵의意義는即常尖이라
 는意라 아모時라도
 약寫기便利하다함이라
 此常尖鉛筆은眞正米國
 製品이오此와類似한
 僞品이多하니買上하시
 려거든書面間本商會에
 서買하시려고不然하면
 斷定코僞品을買有하
 리니注意하시오價格表
 는請求에依하여呈上하
 오며地方에特히學校와
 敎會代理店을願하오
 며學生의게는特別減價
 하오니四方僉位는
 速愛顧하심을要

京城府太平通二丁目四〇番地

W. W. 테일 리 商會

본부에서고심연구한결과로소래와품질이아름답고견고한품을만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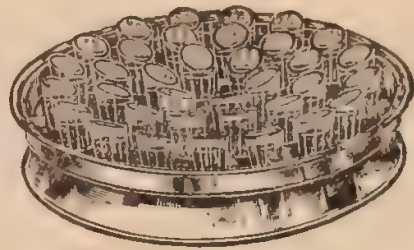
종당비례

대, 중, 소, 삼종이구비
 하오니가격이나그밖
 의자세한것은본부로
 문의하십시오



우리교회에업지못할성찬기는지금에야되엇싸오니속히주문하십시오

의찬성



유색으로만든것

각 五원

합색으로만들고회철하것

각 四원

유리잔三十九개

一조식합하야

平壤新陽里四〇番地

崇實學校工藝部

孟老法白

新 刊 書 籍

예수서적그림

定價三十五錢
著作者裴緯良

보라!! 이그림들과이야기들을수같이예수서적그림들을發行하게됨은特別히우리半島어린이들을爲하여其腦속에神靈的糧食을너어주며어린예수와같은人格을養成하기를目的하고四十年의예수서적에對한그림과各其그림에對한이야기가보고읽기뜻케쉬워잇습니다그런故로冊의定價도어린이와一般信徒諸位와其外聖學校幼年主日學校와一般家庭에奉仕의廉價三十五錢식으로提供하게되었나이다切版되기前에陸續注文하십시요

미국녀성윤일류저술가이, 엠, 휘두모녀사의저술! 할고한지미구에十二國어로번역된저명한소설!

魏斗貌女史著 과랑새 썰니이야기

紙衣美裝 定價拾五錢

이책의주인공되는과랑새곳썰니안씨의남성(男性)을악마갓치보든경로(經路)와타락의심연(深淵)에서인간을타매하고세상을저주하든피무든새활의리면을볼수잇스며괴독교계화신(化身)이된저휘두모어녀사의뜻한품속에안

京城 鍾

朝鮮耶穌教書會

기어과거의되악생활을참회하고타락의심연에서광명의세계에소호야부그러운과거를집히장사하고짜르나마참되고그룩한생활에드러가듯물로여생을맛치광휘잇는사적을볼수잇다

減價書類

以下兩冊子是一般社會와各教會에普及되기가爲하야本廉價로提供하옵던바此際에當하야는殘本도만치안응에不拘하고諸位의愛顧하심을報答하기爲하야下와如히減價提供하오니晚時의嘆이업도록速々注文하시옵소서

公娼의害毒

原價十五錢 減價十錢

本書는예부란必醫學專門學校教授씨, 합력氏가多年의經驗을찾고東西洋各國의統計表를對照하야公娼이人類社會에如何한影響이잇다는것을細々히論述한冊이올시다

天人感應

原價十五錢 減價十錢

此書는古法人로류시氏의經驗談이니少時에는不學無術하올씨라無味한生活을營하다가修道院에一入한後에神의榮光中에서凡事를行하며神의對한智識을만히받어信仰의生活을圓滿히하였다는短篇의冊子올시다

미일수과

정의는 마음을 엮고 저하는 모든 이들이 책을 보실 거시오 조선 말 노만은 처음에 목상 태배 할 때에 이 책보다 난 거시 업는 거시라

전감 손지의 五十五錢
포의 一圓
시방 二十五錢
시방 七十錢

로마공부

은신약 중 최에 아라 듯기 데 일 어렵고 데 일 보 비로 온 최은 로마인 서인 데 이 최안에 그 덕 강 리 치를 다 히 셔 훈너 다

전감 손 二十八 전이오 시방 二十錢

갑슬결반

영성의지시

던 당 가 기 를 원 훈 너 가 이 는 힘 로 흥 실 쎄 가 지 고 가 실 디 도 요 사 가 지 고 깃 본 무 음 으 로 단 니 시 오

전감 손 四十 전 시방 二十 전

요한행적

예 수 의 사 랑 하 시 는 데 주 가 예 수 를 데 일 겁 히 아 탕 손 즉 그 의 힘 적 을 알 면 예 수 를 알 거 시 오

전감 손 六十 전이오 시방 三十錢

감한칙

목스지법

목 사 와 조 스 다 른 교 역 자 들 이 주 기 의 직 임 에 더 하 여 이 최 안 에 수 천 가 지 방 칙 을 볼 수 가 있 스 니 귀 회 를 일 치 말 고 사 시 오

전감 손 一圓八十 전 시방 一圓五十錢

도덕학

이 변 경 하 는 시 더 가 온 더 도 덕 의 원 리 를 아 라 야 큰 실 수 하 지 안 켜 습 너 다 이 최 속 에 그 원 리 가 있 스 니 사 보 시 기 를 바 람 니 다

전감 손 포의 一圓四十錢
과 지 의 八 十 錢
시방 감 손 포의 一圓

회 서 교 수 예 로 종 성 경

Waterman's Ideal Fountain Pen



地球票萬年筆

이萬年筆은世界中第一이
 니 새지도 안고 병나지도 안
 코 여러가지特長이 만스니
 다十三種類가 다一等萬年
 筆이입니다
 판매소는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四番地

怡泰棧

Waterman's

“MONEY, THE ACID TEST”

BY DAVID MCCONAUGHY

TRANSLATED BY REV R.W.COE AND C.A.CLARK

This book has been richly used in America to bring Christians to a knowledge of their STEWARDSHIP. Overtures will be made to the Assembly this month suggesting that Assembly adopt it, and urge its use in connection with Bible classes and Institutes. Push it !!!

金錢은人格試驗品

經濟即金錢問題는目下우리
教會의一大難題가됨니다이
를解決코져米國맥코낙히先
生에게서財物에對한個人과
나님의關係또는個人과社會
의關係를舉하여基督敎主義
經濟原理를詳論함이잇스니
此가即金錢은人格試驗品이
란冊임니다이를譯述하여야全
鮮教會及事役者諸氏의개紹
介하오니一冊씩사보시기만
하면이問題解決의端緒를快
히얻으리다

神學指南

第十卷第五號
九月號

昭和三年八月二十四日
發行

重要目次

- 主의 使役을 教示함 소서……………校長 羅富悅
- 캔트의 宗敎論을 批評함……………牧師 蔡弼近
- 主의 서어느 날 못 박히셨나……………牧師 南行理
- 美와 崇嚴파의 神功……………朴亨龍
- 新約上으로 본 하나님……………牧師 王吉志
- 골노새에 現한 基督 超越觀……………鄭載冕
- 萬國主日學校工課……………牧師 어드먼
- 基督青年 勉勵會……………牧師 郭安連
- 兒童說敎……………東樵
- 세가리아 講解……………牧師 魚塗萬
- 히브리人 書講解……………牧師 李聖徽
- 야고보人 書講解……………牧師 羅富悅
- 로마人 書要節講解……………牧師 南宮懋

壤平

鮮朝

神學指南社

p. 13 - Moffett
p. 17 - "

First Church Life

OCTOBER NUMBER

1928



First Presbyterian Church

CLARENCE EDWARD MACARTNEY, Minister ^(Pittsburgh)_{PA}

WILLIAM A. JONES, Associate Minister

ROSCOE W. PORTER, Assistant Minister

MAITLAND ALEXANDER
Minister Emeritus



Dr. Macartney's Letter

DEAR FRIENDS:—

With this first autumn issue of our CHURCH LIFE, it is a joy for me to send you my greetings, and to speak with you about the work of our Church during the coming winter.

Since the last issue of CHURCH LIFE, I have had another opportunity of crossing the seas and visiting places of interest and inspiration in Europe. I sailed July the 7th, on the steamship Minnekahda. The voyage was singularly calm, and even a poor sailor like myself had little cause for lamentation. This time, instead of disembarking at Plymouth with its beautiful harbor, or Boulogne, I went on up the channel and up the Thames to London. My purpose in going to England was to visit Bedford and the haunts of John Bunyan, for this, as you know, is his tercentennial year. Bedford is about fifty or sixty miles from London. There I saw the fine monument to Bunyan in the public square, the Bunyan Meeting House, where the Congregation of which he was pastor, is still meeting, although the building is modern. Just along side, is the home of the great prison reformer, John Howard. In the Bunyan Meeting House there is a library and museum where one can see all the editions of "Pilgrim's Progress" and many of the relics of Bunyan. The iron gate of his prison is also to be seen there. The quiet river Ouse flows placidly through Bedford, spanned by graceful bridges, and near the present bridge is the Swan Inn. Here it was that Bunyan's heroic second wife had the famous interview with the judges, Hale among them, when she pled for the release of her husband from the prison. "Pilgrim's Progress" was written during Bunyan's second imprisonment, in the town lock-up, which was on the bridge over the Ouse. A mile or two beyond the river is little Elstow, an ancient village, and I question if it looked any differently in the days of John Bunyan. A woman some ninety-five years of age took me into the old Moot Hall and showed me where Bunyan first preached. Outside is the green and the broken cross near which Bunyan was playing one-o-cat when he heard the voice from Heaven, asking him whether he would have his sins and go to Hell, or leave them and go to Heaven. I told you in the letters published in the Church Bulletin how I climbed the old tower at Elstow and got no little satisfaction out of ringing the bell which Bunyan used to ring as a boy.

Leaving London I went down to Canterbury, through which I had often passed coming or going, from France to England, but where I had never stopped. It was well worth the visit. I saw where Thomas a Becket was murdered, and stood by the tomb of the famous Black Prince. From Chester I went down to Folkstone. There I spent the Sabbath, and heard two good sermons which refreshed me not a little. Monday morning I took the boat over to Boulogne. It was at Boulogne that Napoleon gathered his army and his barges for the threatened invasion of England. After a short stay in Paris, I made the long journey to the south of France over the Alps to Turin, and thence to the Waldensian village of Torre Pellice, where I spent Sunday and worshipped with those noble Protestants. In the Church Bulletin, and in my sermon in the Series Found on Ancient Highways, I told you of what I saw and heard there. From Italy I went north to Davos in the eastern part of Switzerland, and after ten days resting there again invaded Italy with my sister and nephew. We saw Bologna, Ravenna, where Dante lies buried, Rimini, where Julius Caesar crossed the Rubicon, and thence to the ancient mountain republic of San Marino, a wonderful little state all by itself, perched high on the rocks overlooking the Adriatic. We motored from San Marino, first to Urbino, where Raphael was born, and the next day to Gubbio, one of the most interesting of the hill towns of Italy, streets so narrow that the automobile could hardly get through it. It was at Gubbio that St. Francis is said to have tamed "Brother Wolf," who had been terrorizing the community with his savage onslaughts. From Gubbio we went to Assisi, high up on the mountain side and overlooking the valley of Spoleto. There, and at St. Mary's of the Angels, I visited the places associated with St. Francis. From Assisi, we motored across the valley and high up the mountainside to beautiful and medieval Perugia. On one of the days I was there a famous Madonna had been brought in from a country village. Vast throngs were following this image through the streets. Not far from Perugia is Lake Trasimene, where Hannibal trapped the two consular armies and inflicted a crushing defeat upon Rome. I went to the site of the battle, and had some fishermen row me out to St. Francis' Isle in the middle of the Lake. A charming spot, the sort of place where you feel tempted to sit down and forget about the passage of time.

Rome again was visited, with a descent into the Catacombs, another visit to St. Paul's dungeon, the Protestant cemetery, St. Peter's, the Sistine Chapel, the Forum, and a Sunday evening's worship at the Waldensian Church.

Leaving Rome we came north to Genoa, which pleased me beyond almost any city in Italy. Thence through terrible heat and dust to Mentone and Nice, and from Nice through Marseilles and Avignon to Vichy, where we drank of the healing waters. From Vichy to Paris and then the long journey to Cherbourg, where I sailed on the Pennland, August 24th.

Such in brief was my summer itinerary. I am glad to be home again and to find such a great work awaiting me.

THE PRAYER MEETING

You have received notice of the Wednesday Night Services which were resumed Wednesday evening, October 3rd. During these three months, until the new year, I shall speak on the general subject "Wrestlers with God" or "The Great Prayers of the Old Testament." I feel that this will be of interest and of profit to us all, and I ask your earnest and prayerful cooperation in the maintenance of this important service. The complete list of topics will be found on another page of *CHURCH LIFE*.

THE EVENING SERVICE

More and more, I am impressed with the opportunity for Christian witness and work which is afforded by the Sunday evening services. I would like to see our whole Congregation get into the habit of coming to both services, for the coming to one service is a habit, not more easily contracted than coming to two services. Let us keep the banner of our Church and the banner of Christ waving high at the evening services during this winter.

THE NEW CHURCH BULLETINS

You have already noticed the two bronze bulletins which the Trustees have erected at the Sixth Avenue entrance of the Church, and the one which is on the Oliver Avenue wall. These handsome and expensive bulletins will, I am sure, be of real worth to our Church, and will let every passer-by know where the First Church stands, and also what it stands for.

A FRIENDLY VISITATION

I am still pursuing the task set before me when I first came to the Church, of visiting all the members and families of the Congregation. Of course in a great many cases I found no one at home, or families had moved elsewhere and left no address. It is altogether probable, too, that quite a number were missed through almost unavoidable errors in the compilation of the records of so numerous a congregation. Nevertheless, I feel that the investment of time and energy was well worth while. Naturally, I could not attempt to continue such a course of visitation and carry the other burdens and responsibilities of my ministry at the First Church. But I shall always be ready to respond in cases of sickness, sorrow, death, or where the presence and the counsel of the minister can be of help. Let no one, therefore, hesitate to call upon me.

Information gleaned from these rounds of pastoral visitation have convinced me of the advisability of a general visitation of the entire membership by a large group of friendly visitors. My plan is to call upon several hundred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me in this work, and then on a given Sunday afternoon, or during a stated week, these several hundred visitors will call

upon the three or four names given to each one, and leave at the home, or with the individual, a greeting from the Pastor and the Session of the Church.

There are a number of advantages in this plan. In the first place, it will help us to locate the present membership of the Church in a way that could not be done by the prolonged visitation of several ministers. In the second place, it will furnish the Session with important information as to the present condition of our Congregation. And last, but not least, it will let the pastor know where there has been sickness, or trouble, or other conditions which give him an opportunity for special service.

I hope that all those who are asked to assist in this work will encourage me by an immediate response. The work will be so divided that it will be easily accomplished, and will lay no heavy burden upon anyone.

MORE ENDOWMENT

Recent munificent gifts to two Presbyterian Churches in Pittsburgh will serve to remind the members of our own congregation of the need of an increase in our available funds, of the work of the Church. For those who desire to devote their means to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and the good of mankind, the work of the First Church in Pittsburgh presents an opportunity unsurpassed in all the world.

Having taken the great prayers of the Old Testament as the subject for the Wednesday night meeting, let us all give more thought and more time to prayer in our Church life. With that in mind, I ask you to remember the life and works of the Church in your prayers, praying that God would honor Jesus Christ in this Church, and that through our ministry many souls shall be brought unto Him.

Faithfully yours,

CLARENCE EDWARD MACARTNEY.

First Church Life

Vol.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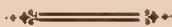
OCTOBER NUMBER

No. 9

THE PRAYER OF ABRAHAM

Genesis 18:23, 24, 25

First Address in the Wednesday Night Series on
"Wrestlers With God."



Abraham is the loftiest character of the Bible, but for that very reason he is the loneliest, even as the loftiest mountains are the most isolated and solitary. In his great oration delivered at the unveiling of the Lincoln Memorial at Hodgenville, Kentucky, President Wilson said of Abraham Lincoln:—"I have read many biographies of Lincoln; I have sought out with the greatest interest the many intimate stories that are told of him, the narratives of nearby friends, the sketches at close quarters, in which those who had the privilege of being associated with him have tried to depict for us the very man himself 'in his habit as he lived'; but I have nowhere found a real intimate of Lincoln's. That brooding spirit had no real familiars. I get the impression that it never spoke out in complete self-revelation, and that it could not reveal itself completely to anyone. It was a very lonely spirit that looked out from underneath those shaggy brows and comprehended men without fully communing with them, as if, in spite of all its genial efforts at comradeship, it dwelt apart, saw its visions of duty where no man looked on."

We hear the voice that calls to Abraham out of Ur of Chaldees and we follow

him as he goes out not knowing whither he went. We wait with him through the long years for the fulfillment of the promise. We climb with him the steep slopes of Moriah and look with awe on his readiness to sacrifice the child of the promise. We bow with him at his altars of prayer. We follow him to battle against Chedorlaomer, and we hear his earnest intercession for the cities of the Plain; and we stand with Isaac and Ishmael as they bury their father in the cave of Machpelah. But at the end of the journey from Ur of Chaldees to far distant Machpelah, how little do we understand him! Isaac we understand, Jacob we know, Joseph we have shed our tears over; Saul, David, Samuel — all these we feel we have an affinity with. But Abraham's "brooding spirit had no familiars." There he is, a great mountain rising over the dull plains of history, wrapped in awe and mystery.

But he whose spirit had no familiars was the Friend of God. That much we would know of him, even if Isaiah and James had not handed down to us that unique description. Wherever Abraham went, he built an altar unto God. "And there he builded an altar unto the Lord, and called upon the name of the Lord."

upon the three or four names given to each one, and leave at the home, or with the individual, a greeting from the Pastor and the Session of the Church.

There are a number of advantages in this plan. In the first place, it will help us to locate the present membership of the Church in a way that could not be done by the prolonged visitation of several ministers. In the second place, it will furnish the Session with important information as to the present condition of our Congregation. And last, but not least, it will let the pastor know where there has been sickness, or trouble, or other conditions which give him an opportunity for special service.

I hope that all those who are asked to assist in this work will encourage me by an immediate response. The work will be so divided that it will be easily accomplished, and will lay no heavy burden upon anyone.

MORE ENDOWMENT

Recent munificent gifts to two Presbyterian Churches in Pittsburgh will serve to remind the members of our own congregation of the need of an increase in our available funds, of the work of the Church. For those who desire to devote their means to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and the good of mankind, the work of the First Church in Pittsburgh presents an opportunity unsurpassed in all the world.

Having taken the great prayers of the Old Testament as the subject for the Wednesday night meeting, let us all give more thought and more time to prayer in our Church life. With that in mind, I ask you to remember the life and works of the Church in your prayers, praying that God would honor Jesus Christ in this Church, and that through our ministry many souls shall be brought unto Him.

Faithfully yours,

CLARENCE EDWARD MACARTNEY.

Although spoken by the Friend of God, I ask you to think of the humility and reverence of this prayer. "Behold now I have taken upon me to speak unto the Lord, which am but dust and ashes." There is an unmistakable tendency today to speak slightly of those old hymns and prayers which described man as dust and ashes. A recent lecturer on free thought declared that he embarked on his new religion because, brought up in the Episcopal Church, he wearied of describing himself as a "miserable sinner." It is only natural that such people should cease to pray. Only the humble can feel any need for God, and His ever present aid is given only to the humble and contrite in spirit. Out of humility comes reverence.

When the other men were gone and the Third Person remained, "Abraham drew near unto God." That phrase lingers in a thousand prayer-books and is repeated by good men and women in public prayer the world over. His prayer is earnest, definite, importunate, yet as we read it, we see in Abraham an everlasting example of reverence. Personally, I have no sympathy with those prayers which are addressed to men rather than to God, and call upon the Almighty and Invisible God in terms of familiarity which do not, as they imagine, indicate that they know God well, but show on the contrary how little they conceive of His majesty and holiness. "Be not rash with thy mouth, and let not thine heart be hasty to utter anything before God: for God is in heaven, and thou upon earth; therefore let thy words be few."

Even the very posture in prayer is important. The most reverent attitude is, I think, the worshipper standing with bowed head, as one sees in public worship in Scotland and as I witnessed it among the Waldensians in Italy last summer. But whether kneeling or standing, in public or in private, let the body speak the reverence of the soul.

David Livingstone, in his diary, relates how careful he was in the wilds of Africa, removed from all that he had known and seen, to observe the reverent attitude in prayer. Even till death he was faithful in this, for he died upon his knees. A weak, fever-stricken, dying man might have been excused from the physical effort of prostration, but this man left his cot and died upon his knees. Professor Blakie in his classic biography of Livingstone thus describes the scene:—"They laid him on a rough bed in the hut where he spent the night. Next day he lay undisturbed. He asked a few wandering questions about the country—especially about the Luapula. His people knew that the end could not be far off. Nothing occurred during the early part of the night, but at four in the morning, the boy who lay at his door, called in alarm for Susi, fearing that their master was dead. By the candle still burning they saw him, not in bed, but kneeling at the bedside, with his head buried in his hands upon the pillow. The sad, yet not unexpected truth, soon became evident. He had passed away on the furthest of all his journeys, and without a single attendant, but he had died in the act of prayer; prayer offered in that reverential attitude about which he was always so particular; commending his own spirit with all his dear ones, as was his wont, into the hands of his Saviour, and commending Africa, his own dear Africa, with all her woes and sins and wrongs, to the Avenger of the oppressed and the Redeemer of the lost."

This first prayer of the Bible was a prayer for others, a prayer of intercession. Here prayer reaches its noblest eloquence. The secret of the Lord is with them that fear Him, and when the Lord had announced to Abraham His purpose of destroying the wicked cities of the plain, Abraham did not doubt the justice of God, nor the wickedness of these people, but immediately he begins to intercede for them. His nephew Lot, it is true,

That verse describes his life as well as any other. He blazed his trail in Canaan by the altars which he built. We can trace his wanderings by the altars which he left behind him. Some men are traced by their follies; some by the enmities they leave behind them; some by their cruelties; some by the thorns which they have sown in the night of sin or hate. But Abraham is traced by his altars. Towards God his life was easy, natural, familiar. On this side his life is a model for all the ages of faith after him. Only once, when the first promise of an heir was given, and a horror of great darkness fell upon him, is there anything in Abraham's relationship with God which suggests fright or terror. For the most part, his meetings with God were on the clear, level ground of friendly intercourse.

If we omit the cry of Cain, this is the first prayer on record in the Bible. The Father of the Faithful is the first to teach us how to pray. His prayer was that which came from a friend of God. The friends of God are not the only ones who may pray. His bitterest enemy may call upon His Name; the soul which has lived without a thought of God, suddenly overwhelmed in the floods of life, out of the depths may call upon God to help him and deliver him. But as the conversation of strangers must necessarily be different from the conversation of friends, so there is a kind of prayer that comes only from the lips of the friend of God. And who is the friend of God? Is God like great personages of earth who will admit to their friendship only a few elected persons? No; the friend of God, so far as we can judge, is the man who does the will of God. "Ye are my friends", said Jesus, "if ye do whatsoever I command you." Abraham did what God told him to do. When God called he answered, took the great venture of faith, and went out not knowing whither he went.

The youthful Ian MacLaren, visiting his uncle in the Highlands, looked with wistful admiration on a white haired elder in the kirk who passed the sacred cup at Communion. When he saw him the next day breaking stone on the road, he was amazed and asked his uncle how it was that the bearer of high office yesterday, today should be laboring on the highway. His uncle told him that James was an elder in the kirk because he knew more about God than any other man in the village. He was a friend of God. Abraham was an old man. Indeed, although the youngest may be His friend, that title, the "Friend of God" we like to bestow only upon those who in God's service have weathered the storms and temptations of many years. I am glad that the first prayer in the Bible is of this nature. I rejoice that it was an aged servant of God whose prayer, still a fragrant incense, speaks to us across these dim centuries. The line of Abraham is not extinct. They are the glory of all our churches. Voice of scoffing, mocking, worldling, barking critics, honest or dishonest doubter, be still, while the aged friend of God prays. Remove thy shoes from off thy feet, for the ground upon which thou standest is holy ground. God is there speaking with His Friend and His Friend with Him. Yes, here is an argument and witness for Christianity which is beyond the contagion of this world's slow stain. Even the angels, I can imagine, interrupt their high melody to catch the harmony and breathe the incense that goes up from the heart of some aged saint, who has got beyond the weak and beggarly elements, and like Bunyan's immortal traveler, has reached the high country, out of reach of Giant Despair and Doubting Castle, in sight now of the city to which he is going, meeting sometimes the inhabitants thereof, for in this land the shining ones commonly walked, for it was "on the borders of heaven."

is to dispose of God, for justice and judgment are the habitation of His throne. He must do right and He must judge the wicked. Mere sentiment cannot stand in this discussion unless due regard be paid to the highest of all sentiment, the sentiment of justice and judgment.

The thesis laid down by Abraham must stand. The Judge of all the earth will do right. The thing done is not right because He does it, but because He is God, He will do nothing but the right, for that alone would conform with the perfection of His being. No excuse for irreligion can be made on the score of injustice. God will do right, whatever man teaches or says. With that grand fundamental attribute of the Deity firmly fixed in our minds, we must confront the questions that rise when, with the proclamation of life there goes a proclamation of death, when the risen Christ commands His disciples to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saying that he that believeth shall be saved and he that believeth not shall be condemned. The lifeboat putting out from the shore means that there is a wreck and that a ship is sinking, and that lives may be lost. The offer of salvation means that humanity has suffered shipwreck and men may perish.

What will God do with the heathen, you ask? They have never heard of the name of Jesus. Will they all be condemned? God will do with the heathen what He will do with you and with me; what is right. If men without the tidings of Christ will be judged by their own consciences, is it not better to leave them without the Gospel, since the majority only reject it, and thus come under condemnation? No; if any heathen obeys the light of conscience, he will be saved, and yet saved through Christ, saved on the ground of what Christ has done for him. But think how often you and I, with all the light of Christian centuries playing about

us, sin against the light of conscience. What likelihood is there, then, that the heathen will follow the light of his conscience? Christ did not tell us to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for the sake of condemning them, but that they might repent and live. "Follow thou me, keep my commandments"—that is our whole duty as Christians. The day of judgment—none of us can take charge of that. The Judge of all the earth will do right.

"God's justice is a bed

*Where we our anxious hearts may lay,
And, weary with ourselves, may sleep
Our weariness away."*

The prayer of Abraham was an example in perseverance. At his first approach to God, Abraham prayed that God would spare Sodom and Gomorrah if he found fifty righteous men therein. When the Lord said that He would spare the city if such a number could be mustered, Abraham proceeded further and asked that the city be spared if forty-five could be found. To this also the Lord assented. Then Abraham asked Him to spare it for the sake of thirty, then of twenty, and, finally, of ten. Unfortunately, even that small number of righteous men could not be found in the cities, and doom and judgment fell upon them.

We are not to look upon this reduction from fifty to ten just persons, for whose sake the city might be spared, as a sort of bargaining on the part of Abraham with God. Rather, is it an example of perseverance in prayer, and how one prayer answered gives us confidence to come to God again. When the Lord promised to spare the city if fifty righteous men could be found in it, Abraham was prompted to reduce the number, first, to forty-five, then to thirty, then to twenty, and finally to

lived there, and the thought of Lot may have entered into this earnest supplication of Abraham. But Lot, even from the human standpoint, did not deserve the prayers of his godly uncle. He was disrespectful and ungrateful and self-willed. Nevertheless Abraham prayed for him. The Friend of God must have abhorred the wickedness of the cities of the Plain, but when he hears of their impending doom, the fountains of pity are opened in his heart, and he asks God to spare them if but ten righteous men are to be found in them.

Mysterious channels of power are opened by earnest intercession. More things are wrought by prayer than this world dreams of. In the appendix to Dick's *Philosophy of the Future State*, the book that converted David Livingstone, we have the story of a prayer made for the conversion of Lord Byron by a Mrs. Shepherd of Somersetshire. The prayer was found among her papers after her death and sent to Byron. It is as follows: "O my God, I take encouragement from the assurance of thy word, to pray to Thee in behalf of one for whom I have lately been much interested. May the person to whom I allude (and who is now, we fear, as much distinguished for his neglect of Thee, as for the transcendent talents Thou has bestowed on him) be awakened to a sense of his own danger, and led to seek that peace of mind in a proper sense of religion, which he has found this world's enjoyments unable to procure. Do Thou grant that his future example may be productive of far more extensive benefit, than his past conduct and writings have been of evil, and may the Sun of Righteousness, which, we trust, will, at some future period, arise upon him, be bright in proportion to the darkness of those clouds which guilt has raised, and soothing in proportion to the keenness of that agony which the punishment of his vices has inflicted on him!"

To this prayer, Lord Byron responded

in one of his best moods: "Sir, I have received your letter. I need not say that the extract which it contains has affected me, because it would imply a want of all feeling to have read it with indifference. . . . Your brief and simple picture of the excellent person, whom I trust you will again meet, cannot be contemplated with out the admiration due to her virtues and her pure and unpretending piety. I do not know that I ever met with anything so unostentatiously beautiful. Indisputably, the firm believers in the Gospel have a great advantage over all others—for this simple reason, that if true, they will have their reward hereafter; and if there be no hereafter, they can but be with the infidel in his eternal sleep. . . . I can assure you that not all the fame which ever cheated humanity into higher notions of its own importance, would ever weigh in my mind against the pure and pious interest which a virtuous being may be pleased to take in my behalf. In this point of view, I would not exchange the prayer of the deceased in my behalf for the united glory of Homer, Caesar and Napoleon."

This prayer of Abraham raised a great problem of religious faith. When he heard the tidings that God would destroy these cities, Abraham was shocked; his faith staggered. He was confronted by God, not now the source of promise and blessing, but God the Avenger, God the Judge. Involuntarily comes the expostulation and the question, "That be far from Thee to do after this manner, to slay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and that the righteous should be as the wicked, that be far from Thee. Shall not the Judge of all the earth do right?" We may be glad that the Friend of God had this old difficulty about the judgments of God and that he raised this great question so early in the history of mankind.

An easy way to dispose of the problem is to dispose of all judgments. But that

OUR SUNDAY SCHOOL



It was an enthusiastic crowd of 873 that gathered together for the opening session of our Sunday School, on September 9th. Everybody seemed glad and eager to start another year in our school. The average attendance for the month of September was 914.

Rally Day was observed last Sunday, October 7th, with an attendance of 1030. We were glad to have our former superintendent, Dr. Maitland Alexander, with us and to hear his words of encouragement and cheer. The different departments of our school were represented by short talks—Miss Aldora Smith for the girls and young women, Albert Grace for the boys and young men, Mrs. Margaret Woods for the Mothers, and Mr. F. C. Osburn for the men. Miss Margaret Clancy of the Children's Division had charge of the promotion exercises of this Department and gave diplomas to twelve girls graduating from her division. Miss Carolyn Dentler is the teacher of this new class, and we welcome them into the main department of our school.

Mrs. Brandt's class of girls celebrated their thirteenth anniversary last Sunday. The class started with six girls and on this birthday had 51 present. Miss von Hof's class also celebrated their third anniversary and had thirteen girls present.

We had the great pleasure of listening to the G. A. Tindley Gospel Singers, a colored septette from Philadelphia at our opening and closing exercises.

Our Church Attendance Contest is still going on and the classes are very much interested. The evening Church Attendance is counted and the Men's Bible Class are at the top this month.

A New Member Contest began last Sunday and will continue to the first of December. Special award will be given to the class receiving the largest number of new members and to the individual bringing in the largest number. The teachers,

substitute teachers and officers of our school were delightfully entertained by Dr. Macartney in his home on Friday evening, October 5th.

We are glad to welcome visitors and strangers at any of our sessions, and extend a cordial invitation to any who are not affiliated with any other Sunday School.

MEN'S BIBLE CLASS



The Men's Bible Class has entered upon the work of the fall and winter with renewed interest. There is an exceptionally good attendance. We extend a hearty invitation to the men who are uniting with the Church today to visit us. You will receive a hearty welcome. We meet in the rear of the auditorium, and are through with the study of the lesson in time for the members to attend the closing exercises of the School.

MEN'S KOREAN CLUB



Dr. Moffett, of Pyengyang, Korea, where the work is supported by the First Church, will be our guest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Club, Monday evening, October 29th. This will be an unusual opportunity to hear of our work in Korea.



YOUNG PEOPLE'S SOCIETY



The regular Sunday evening meetings of the Young People's Society were resumed Sunday evening, October 7th. The subject was "Workers Together With God" and Dr. Franklin B. Miller was the leader. The meeting was well attended. We were all glad to be back with one another again and are ready to take up the winter's work with renewed interest.

A series of interesting topics have been chosen for the fall and winter meetings. Topic cards announcing these meetings and their respective leaders have been printed and can be secured from Mr. Edward Graff, Chairman of the Lookout Committee.

The first business meeting and social

ten. Our Lord told two parables teaching men that they ought always to pray, and not to faint. One, the parable of the friend at mid-night, for whose entertainment the man whom he had come to visit knocked importunately upon his neighbor's door, until the reluctant slumberer arose and gave unto him. The other, the story of the unjust judge and the importunate widow. The unjust judge feared neither man nor God, but lest the widow should weary him by her continual coming, he avenged her of her adversary. In those parables our Lord must not be misunderstood as likening God our Father to a selfish neighbor, who gives to His friend only to be rid of him, or to an unjust Judge, who administers justice only to save himself from annoyance at the hands of his petitioner. What He was emphasizing was the fact that we may not always receive at first that for which we pray, and that we ought to persevere therein, waiting earnestly upon God, wrestling with Him as Jacob did at mid-night by the fords of the Jabbok, or as Abraham did when in the desert twilight he pleaded for Sodom and Gomorrah.

The Bible echoes from beginning to end with the accents of prayer, and it is worth remembering that the first recorded prayer of the Old Testament is this prayer of intercession, when Abraham prayed for the cities of the plain. Men come near to God when they pray for others. A well known minister of the last generation said that his mother and two other mothers in the neighborhood of his boyhood home made a pact that they would meet and pray together for the salvation of their children on one day of every week. One by one, all of those children came into the Kingdom of God, until this afterwards distinguished minister made his confession of faith and completed the number. What sacred objective for intercession have fathers and mothers set before them!

Dr. Charles Parkhurst, the distinguished preacher and reformer of New York, in an address in which he dealt with his early religious life, related how he had often heard his father pray in the Church, at the family altar, and at the family table. But it was only when he heard him praying aloud on his knees in the barn, that he knew the reality of prayer and the deep reality of the religious life.

For there is no prayer which so strikes the deep chords of a true relationship with God as the prayer of intercession. Our prayers will be more earnest and our prayer seasons more fruitful and more joyous, if we shall consecrate and center upon certain causes and upon certain persons. We all can think of persons for whom we ought to pray and for whom Christ died. Devout Catholics when they part have a custom of saying one to another, "Pray for me." Whatever formality there may be in that request, it is a truly beautiful and appropriate thing that one believer in God should ask the prayers and the intercessions of another friend of God. She has long since gone to her reward, but my mind now runs back to the old home on the banks of the river, and I can see the room which was her trysting place with God, and where at a certain hour of the forenoon, she was wont to kneel in intercession for the salvation of her children. Truly our mother's works do follow her, now that she herself rests from her labors; and not the least potent and the least blessed among those works is the daily influence of her prayers on our behalf. No rude clamor of the world can altogether dim the sweet reverberation of her prayers in the minds of her children; and if the base solicitations of the world should ever be heeded and obeyed by her children, it will be in spite of, and not because of, a mother's earnest prayers.

CHURCH NURSE



A busy summer was spent by the church nurse at the Girls' Summer Camp. While there were no serious illnesses, the doctor and nurse were both busy treating sore throats, ear-ache, toothache, stings, sunburn and sprained ankles. One hundred and six patients were treated during this time.

The usual calls for food and clothing have started with the opening of our fall work, and responses to these are much appreciated by the nurse. We are hoping for our usual large number of children in the nursery during the Mothers' Meeting this winter.



MOTHERS' CLUB



The MOTHERS' CLUB held its opening meeting Wednesday afternoon, October 10th, with a wonderful attendance.

Dr. Macartney was the speaker of the afternoon and Mr. Will Rhodes the soloist.

Every Mother was so happy to be back after the summer vacation to renew old acquaintances and make new friends.

This club of Mothers with the wealth of opportunities it affords is indeed a challenge to the leaders to make these meetings a real contribution to the lives of these women and the homes they represent.

In our work this winter let us consider the words of Jesus who said, "I am come that they might have life, and that they might have it more abundantly."



THE MOTHERS' BIBLE CLASS



The Mothers' Bible Class has shown by an average attendance of 87 since the opening of Sunday School what this class means to the lives of its members. They have made this month two contributions from their missionary fund. One of \$25.00 to the Red Cross, and one of \$25.00 to the Salvation Army.

A very pleasant day was spent by 92 members of the class, Tuesday, October 2nd, at the plant of H. J. Heinz. After

going through the plant and listening to a talk on the various uses of the Heinz products, lunch was served where quite a number of the "57 varieties" were enjoyed.



PRAYER CIRCLE



The members of the Prayer Circle have been wonderfully faithful through the entire summer in their attendance at the Wednesday afternoon hour for prayer. The number varied from twenty-nine to fifty-four.

Some of our members have been called to their heavenly home. Among them one who was the loved leader for many years, Mrs. James H. Snowden. "She being dead yet speaketh."



CAFETERIA



Vacation days are over and everyone is back again anxious to commence the fall and winter activities.

With the opening of the Boys' and Girls' Clubs, and the regular meetings of other organizations, most evenings in the week are booked. Nevertheless, there are a few open dates, and we again appeal to those Sunday School classes contemplating a dinner in the Church Cafeteria, to combine small groups, as it was so successfully done in the past season, and thus cooperate with us in our labors of fellowship and Christian love.



ALEXANDER AUXILIARY



The October meeting of the Alexander Auxiliary was well attended and a number of new faces were in evidence, indicating a growing membership.

The Alexander Auxiliary was meant primarily for the busy women who were unable to attend afternoon meetings, and while the attendance has been very gratifying, the organization feels that there must be a goodly number of business women connected with the First Church who are not linked up with any definite

will be held Monday, October 15th, in the church. Supper will be served at 6:30. This is the first social of the year and we would like to have a large attendance. If you have never attended one of the Young Peoples' socials or do not belong to the Society, come out and get acquainted and then, if you like us, join our ranks.

The object of the Young Peoples' Society is to train young people for Christian leadership and we are desirous of having more of the young people of the Sunday School in our Society. We have plenty of room for new members so come and help us to make this year a memorable one in our Society.

GIRLS' CLUBS

Another Camp Season has passed into history and a new and beautiful chapter has been written into the lives of the two hundred girls who were privileged to spend vacation days in that attractive spot on Chestnut Ridge where our Church Camp is located.

To many of the girls this was their first camp experience and it was indeed a joy to share in these enthusiastic first impressions.

Everything combined to make the month at Camp a period of unmarred happiness—and the old campers, as always, pronounced this year "the best camp ever".

It is difficult to adequately express to those who contributed to sending to camp girls who could otherwise not have gone, the expressions of appreciation and delight and the desire to some day be able to give another girl the happiness which someone had given them.

Impatiently the girls have looked forward to the reopening of the Clubs. Last Thursday evening, hundreds of girls thronged the Church to register for the classes which have been organized for their pleasure and instruction.

Classes, taught by trained Christian women, are conducted in Bible, English Home Nursing, First Aid, Chorus, Ukulele, French, Current Events, Dressmak-

ing, Millinery, Art Needlework, Lamp Shade Making, Cooking, Dramatics, Novelties, Gymnasium, Wood Painting, China Painting, and Textile Painting.

Our Church is giving the young women of the city a splendid opportunity for a profitable investment of their leisure.

Dr. Macartney brought a very helpful message to the Thursday Noon Club for Business Women at the opening meeting this week. This Club Meeting makes a real contribution to the devotional life of the more than a thousand business girls in its membership and the personal interest and friendship of the leader, Mrs. John A. Bell, seems to draw the girls closer each year.

One of the most gratifying phases of our Club life is that the enthusiasm for the reopening of the activities is not confined to the members of the Clubs but is equally demonstrated among the volunteer workers—the serving committees, and all those who do the work that makes the Club machinery run smoothly.

There are a number of our Club members—fine, efficient Christian girls—who are out of employment. If there are any who are in a position to employ or who know of vacancies in offices or stores, we would appreciate your cooperation.

BOYS' CLUBS

The Clubs for Boys and Young Men will open Tuesday, October 16th. Boys may come to the Church directly from school at 4:30. Supper will be served at 5:45. The price this year will be twenty cents. Registration will take place following devotional exercises at 6:30. Fees for this year remain at 50 cents.

Plans are being made for the best year ever. Volley ball, basket-ball, bowling, gymnasium work and swimming classes are on the program.

A special invitation is given to the members of our Sunday School to take advantage of the benefits of the First Church Boys' Club.

This change has been made so that the women of the Church may have an opportunity to hear Dr. Moffett of Pyengyang, Korea.

We are looking forward to an unusually interesting meeting and hope to have a large attendance.

—❖—
CHURCH ITEMS

—❖—
SUNDAY EVENING SERIES
—❖—

This evening, October 14th, Dr. Macartney will begin a Series of Sermons to Young Men and Young Women on the general subject "Life—its Greatness and its Peril." Cards announcing the topics are placed in the pews.

October 14, "Temptation—Every man's Battle."

October 21, "The Sword of David—"The Income of a godly Youth."

October 28, "Weak Moments—Pottage or Birthright?"

November 4, "A Tomb without a Tenant—A Murdered Ambition."

November 11, "The Spectre of the Catacombs—A Man who Turned his back to Christ."

November 18, "Come Before Winter."
(Annual Sermon on Opportunity.)

—❖—
"MINE OWN CITY—MINE OWN COUNTRY"
—❖—

The Presbyterian Banner of October 11th contains Dr. Macartney's sermon—"Mine Own City—Mine Own Country".

—❖—
BEQUEST TO THE CHURCH

Remember Christ's Cause. There are many who plan to make a gift to the Church and the cause of Christ, but fail to make definite provision. What better place in which to invest for the future and for Christ than the First Church? The following forms will serve the purpose:

1. A Bequest of Money. "I give and

devise to the Trustees of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Pittsburgh

Dollars."

2. Real Estate. "I give and devise to the Trustees of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Pittsburgh following described real estate (here the real estate should be sufficiently described.)"

3. Residuary Clause. "All the rest, residue and remainder of my estate I give, devise and bequeath to the Trustees of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Pittsburgh."

—❖—
WEDNESDAY NIGHT PRAYER MEETING
—❖—

The Wednesday Night Prayer Meeting, meets every Wednesday evening, at 7:45 o'clock in the Chapel. This winter Dr. Macartney will deal with the general subject—"Wrestlers with God" or "The Great Prayers of the Old Testament." Topic cards are placed in the pews and members of the Church are asked to distribute them.

October 3rd—"Abraham—For Others."
October 10th—"Jacob—For God's Blessing."

October 17th — "Moses — Unanswered Prayer."

October 24th—"Balaam—Great Praying — Poor Living."

October 31st—"Elijah—Despondency."

* * * *

November 7th—"Elisha—For Faith Triumphant."

November 14th—"David—Over the Lost."

November 21st—"Manasseh—Repentance."

November 28th—"Hezekiah — After the Storm."

* * * *

December 5th — "Jeremiah — For a Change."

December 12th — "Jonah — Out of the Depths."

December 19th — "David—Forgiveness."

December 26th — "Joshua — For More Time."

missionary interest and they wish to extend to all such an invitation, and an opportunity, to join with them in so vital a part of the life of our Church.

THE NEW CENTURY BAND

The New Century Band received the following letter from Mr. and Mrs. Sam Higginbottom:—

January 8th, 1928.

Dear Friends:

With the back of the car loaded to the roof with Christmas presents we drove to the leper asylum for the Christmas dinner and treat. A glorious riot of color in the mufflers aroused exclamation of joy. The lepers were already seated on the ground in the hibiscus hedged garden next to the Church. Their shining brass vessels were being filled with Indian food such as they love. When they saw us and the car, some rose to their feet to stare, while others, unable to stand, cheered and nudged their neighbors.

Visitors, including Mrs. Higgins of Glenshaw, Pa., who is visiting her daughter, Mrs. Hazlett, immediately began the distribution of the presents. I had previously taken out 70 small mufflers and sent to Dr. Schuyler of the Amballa Asylum, who was happy to get them as she had none for her lepers. This also saved me from the trouble I have sometimes had, of trying to give out mufflers unequal in size and shape. The regulation size is one by four feet. Anything less is likely to cause unhappiness. Anything larger is a shawl and brings joy to a boy or girl. As the mufflers were passed around to the men, eager hands, more or less deformed, went up to receive them while the recipients smilingly said "salaam" as a thank you. The pain-harrowed faces of those unable to leave their beds brightened as trembling hands turned the gifts over and over, smiling at the lovely colors in the mufflers.

Sincerely,

Signed—ETHEL C. HIGGINBOTTOM,
SAM HIGGINBOTTOM.

VOYAGERS AND LIGHT BEARERS

The Voyagers and Light Bearers were joyously entertained at luncheon by Mrs. Irwin, on the last Saturday in September. Following our delicious "party", the Voyagers held their annual election. The new officers are:

LUCILLE KNIGHT	<i>President</i>
MARGARET WILLARD	<i>Vice-President</i>
MARY JEAN GOVE	<i>Secretary</i>
ALICE MORGAN	<i>Treasurer</i>

The Voyagers had decided to review a study book this fall, and we were therefore happy to find, at our regular meeting Monday evening, *Camp Fires In The Congo* awaiting us—with Mrs. J. Wade Miller, who skillfully introduced to us the fascinations of little pock-marked Chama in his travels through the jungle.

The Light Bearers, under the kindly care of Mrs. Sam Steinhilper, made blue friendship chains and had a story hour.

MEN OF THE FROGS

During the summer months, the Men of the Frogs held joint social meetings with the New Century Band on their regular meeting nights. The suppers, good fellowship and athletic events were immensely enjoyed by all and we were glad to have many friends spend an enjoyable evening with us at Riverview Park.

The first meeting in the Church on October 8th was very well attended and the topic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World War" was discussed in a thoughtful and enthusiastic manner.

"Harry Houdini" is the topic for the meeting on October 22nd and all men interested in hearing this discussion will be cordially welcomed.

WOMAN'S HOME AND FOREIGN MISSIONARY SOCIETIES

The opening fall meeting of the Woman's Home and Foreign Missionary Society has been changed from the second Friday of the month to Monday afternoon, October 29th.

4.

In Loving Memory of

HETTY MORROW SPEER

1802 - 1887

JAMES RAMSEY SPEER

1796 - 1891

5.

In Memoriam

RICHARD HAYS

1815 - 1877

BOYLE IRWIN

1772 - 1860

ELIZA McCULLY IRWIN

1786 - 1867

6.

*To the Glory of God**and in memory of*

GENERAL JOHN NEVILLE

Born 1731 Died 1803

and his wife

WINIFRED OLDHAM

Born 1736 Died 1797

and

MAJOR ISAAC CRAIG

*an incorporator and one**of the First Trustees**of this Church*

Born 1741 Died 1826

and his wife

AMELIA NEVILLE

Born 1763 Died 1849

7.

In Memoriam

WILLIAM MILLER PAXTON, D. D.

1824 - 1904

(West Wall)

1.

CHARLES HAYS

1822 - 1902

ISABELLA STEELE McLAUGHLIN HAYS

1829 - 1898

2.

In Memoriam

NEVILLE B. CRAIG

1787 - 1863

JANE ANNE FULTON

1789 - 1852

3.

In Memoriam

FRANCIS HERRON, D.D.

1774 - 1860

4.

JAMES LAUGHLIN

1806 - 1882

ANNE IRWIN LAUGHLIN

1813 - 1891

5.

In Memoriam

GEORGE TYBOUT PURVES, D.D.

1852 - 1901

6.

JAMES DALZELL

1800 - 1879

MARTHA DUFF DALZELL

1807 - 1879

7.

ROBERT HAYS KING

1814 - 1895

ANNA DUFF KING

1815 - 1849

MARY PAULEY KING

1824 - 1859

VESTIBULE TABLET

In Memoriam

FRANCIS HERRON, D.D.

Born, June 28, 1774.

Died, Dec. 6, 1860.

Pastor of this Church from
June 1811. to December 1860*A dignified, decided, able, courageous
and courteous man. An ardent Christian,
faithful pastor, impressive preacher, and
an honored Presbyterian, revered by the
Church he served and the city he adorned.*

PREACHING PULPIT

*To the Glory of God
and in Loving Memory of*

MARY McMASTERS JONES

1829 - 1911

ALTAR

*To the glory of God and in loving memory
of*

JACOB PAINTER and MARY HAYS his wife.

IN MEMORIAM

It will be interesting to the members and friends of our Congregation to have a list of the memorials which have been presented to the Church in past years in memory of those who have worshipped in the First Church.

TABLETS

(East Wall)

1.

In Memoriam

JAMES B. MORGAN

1796 - 1889

SUSAN MOUNTAIN MORGAN

1806 - 1867

JAMES B. MORGAN, JR.

1844 - 1915

2.

*To the Glory of God
and In Loving Memory of*

CHAS. E. SPEER

September 8, 1837

May 2, 1905

*"The Path of the Just is as the Shining
Light, that shineth more and more unto
the Perfect Day."* —PROVERBS 4:18.

(West Wall)

1.

JOHN HENRY DALZELL

1834 - 1894

ADELAIDE CHASE DALZELL

1844 - 1902

2.

*"Yea,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Thou art with me, Thy rod and Thy
staff they comfort me."*

*To the Glory of God
and In Loving Memory of*

ANNA DUFF DALZELL

Born, Nov. 27, 1832.

Died, Oct. 15, 1920.

3.

*"But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they shall
mount up with wings as eagles; they shall
run, and not be weary; and they shall
walk, and not faint."* —ISAIAH 40:31.

In Loving Memory of

J. DALZELL McKEE

1884 - 1927

OLIVER AVENUE TABLETS

In commemoration of the grant of this land for the Presbyterian Church and for Trinity Church by the heirs of William Penn in 1787 and in honor of the officers of the Colonial and Revolutionary Armies, who after assisting in the achievement of American Independence were associated with the earlier history of Pittsburgh, many of whom were buried in this enclosure. This Tablet is placed by the Pittsburgh Chapter of the Daughters of the American Revolution, 1915.

OLIVER AVENUE

Under the Golden Lilies of France
this street was dedicated to
the Last Mortal Journeys
of those who perished in
the defense of Fort Duquesne
and was reverently named
L'Allee De La Vierge,
Marked by the Pennsylvania Society
of the Colonial Dames of America
MCMXXVII.

WINDOWS

(East Wall)

1.

In Memoriam

HARMAR DENNY

1794 - 1852

ELIZABETH F. DENNY

1796 - 1878

2.

In Memoriam

WILLIAM ANDREW ROBINSON

1830 - 1902

DAVID ROBINSON

1828 - 1895

3.

In Memoriam

JOHN W. CHALFANT

1827 - 1898

ELLEN M. CHALFANT

1836 - 1910

CALENDAR



Church Services

- Sunday—** 10:45 o'clock, Preaching by the Pastor.
12:15 o'clock, Sunday School.
12:10 o'clock, Men's Bible Class.
7:00 o'clock, Young People's Society.
7:45 o'clock, Preaching by the Pastor.
- Wednesday—** 7:45 o'clock, Prayer Meeting.
-

Men and Boys

- Sunday—** 12:10 o'clock, Men's Bible Class.
12:15 o'clock, Young Men's Organized Sunday School Classes.
- Tuesday—** 4:30 o'clock, Clubs for Boys.
5:45 o'clock, Supper.
6:30 o'clock, Devotional Exercises.
9:00 o'clock, Clubs for Young Men.
-

Women and Girls

- Sunday—** 12:15 o'clock, Organized Sunday School Classes.
- Wednesday—** 1:30 o'clock, Prayer Circle.
2:30 o'clock, Mothers' Meeting.
- Thursday—** 11:30 to 1:00 o'clock, Noon Club and Luncheon for Business Women.
-

Clubs for Young Women

- 5:15 o'clock, Gymnasium.
6:00 o'clock, Cafeteria Supper.
7:00 o'clock, Devotional Meeting.
7:30 o'clock, Classes in—
Dressmaking, Millinery, Cooking, Home Nursing, Etiquette, Lamp Shades, Chorus, Interior Decorating, Gymnasium, Bead Work, Basketry, Novelties, Bible, Dramatics, China Painting, Ukulele, Current Events, English.
- Friday—** 4:30 o'clock, Club and Gymnasium for girls 9-12.
-

Clubs for Girls

- 6:00 o'clock, Supper 20 cents.
7:00 o'clock, Schedule same as Thursday evening.

924 Mc Kenley Ave
Oakland.

Dear Jamie,

Since your good letter came a good many things have happened which we have wished you were sharing with us and now Christmas is almost here, it does seem a pity we can't all be together.

Do you need a good looking dressing gown? If so will you buy one and send me the bill or give me an idea what you want.

If we hurry we may be ready by Christmas. If that doesn't appeal to you, let me know something else.

Monday we plan to move over to ^{for two weeks.} San Francisco to a little place near Cowain Casa (your great uncle Edward's daughter) He all have so many medical and dental appointments they can't very well be managed

from this side.

Howard and Tommy are both to wear braces on their teeth; Tom only for a few weeks.

Sam and Howard are starting off now to the Y. They are getting a little athletics and swimming there three times a week. The schools close this week and were too busy with programs etc. to register new boys even for a day.

We all miss the ocean but it is strange what a grip the places we have known familiarly in childhood get on us. There is a certain kind of peace with one's environment that settles down there in spite of changes. Fortunately they can't change the bay and the ferries very much.

We motored over to San Rafael last week. Your house looks very well kept up and prosperous.

San Rafael is growing, too, de-
cidedly. I should hate to see that
property sold. It may not be long
before it increases very greatly in
value.

How are you enjoying your studies
and professors, college atmosphere
etc.

With love from all of us -
Tommy says "tell Jamie I had
a good time in Madison and
I love him."

Affectionately,
Mother.

“Are Foreign Missions Done For?”

By
ROBERT E. SPEER

50 MAR 1928

*Sent with the compliments of the author
and of a few friends
to some of the individual men and women
of our Presbyterian churches
December 1, 1928*

undeniable fact that it was chiefly the example shown by Christianity that has stimulated the other religions and has changed the whole religious world of Japan."

In the third place note the increasing volume of condemnation everywhere of whatever is un-Christlike. Sometimes men acknowledge frankly that their disapproval rests on His character and standard and often they deny it, but in spite of their denial the mere condemnation can be traced straight to Christ. In the matter of caste and of the outcaste, and of the rights of women in India, for example, it is Christ's influence which is forming the new conscience, whether it is His authority that is openly cited or whether His influence has forced men to find authority for His ideals in their own books or in their own hearts. It is impossible not to see this influence at work in judgments like Gandhi's and Lajpat Rai's on the place of women and child marriage in India, quoted in a debate in the British Parliament in 1927. The speaker said:

"The other day I came across an article in the paper which Mr. Gandhi edits, called 'Young India,' dated 26th August, 1926. In it he was quoting with approval from an article on the subject of child marriages and enforced widowhood:

'It is sapping the vitality of thousands of our promising boys and girls on whom the future of our society entirely rests. It is bringing into existence every year thousands of weaklings, both boys and girls, who are born of immature parents. It is a very fruitful source of the appalling child mortality and stillbirths now prevailing in our society. It is a very important cause of the gradual and steady decline of Hindu society in point of numbers, physical strength and courage and morality.'

"That is a quotation from an article which is quoted with approval by Mr. Gandhi himself. Let us quote something even stronger, from a gentleman well known to many in this house, with whom certainly one right Hon. Gentleman opposite and myself had been acquainted for a great many years past, Mr.

Lajpat Rai. Mr. Lajpat Rai, speaking before a Hindu Conference in Bombay in 1925, said this of the system of widowhood that prevails in the Hindu community, and especially child widowhood:

'The condition of child widows is indescribable. God may bless those who are opposed to their re-marriage, but their position induces so many abuses and brings about so much moral and physical misery as to cripple society as a whole and handicap it in the struggle for life.'

"Those are two rather striking quotations from Indians themselves. I will make an earnest appeal to Hon. Members on both sides of the Committee not to ignore these factors when dealing with the moral and physical progress of the Indian people."

And note the words of S. N. Mallik about caste in a public lecture in India in the spring of 1927:

"The most potent of the social institutions,—viz., caste—which mainly produced the idea of the 'immutability of the East' in the Western mind, is the one that has been most seriously affected. True it is that it is not dead as yet, but it is, I am glad to say, in an almost moribund condition now. The first blow which shook it to the foundations was given by Christianity, which brought its message of hope even for the most depressed."

And of Gandhi about the outcaste: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is active altruism is due largely to the influence of Christianity and Western education. I must confess that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West a daily increasing standard of dutifulness, integrity and efficiency, even in the lower branches of the public services, is being achieved."

Does all this witness to the waning power of Christianity?

Lastly let us note the reality and vitality of the Churches which are the fruitage of foreign missions. They are found now in every non-Christian country except Afghanistan, and they will be there as soon as the Amir's words about religious toleration are authenticated by the allowance of Christian missionaries in his land. These Churches,

small or great, are true Churches and they are our irrefutable argument for the truth and the power of foreign missions. Let them speak for themselves about foreign missions. Two years ago the Rev. Yekola Mbali was moderator of the Bantu Presbyterian Church in South Africa. This church, which was formed two years ago, has about 24,000 members scattered throughout the Cape province of Natal. In his moderatorial address Mr. Mbali said that more than a century before the native people had had no respect for the whites, who were regarded as "intruders and exploiters." It was the Christian missionary, said the moderator, who was "the first man to learn the nature and ways of the natives," and who was so much recognized "as a peacemaker that a missionary was appointed to each chief and his people." Out of that relationship the moderator claimed that there had grown a peculiar sense of trust and friendship such as did not exist between the natives and any other class of whites.

And read the account of the last training classes in the station at Pyengyang in Korea:

"In spite of zero weather over 1,300 men came to Pyengyang from all parts of our province and studied in a great class of seven days which overflowed our class-rooms and taxed our dormitory capacity to the limit. It being vacation time we were able to use most of the dormitory rooms at the Theological Seminary, the Boys' Academy and Woman's Bible Institute. 500 men were cared for in these dormitories. The balance of the 1,300 men found places of entertainment in public inns or in Christian homes in the city.

"The most remarkable feature of the class was the six o'clock morning prayer meetings at the West Gate Church. A thousand or more men came out each morning in the bitter cold in the dark to this meeting which was led by Mr. Hill. The earnestness of these men in seeking God's blessing was most remarkable and of course it was rewarded.

"The night meetings connected with the class were all held except the Sunday meeting in the West Gate Church. Only men were permitted to attend; this being a men's class. If ever a building was filled to capacity, the West Gate Church was so filled. Each evening before the song leader arrived the big auditorium was so crowded that the audience was asked to rise and come forward to make a little more room at the rear for others. This can be done more easily here than in America, because the Koreans sit on the floor and not on chairs or benches. This rising and coming forward process had to be done twice each evening. You may ask how it was possible for men crowded forward as closely as they could stand to sit down at the signal and all find space on the floor. The fact is it was not always possible and several times men had to be helped out over the heads of the crowd because they sat down or tried to sit down a little too slowly and were unable to find any place to squeeze into.

"We wish you could have seen the earnest faces of these men, over 1,800 of them at the night meetings. We wish you could have heard them pray. We wish especially that you might have been present at the Sunday night service at the Central Church when Dr. Moffett preached. It was the evening of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and Dr. Blair who led the after service each evening asked first of all those over 50 years old who wished to reconsecrate their remaining years to God and His service to stand while one of their number led in a consecration prayer. Next the middle-aged men went through the same dedicatory service and last of all the young men under 30 years of age were asked to stand if they whole-heartedly desired to give themselves with all their young strength to God's service. Over two-thirds of that great audience were young men. It was a glorious sight to see them stand with shining faces and take the solemn vow of consecration upon them.

"Each meeting was crowded like this clear to the end of the class and God's presence was manifest at every service and in all the class rooms. The men returned to their homes rejoicing in new found blessing; determined to do God's will more perfectly than before and to preach the Gospel with renewed earnestness to unbelievers.

"All the 1,300 delegates to this Annual Winter Class from the country churches paid their own road money, board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Also, as is their custom in Korea, they

paid a registration fee of 30 cents. Also 500 delegates from the 16 city churches attended and paid the same. The registration fees therefore amounted to 1,800 times 30 cents or 540 Yen, which they used for their home and foreign mission work."

These are not the signs of a waning force, or a dying enterprise. The end of the world's evangelization is far away but the beginning has been made. "And no man having put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ing back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II

Are We Justified in Pressing Our Religion on the World or Have We Need to Learn from Other Religions?

WE ARE often told in these days that the foreign mission enterprise needs to be entirely reconceived. Formerly, it is said, Christianity regarded itself as the absolute and final religion and the work of foreign missions was conceived as a donation or displacement. Missionaries went out to give to other peoples a religion and religious values which these other people did not possess. They even went with the idea of conquest, proposing to set Christ in the place of supremacy over all others, to "Crown Him Lord of all." Now, however, it is held, Christianity must abate these claims. It must give up its exclusivism and recognize that each religion has its distinctive possession of truth and that Christianity has no right to go forth with the conquest or displacement idea. Foreign missions, accordingly, must now regard themselves not as a conquest but as a quest, an effort to learn, not to teach, or to learn as much as to teach, with a view to one world-wide, inter-racial cooperative effort to assemble out of all religions the distinctive contribution of each to the ultimate synthetic and universal religion of mankind.

If this is what is meant by the proposal to reconceive and restate the foreign missionary undertaking, then we must reply that the new conception is both futile and false. It is futile because such a conception would never have produced the foreign missions movement and cannot maintain it. Men and women might go out on this idea to make a world cruise or for brief and comfortable visits but not

culture and those things intimately related to country life. Social clubs and literary societies must give way to agricultural coöperative societies and credit unions. Football and tennis must yield their places to the simpler and less expensive village games. Even the organization and method of the church must be made so simple and inexpensive as to place them within the means of the villagers. All these considerations have meant the reshaping of the program of the Korean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The country is divided for the purpose of the Association into eight regions, in each of which there is a center that acts as the power-house of rural program and activities.

During the last few years such rural work as has been suggested in Dr. Brunner's report on "Rural Korea" has become very popular throughout Korea, and the time and service of those engaged in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work in this field are in constant demand. Theological and Bible schools and preacher's institutes often include lecture courses on rural work, and many secular organizations have sprung up for the object of promoting this work. The greatest needs of the present are the technical knowledge which will carry this work in all its phases to a successful issue, even if it should take many decades to do it, and the necessary means which as yet the villagers themselves cannot provide in their present state of poverty.

Dr. S. A. Moffett of Korea spoke in appreciation of the report on "Rural Korea" prepared by Dr. Brunner, which he said would be helpful to the churches and missions especially with reference to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He criticized a number of statements in the report which seemed to him to be incorrect. (These detailed criticisms have been brought to Dr. Brunner's attention, who has given careful consideration to them in revising his preliminary report.) Further Dr. Moffett said:

We do not minimize the place of social welfare but we magnify the place of the Word of God, and results justify it. Many of Dr. Brunner's suggestions are based upon an entirely different conception of our mission, of the purpose and aim of mission work from that which we hold. I want to quote from a statement:

"We realize that we are living in a changing world, that methods need to be re-adjusted to changed conditions and the message applied to the life of the modern world, but we are deeply convinced, from

actual experience on the foreign field, that what the world needs to-day is just what it needed through the ages, the message of redemption from sin through the death o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We have a profound conviction that education, reformation, social improvement, industrial and scientific advancement with progress in civilization, however greatly to be desired and however to be fostered, can never change the heart of man nor be the means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and that no such highly desirable, yet secondary, benefits accruing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can be the basis for the appeal to man, if the church established is to be the Church of Christ with a supernatural message which has power to regenerate men and to become the spiritual force in the life of people and of nations; which will transform men's lives and meet the needs of the modern world, with its problems in connection with the political, industrial, and social questions, that to-day are the despair of men who have not faith in God and in His Word."

Our greatest and supreme need is for an implicit, unchangeable, steadfast, enthusiastic, confident faith in God and in His Word given us to proclaim as from Him, and a conviction that this message with its supernatural spiritual blessings constitutes the preëminent benefit of Christianity and that the appeal to men must be based upon this and not upon secondary benefits which appeal to the natural man, if we are to secure permanent results in a faith which stands in the power of God and not in the power of man.

Dr. Diffendorfer bore testimony from the angle of the "Home Boards." His recent tour in detail over many mission fields in both hemispheres enabled him to speak with first-hand authority. He said that

The rural field absorbed a major part of the missionary forces, time, and money, and results comparable with the investment were not apparent. The life of the rural people was not being seriously affected. Too much time and money was being spent merely on keeping the church machinery going. Regular ecclesiastical meetings were being held that did not register in the community and in the social life of the people. The missionaries in the field were not to blame. What were the churches at home expecting from the missionaries? There was no place in the columns of statistics for an enumeration of transformed social forces and influences. The home base had been demanding that the missionaries report merely so many

culture and those things intimately related to country life. Social clubs and literary societies must give way to agricultural coöperative societies and credit unions. Football and tennis must yield their places to the simpler and less expensive village games. Even the organization and method of the church must be made so simple and inexpensive as to place them within the means of the villagers. All these considerations have meant the reshaping of the program of the Korean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The country is divided for the purpose of the Association into eight regions, in each of which there is a center that acts as the power-house of rural program and activities.

During the last few years such rural work as has been suggested in Dr. Brunner's report on "Rural Korea" has become very popular throughout Korea, and the time and service of those engaged in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work in this field are in constant demand. Theological and Bible schools and preacher's institutes often include lecture courses on rural work, and many secular organizations have sprung up for the object of promoting this work. The greatest needs of the present are the technical knowledge which will carry this work in all its phases to a successful issue, even if it should take many decades to do it, and the necessary means which as yet the villagers themselves cannot provide in their present state of poverty.

Dr. S. A. Moffett of Korea spoke in appreciation of the report on "Rural Korea" prepared by Dr. Brunner, which he said would be helpful to the churches and missions especially with reference to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He criticized a number of statements in the report which seemed to him to be incorrect. (These detailed criticisms have been brought to Dr. Brunner's attention, who has given careful consideration to them in revising his preliminary report.) Further Dr. Moffett said:

We do not minimize the place of social welfare but we magnify the place of the Word of God, and results justify it. Many of Dr. Brunner's suggestions are based upon an entirely different conception of our mission, of the purpose and aim of mission work from that which we hold. I want to quote from a statement:

"We realize that we are living in a changing world, that methods need to be re-adjusted to changed conditions and the message applied to the life of the modern world, but we are deeply convinced, from

actual experience on the foreign field, that what the world needs to-day is just what it needed through the ages, the message of redemption from sin through the death o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We have a profound conviction that education, reformation, social improvement, industrial and scientific advancement with progress in civilization, however greatly to be desired and however to be fostered, can never change the heart of man nor be the means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and that no such highly desirable, yet secondary, benefits accruing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can be the basis for the appeal to man, if the church established is to be the Church of Christ with a supernatural message which has power to regenerate men and to become the spiritual force in the life of people and of nations; which will transform men's lives and meet the needs of the modern world, with its problems in connection with the political, industrial, and social questions, that to-day are the despair of men who have not faith in God and in His Word."

Our greatest and supreme need is for an implicit, unchangeable, steadfast, enthusiastic, confident faith in God and in His Word given us to proclaim as from Him, and a conviction that this message with its supernatural spiritual blessings constitutes the preëminent benefit of Christianity and that the appeal to men must be based upon this and not upon secondary benefits which appeal to the natural man, if we are to secure permanent results in a faith which stands in the power of God and not in the power of man.

Dr. Diffendorfer bore testimony from the angle of the "Home Boards." His recent tour in detail over many mission fields in both hemispheres enabled him to speak with first-hand authority. He said that

The rural field absorbed a major part of the missionary forces, time, and money, and results comparable with the investment were not apparent. The life of the rural people was not being seriously affected. Too much time and money was being spent merely on keeping the church machinery going. Regular ecclesiastical meetings were being held that did not register in the community and in the social life of the people. The missionaries in the field were not to blame. What were the churches at home expecting from the missionaries? There was no place in the columns of statistics for an enumeration of transformed social forces and influences. The home base had been demanding that the missionaries report merely so many

1928

Jerusalem, 1928

"Two great streams of experience, insight and devotion; of the older churches of Europe, North America + Australia, and of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blended or united as never before."

- Q. R. Mott "Expectations" - Addresses: Jerusalem Mtg. I.M.C. 1928. ch. II, p. 12.

Unfortunately, though Jerusalem was about $\frac{1}{3}$ that would, Latin America apparently chose not to be represented.

한 주일은 온 세상 편지에 맡김다
온 요로 그만 두 음 고 성신의 은혜

마

목수

좌하

그 온 더 안 령 이 단 너 나 오 시 기 를 보 면

는 이 다

아 멘

안유일은감조스현지에말씀다
즐표로구만두음고 성신의은혜
마' 목수 작하
고유미안렴이단녀나오시기를보루
수이다 아멘

吉 善 宙
KIL SUN CHO.

耶穌教長老會宣教師

エス

エイ

モフエツト

馬

布

三

悅

Samuel A. Moffett.

平 壤

1928



POSTALE.

800 country women attending the 12 day Bible Class in April 1928 at Pyengyang Korea. All day and evening Bible study. Each woman walked in from 5 to 50 miles to attend. All paid all of their own expenses.

400 city women attended a similar Class in February. 1300 men came to a similar six day Class in the bitterly cold weather just after last Christmas.

Every one of the 300 local churches of the province has a similar Class in the winter and another in the slack farming time in August just after the first weeding is done.

Over one half of the total enrolled adherentage of the Church each year attends at least one of these Classes.

三
か
は
便
郵